

장수의 고문서 · 1

장수문화원

선현들의 사상과 전통문화가 담겨있는...

책에는 영원불변의 진리가 담겨 있기도 하지만 그 당시 사회의 생활상이나 문화, 습관, 풍습 등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 속에는 저자의 사상이나 생각, 그 시대를 풍미했던 사회사상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장수군에도 옛 문헌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선현들의 사상과 그 당시의 여러 가지 다양한 전통문화들이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전통 문화의 우수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고서들의 전체 영인본은 발간하지 못하지만 그 고서의 모양새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미 발간 고서를 중심으로 발췌하여 <장수군 고문서 자료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전체 내용을 담지 못해 아쉽기는 하지만 깃털 하나로 봉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고, 고기 한 점으로 원 술 맛을 알 수 있듯이 장수지역 고서의 일부분이지만 우리 문화유산을 짐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라도 발행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간추린 자료집이 나오기까지 감수해 주신 박수섭님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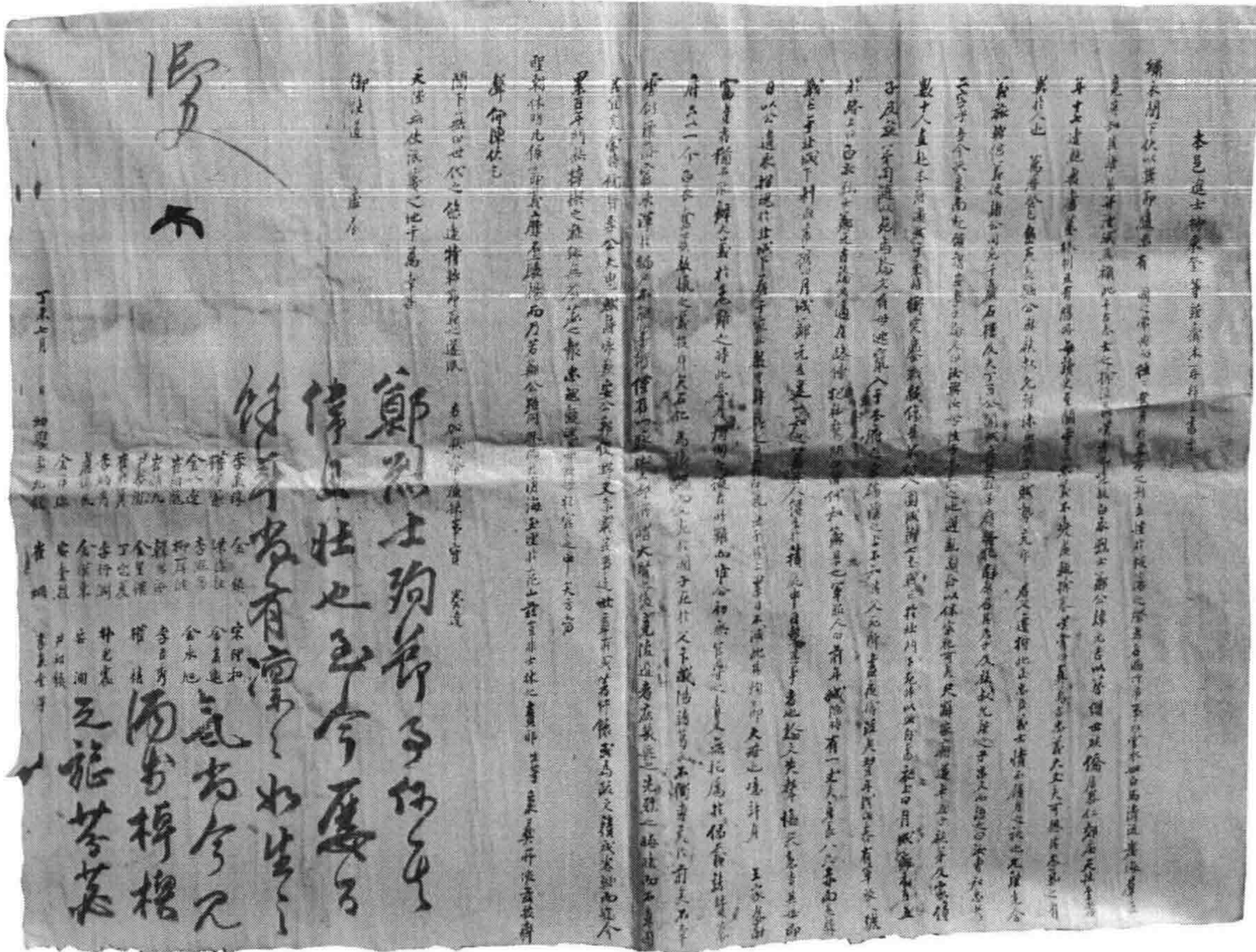
앞으로 기회가 오면 이 고서들을 번역하여 완전한 자료집을 발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책을 통하여 우리 장수군의 선현들이 훌륭했음을 후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한 교육 자료로 널리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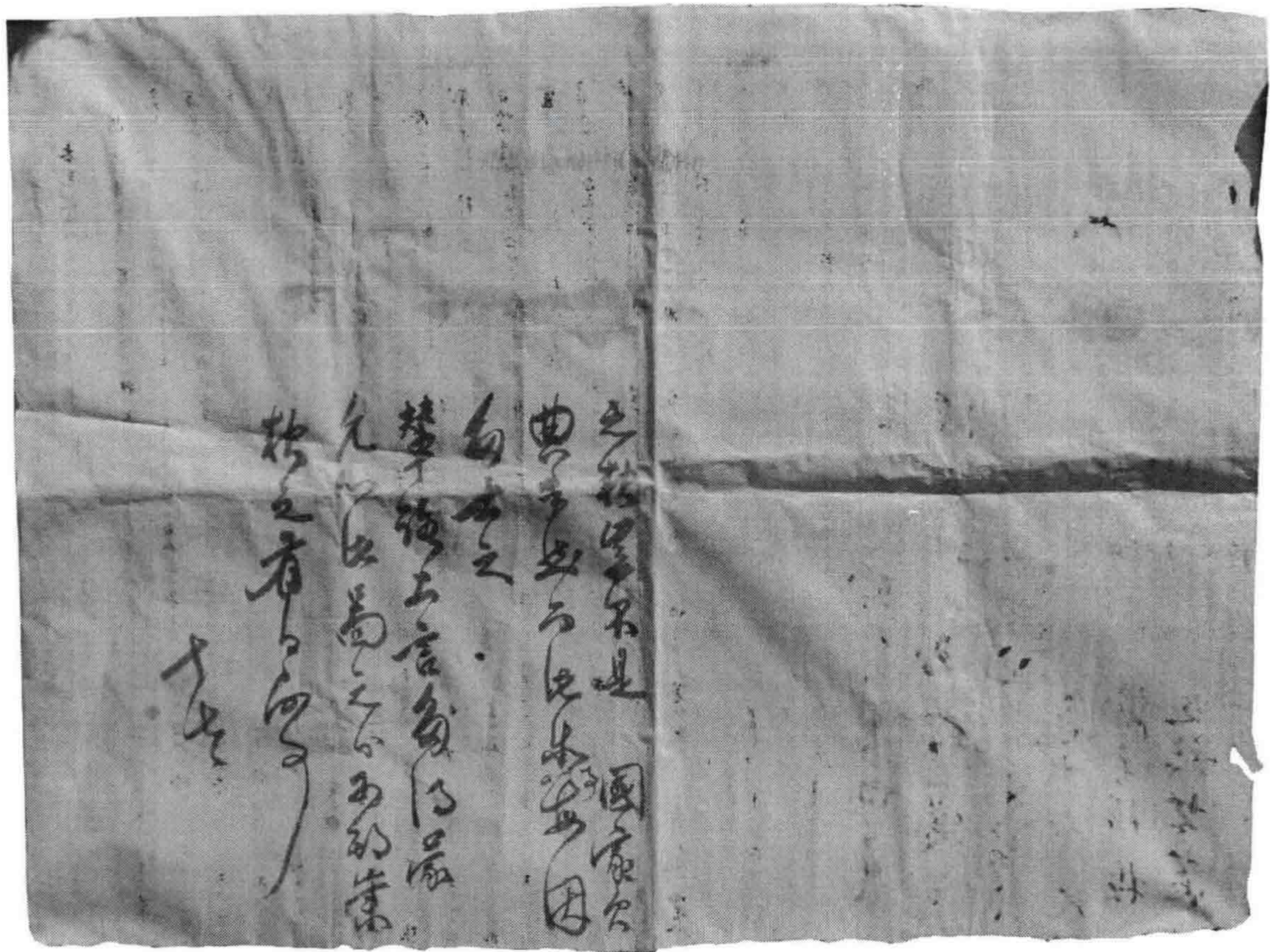
2009. 12. 10.

장수문화원장 **강철규**

1. 청원문(1)

정미(丁未)년(조선 헌종 13년, 1847, 추정) 7월에 남원유생(南原儒生) 진사(進士) 류동규(柳東奎) 등 32인의 연서(連書)로 어사(御史)에게 올린 등장(等狀=陳情書)으로 선조(宣祖) 30년 정유재란 때 남원 전투에서 전사(戰死)한 열사(烈士) 정원길(鄭元吉) 등의 충절(忠節)에 대해 표창해 줄 것을 청원(請願)하는 문서이며 어사는 판결문을 통해 정원길 등의 충절을 가상히 여김과 동시에 임금에게 직접 청원(임금이 다니는 輦路에 와서 진정함)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권유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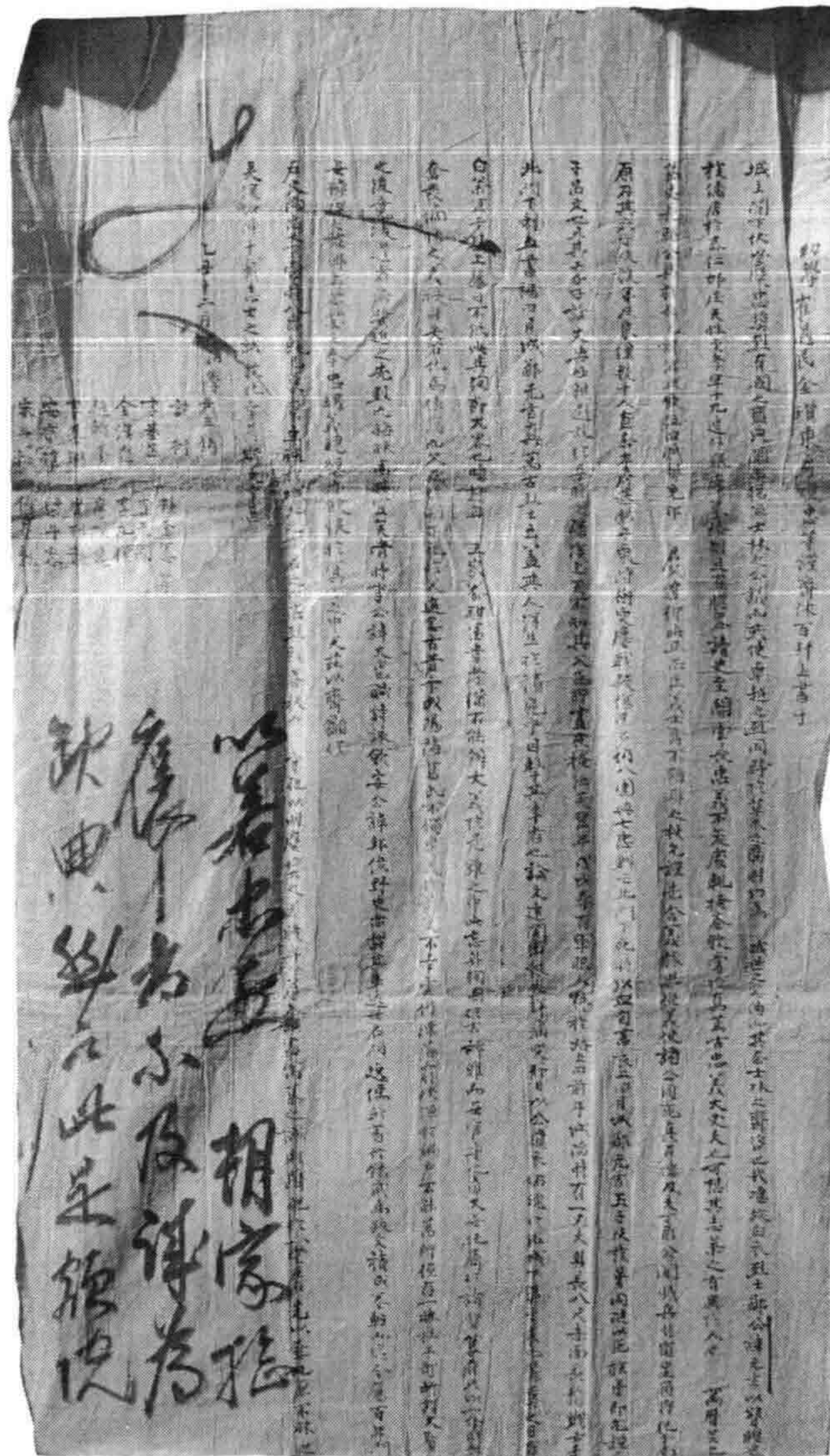




之公孫某是 國康
由事出乃良本
自之
禁物上言
允以爲之
於之者

1. 청원문(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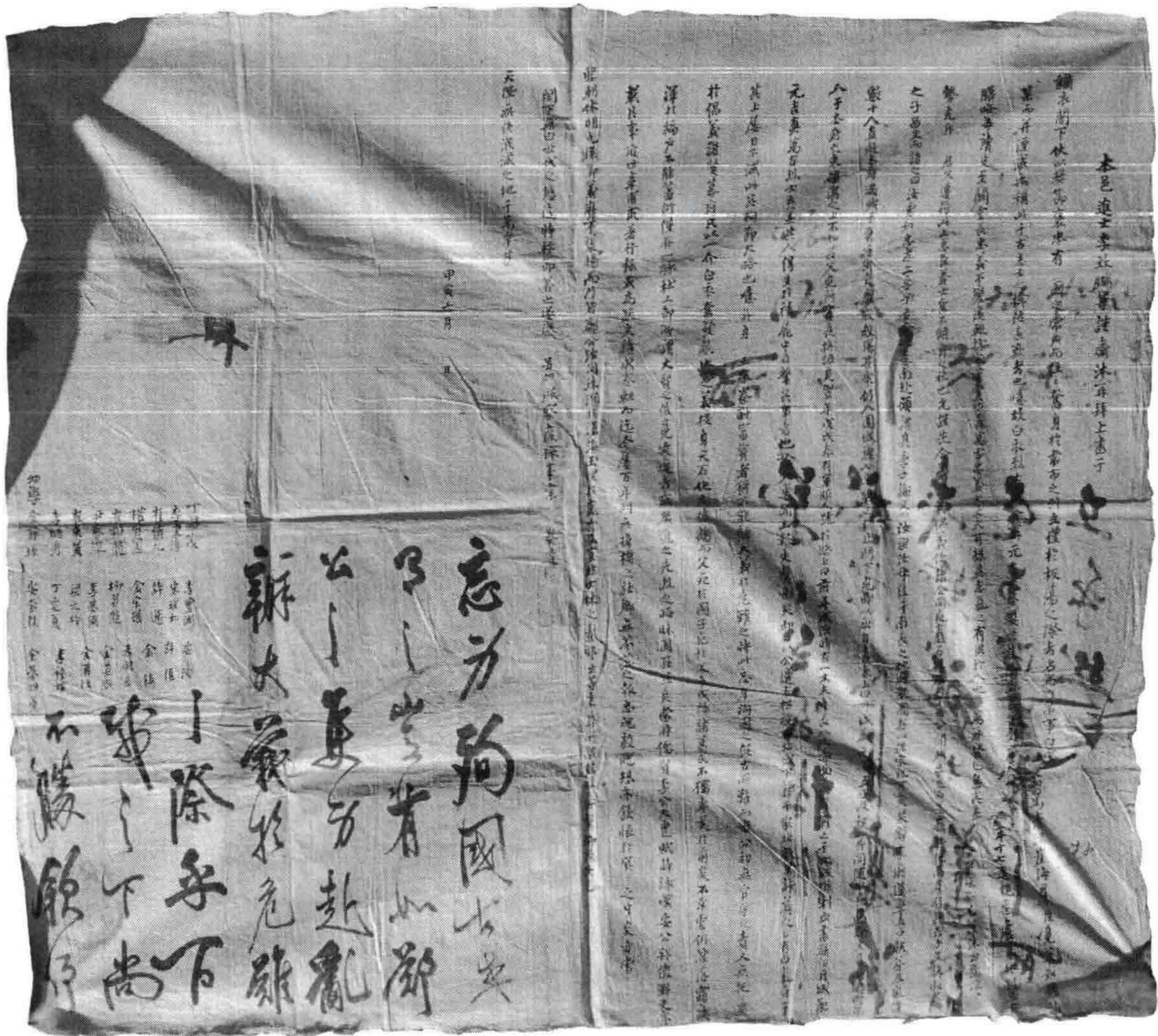
을축(乙丑) 12월에 유학(幼學) 최우민(崔遇民) 등 18인이 성주(城主)에게 올린 진정서로 백의 열사(百衣烈士) 정원길(鄭元吉)의 정려(旌閭)와 사당(祠堂)이 없어 충혼의 백(忠魂義魄)이 명명지중(冥冥之中)에 음한(飲恨)하리니 충열사(忠烈祠)에 제배(踏配)토록 해 달라는 요지이며, 성주는 비답(批答)에서, “결전(缺典)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청원은 불가(不可)하니 다만 사림(士林)의 의논으로 빨리 제향(躋享)할 일이다.”라고 하였다.



分多の保以本一後
遷延躋意而
深

1. 청원문(3)

갑인(甲寅) 6월에 남원 진사(進士) 이치봉(李致鵬) 등 26인이 어사(御史)에게 올린 등장(等狀)으로 백의열사(白衣烈士) 정원길(鄭元吉)의 순국사실(殉國事實)을 널리 캐어 임금에게 주달(奏達)하여 묻혀지지 않게 해 달라는 내용이며, 어사(御史)는 비답(批答)하기를, 정공(鄭公) 같은 대의(大義)가 옛날 인물 얼마나 있겠는가! 흠앙(欽仰)해 마지 않는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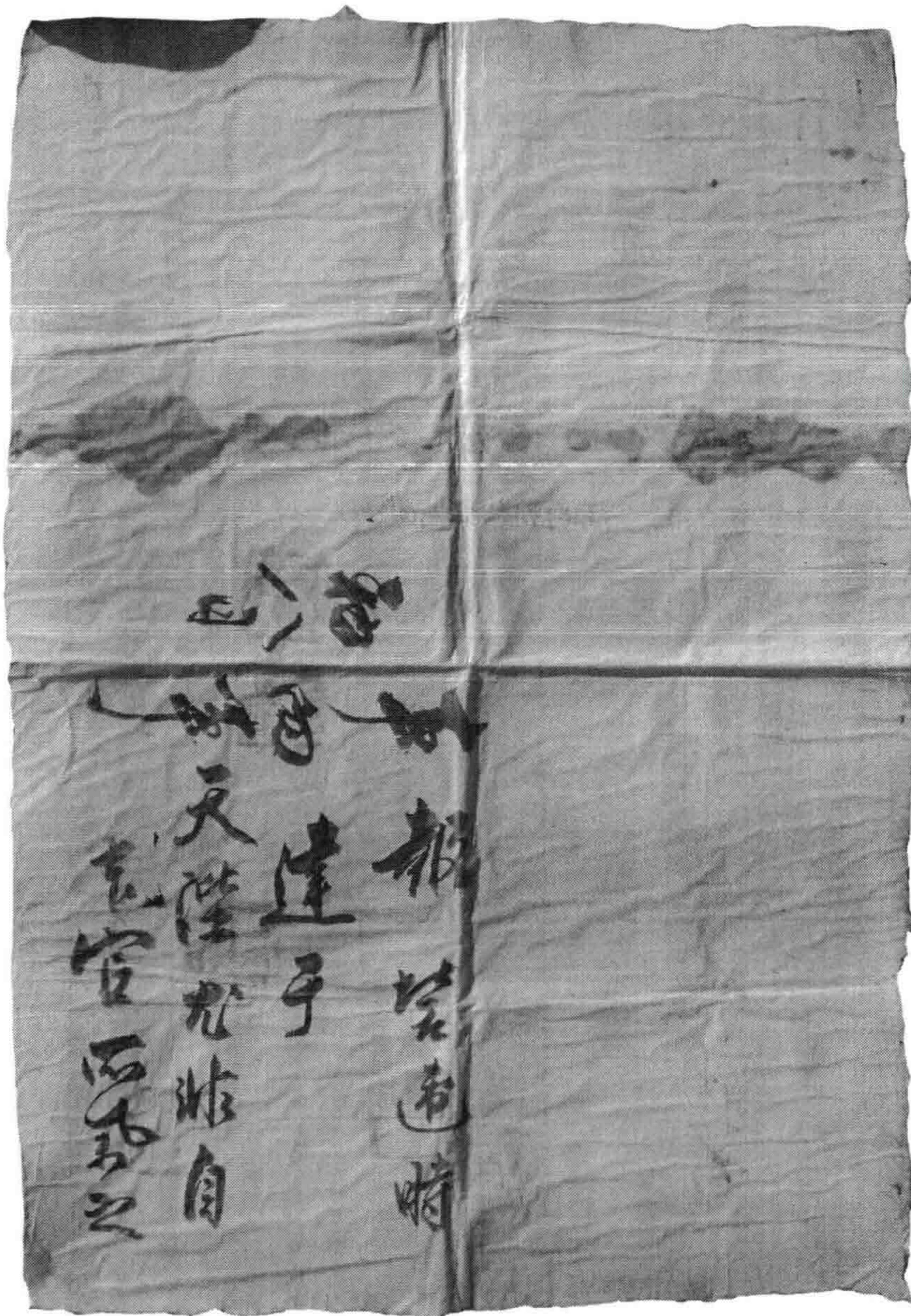
1) 청원문(5)

○○ 정월(正月)에 남원 유학(幼學) 안상징(安相鼎) 등 56인이 연서(連書)하여 순상(巡相)에게 올린 진정서(陳情書)로 백의열사(白衣烈士) 정공(鄭公) 휘(諱) 원길(元吉)이 순국(殉國)한 지 수백 년이 지나도록 문(門)에는 정려(旌閭)가 없고 고을에 사당(祠堂)이 없어 충혼의백(忠魂毅魄)을 보답할 길이 없으니 임금에게 전달(轉達)하여 휘전(徽典)을 받게 해 달라는 내용이며 순상은 비답(砥答)을 통해, “널리 공의(公議)를 캐어 처리함이 가(可)하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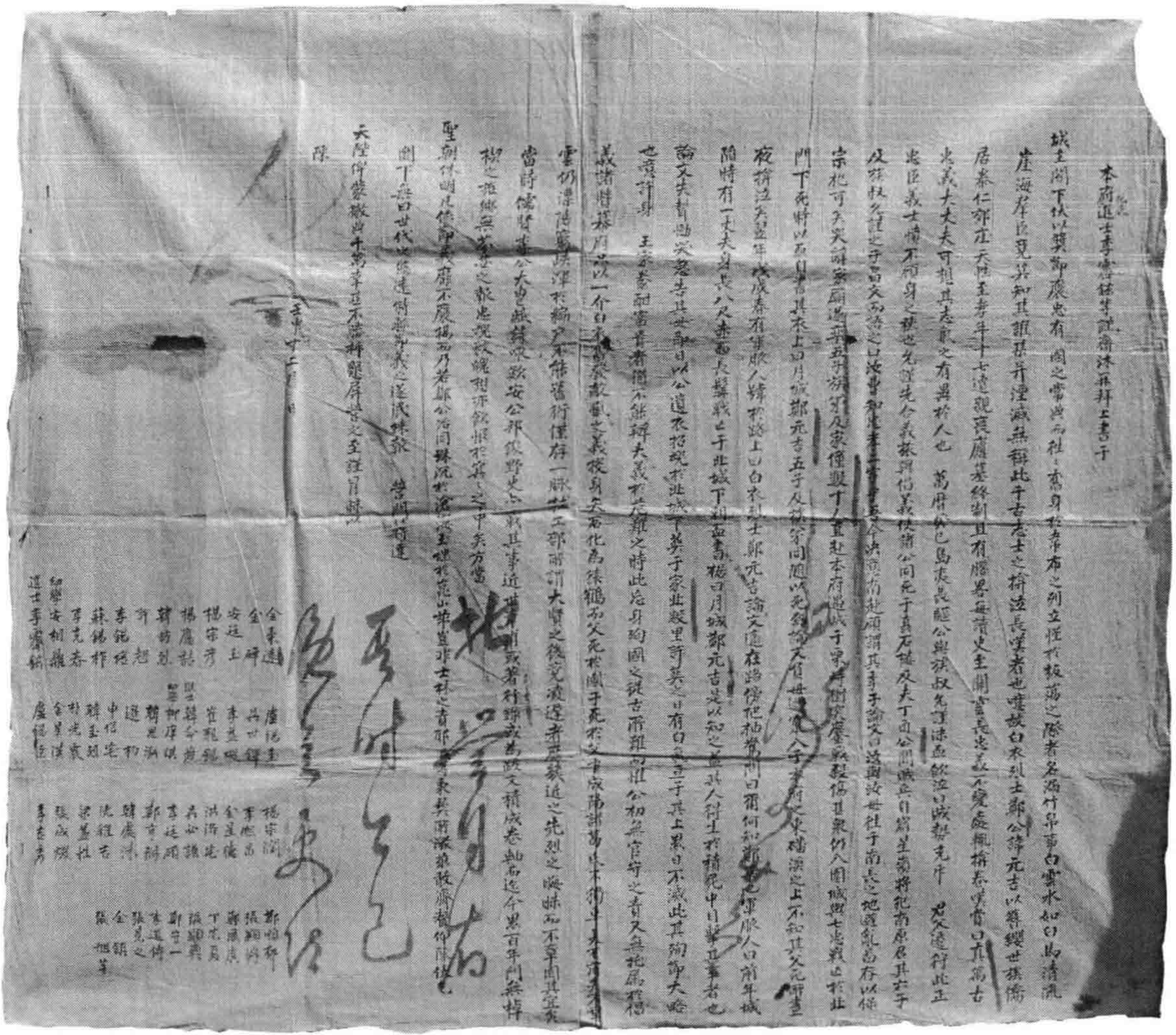
“뉘가 흠앙(欽仰)하지 않으리요, 어찌 홀로 어사(御史)의 제(題)이겠는가!”

그러나 영문(營門)에 보고할 때가 어긋났는데 임금님께 품달(稟達)하기는 더욱 본관(本官)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1) 청원문(7)

임신(壬申) 12월에 본부화민(本府化民) 진사(進士) 이제현(李霽鉉) 등 47인이 성주(城主)에게 올린 진정서로 백의열사(白衣烈士) 정원길(鄭元吉) 등의 충절(忠節)을 당시 유현(儒賢) 이대주(李大冑) 가 시(詩)로 읊고 안방준(安邦俊)이 야사(野史)에 실었으며 근세 선비들이 행록(行錄) 발문(跋文)을 지어 책이 되었는데 수백 년이 되도록 정려(旌閭)와 사당(祠堂)이 없어 충혼의백(忠魂毅魄)이 상상컨대 음한(飲恨)하여 휘전(徽典)이 내리도록 해달라는 청원이며, 성주는 비답(砥答)에서, “세월이 그 때가 있는 것이니 지금은 이미 늦었다. 다시 일후(日候)에 청하도록 하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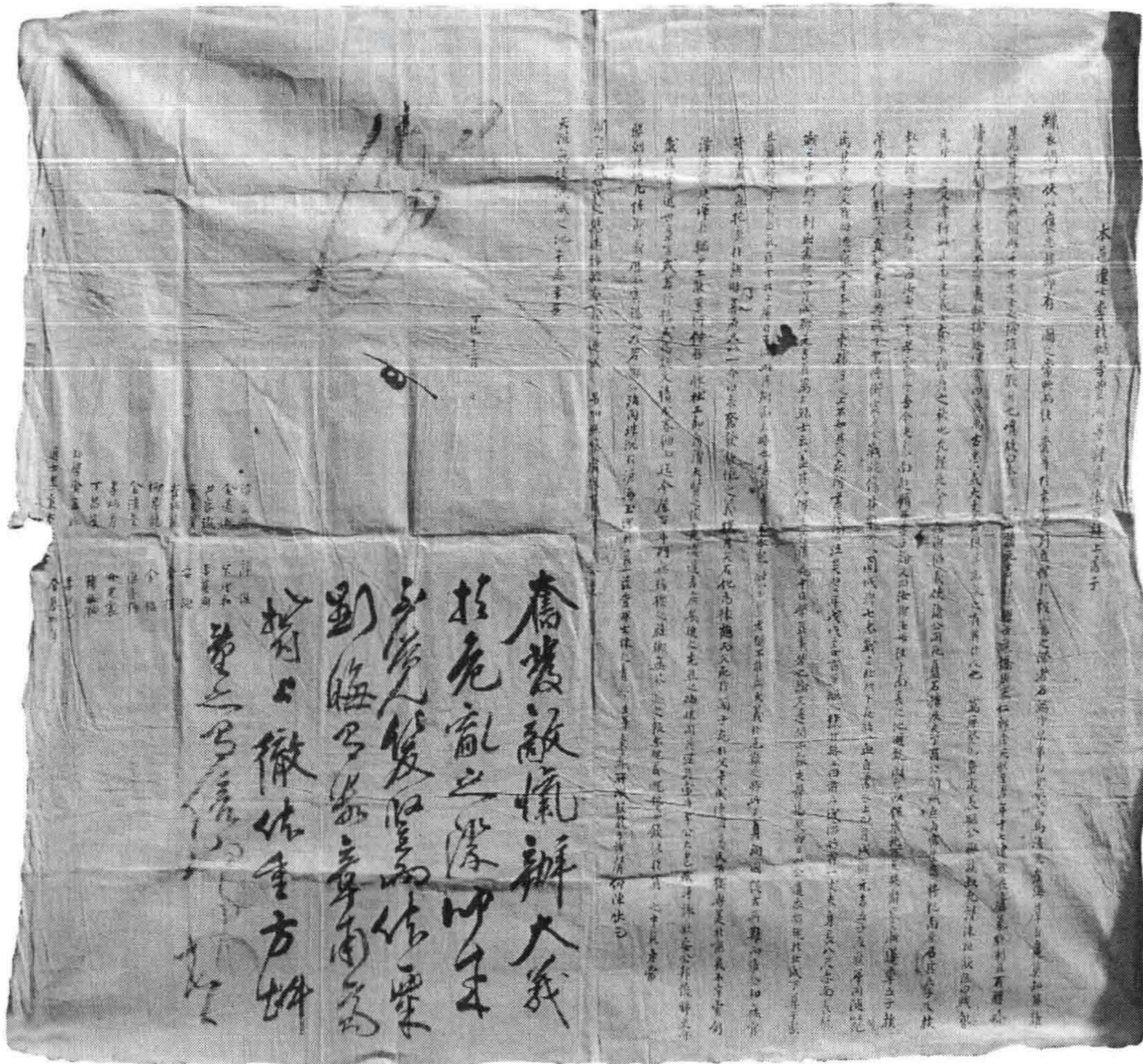


1. 청원문(8)

정사(丁巳) 12월에 본읍진사(本邑進士) 이치붕(李致鵬) 등 22인이 어사(御史)에게 올린 진정서로 열사(烈士) 정원길(鄭元吉) 등의 충절(忠節)을 임금님께 주달(奏達)하여 문혀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원(請願)이며, 어사는 비답(砥答)을 통해,

“분발적개(奮發敵愾)한 대의(大義)는 듣자니 머리가 쭈뼛거리고 소름이 돋는데, 현회(顯晦)가 운수(運數) 있는 것이니 선비들이 갑절이나 힘을 쓰라.” 하였다.

공(公)이 가신 지 수백 년이 흘러 2008년에 드디어 남원 충열사(忠烈祠)에 모시게 되어 천주(千秋)의 한(恨)을 풀게 되었다.



1. 예의유집 禮疑類輯

이 책은 산서면 오산리 야옹(野翁) 권윤수(權潤壽 : 1849~1936) 선생이 필사(筆寫)한 것이다.

15책이나 되는 많은 분량을 시종 한마음으로 정성을 들인 선비의 자세에 감탄을 금할 수 없다.

예의유집은 조선영조 때 밀양인(密陽人) 겸재(謙齋) 박성원(朴聖源 : 1697~1757)이 사례(四禮)에서 의문되는 예(禮)를 분류수집한 것으로 목록(目錄) 2책과 본문(本文) 13책으로 되어있다.

겸재는 도암(陶庵) 이재(李穡)의 문인(門人)으로 문과(文科)에 올라 세손(世孫 : 後日五祖) 강서원 유선(講書院 諭善)이 되어 세손을 보도(輔導)하였으며 참판(參判)을 지냈고 이조판서(史曹判書)에 증직(贈職)되었다. 시호(諡號)는 문헌(文憲)이다.

예(禮)는 정(情)에서 나오기 때문에 시대따라 응변(應辯)이 있게 마련이고 의례(疑禮)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원래는 잠계(潛溪) 이유철(李唯哲)이 전고예론(前古禮論)을 엮어 사례집설(四禮集說)을 만들고, 사계문해(沙溪問解), 우암예의(尤庵禮疑), 남계예설(南溪禮說)을 취하여 별도로 1부(一部)를 만들면서 장차 널리 중설(衆說)을 채록(採錄)할 뜻을 가졌었는데 2책을 끝내지 못하고 별세하자 그의 아들 희정(希正)이 유명(遺命)으로 박성원에게 부탁하였다.

성원은 도암(陶庵) 선생에게 여쭙고 가르침을 받아 3책을 정리하고 또 널리 채록하니 무릇 29가(家) 37서(書)이다.

분조정목(分條定目)은 동문우(同門友) 유언집(兪彦鏞)의 도움을 받아 10수 년의 정력을 허비하여 원서(原書) 24편, 부록 2편을 탈고하였다.

1758년 ● 5월 후보름에 서문(序文)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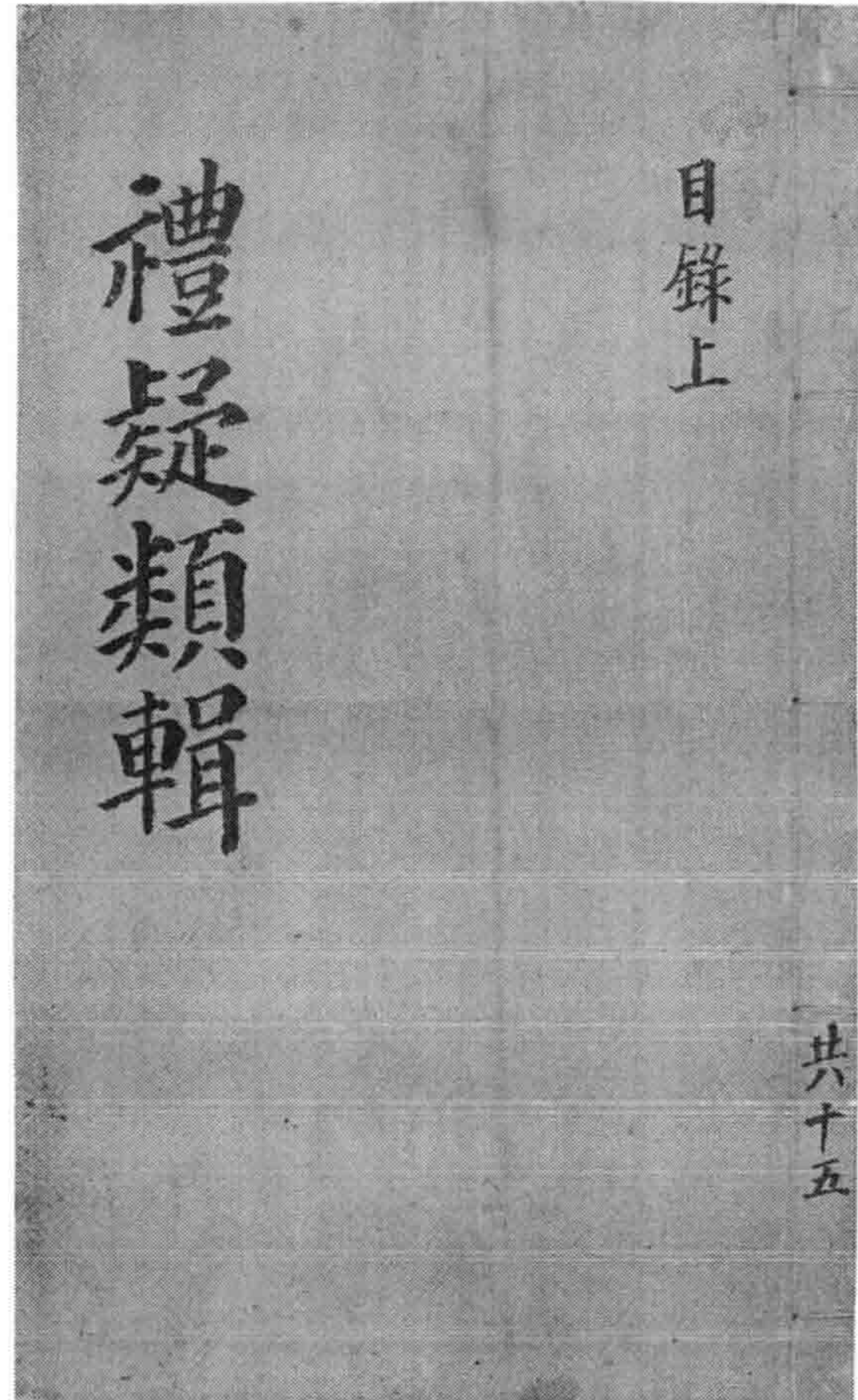
그후 1783년 ● 10월 초9일에 정조대왕 어제서(御制序)를 신(臣) 서정수(徐整修)가 받들어 썼는데 왕의 서문이기 때문에 앞에 실렸다. 끝에 보이는 낙관은 규장지보(闡章之寶)이다.

● 목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1권 관례(冠禮), 2권 혼례(昏禮), 3권~15권 상례(喪禮), 16권~19권 상변례(喪變禮), 20권~23권 제례(祭禮), 24권 제변례(祭變禮), 부록상하(附錄上, 下).

● 목록은 아래와 같다.

목록상 42장, 목록하 61장, 1책 40장, 2책 34장, 3책 40장, 4책 41장, 5책 61장, 6책 37장, 7책 39장, 8책 56장, 9책 51장, 10책 56장, 11책 43장, 12책 48장, 13책 25장



예의유집 禮疑類輯 표지

20.8×28.7 15책 674장

御製禮疑類輯序

禮惡乎本本乎情情惡乎發發乎性性惡乎受受乎
 天之理賦於人而爲性性之欲應乎物而爲情情
 之致歸而見諸事者節其中得其所安則禮也子思
 子曰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發而皆中節謂之和
 和也者天下之達道也是故即是道而文之曰禮由
 是禮而行之曰道道即禮禮即道其實一也道也者
 不可須臾離可離非道也自夫日用飲食起居之節
 以至事君父序上下尊天地賓鬼神是道是禮夫豈
 有一物之遺一息之間哉人能順遂其性而求適乎

禮記卷之五十七
禮記卷之五十七

情之所安則庶幾無待於外而自合乎禮也惟其情肆性鑿迷亂而不識其宜故先王制禮以詔天下後世斯即修道之爲教也禮儀三百威儀三千其爲教也備矣而天下之事變無窮故所以應之者亦無窮自曾子設問於夫子其後賢儒隨其所遇之變而各有論說雖未必盡合於聖人而安之補經傳之闕遺以助時王之教者也遼史稱朝鮮有箕子遺俗緣情制宜隱然有高質之風夫能緣情制宜則其於禮固幾矣暨我朝 列聖作興儒教彬蔚三百年来士之以知禮名者無慮四五十家比於古訓之疑晦難明

時變之舛互不齊者皆有所反覆質問援引闡發而第患其言散見卒難搜考故論善朴聖源乃盡取諸家之書會粹分景以冠婚喪祭爲目附以宗法雜禮凡若干卷名曰禮疑類輯予覽而嘉之亟命芸館刊布雖窮僻孤陋之士得是書而有之則當其遇事起疑庶可開卷瞭然有所據依而行之其有補於禮教宜云少哉雖然儒先論禮之說非有他也即按其情之所安而爲之節求以合乎本然之性而已學者能因其說而究其理有得手性情之微則其言之所不及亦可以推類而義起苟無所自得而祇以考据而

禮記卷之五十七

已則事變之無窮其盡於是書乎易曰精義八神以致用也利用安身以崇德也合內外之道也徒博而不能約則禮云子哉予故溯其本而論之使學者知所務云爾予即祿之七年癸卯孟冬初九日奎章閣原任直閣通政大夫守原春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原州牧使知製 教 臣 徐鼎修奉 教謹書



禮疑類輯序

有家日用之禮莫重於冠昏喪祭而常變不一則曾子問一篇辨析詳矣古今異宜則朱先生家禮參酌盡矣然天下之事變愈無窮前人之議論或不到者亦不能無待於後也我東賢儒輩出禮學大明疑而有問問而有解又或有自爲著說雖其詳略同異之不齊而要皆爲參互援據之資蓋曾子之所未問家禮之所未載者亦多所發明其有補於禮經大矣顧其爲說各成一書而或散出於諸家文集或窮鄉之士既無以盡蓋卒遽之際又難予遍考是以人遇無

於古之愛禮者雖有先輩所已論而輒自矜然或於一書得其說而不知諸書又有他說卒無以參證而折中焉所以書雖多而用則闕學者常病之潛溪李公惟哲氏承家學淵源而尤致意於禮既編前古禮論為四禮集說又取我東沙溪問解允庵禮疑南溪禮說而合錄之別為一部其意蓋不止此將以博採衆說次第收入而二書俱未了公遽即世矣其胤希正甫以公遺命屬聖源說工聖源惟不克承當是懼嘗以是稟于我陶庵先生先生教以集說因為家禮羽翼然猶不如東賢禮論之寂切於應慶又近而可

易微也遂謹就其合編三書者刪其繁複定其次第又博考諸集攷摭要語凡二十九家三十七書逐條補八一如原例而若其分條定目實與同門友俞彥鏞士精共之蓋費十數年精力而書始脫藁原書二十四編附錄二編總名之日禮疑類輯於是乎上下數百載間許多疑慶之禮同異之說一開卷瞭然庶幾人之有疑莫證臨卒難考者有以證之詳而考之便嗚呼此實潛溪公所以始手用力者而亦賴我先師指導卒底于成覽者尚可以知厥功之所自也顧此衰病已甚精神都耗更無餘力可及於集說無以

盡副李公遺托是為可愧也已
崇禎紀元後三戊寅仲夏下浣凝川朴聖源書

禮疑類輯引用書目

晦齋集 文純公所著
河西集 文純公所著
退溪集 文純公所著
退陶言行 文純公所著
頤庵集 文純公所著
蘇齋集 文純公所著
高峰集 文純公所著
栗谷集 文純公所著
擊蒙要訣 同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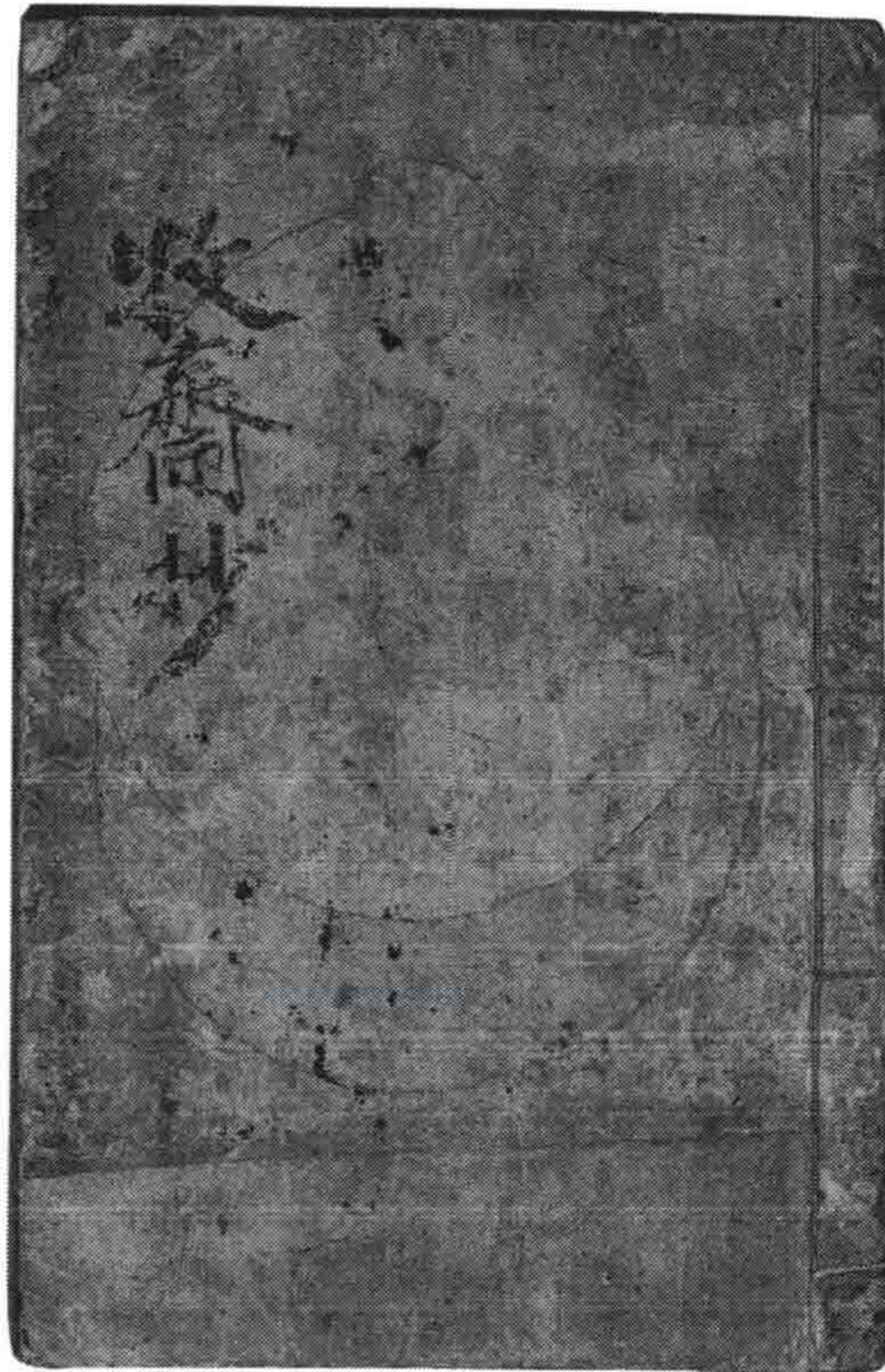
牛溪集 文簡公成
潭所著
 松江集 文清公鄭
澈所著
 龜峰集 宋翼弼
所著
 寒岡集 文穆公鄭
述所著
 西厓集 文忠公柳
成龍所著
 沙溪集 文元公金
長生所著
 家禮輯覽 同上
 喪禮備要 同上
 疑禮問解 同上
 朽淺集 海令黃宗
所著

旅軒集 文康公張
顯北所著
 愚伏集 文莊公鄭
經世所著
 續疑禮問解 文敬公金
集所著
 浦渚集 文孝公趙
翼所著
 冶谷集 字令趙克
善所著
 澤堂集 文靖公李
植所著
 尤庵集 文正公宋
時烈所著
 莘陽語錄 尤庵門人
崔慎所錄
 同春集 文正公宋
浚吉所著
 市南集 文忠公俞
際所著

引用書目

南溪禮說 文純公朴
世采所著
 三禮儀 同上
 靜觀齋集 文貞公李
端相所著
 遂庵集 文純公權
尚夏所著
 農庵集 文簡公金
昌福所著
 芝村集 文簡公李
喜朝所著
 陶庵集 文正公李
緝所著
 四禮便覽 同上

3. 목재초(牧齋抄)



목재초 牧齋抄
15×23.5 1책 6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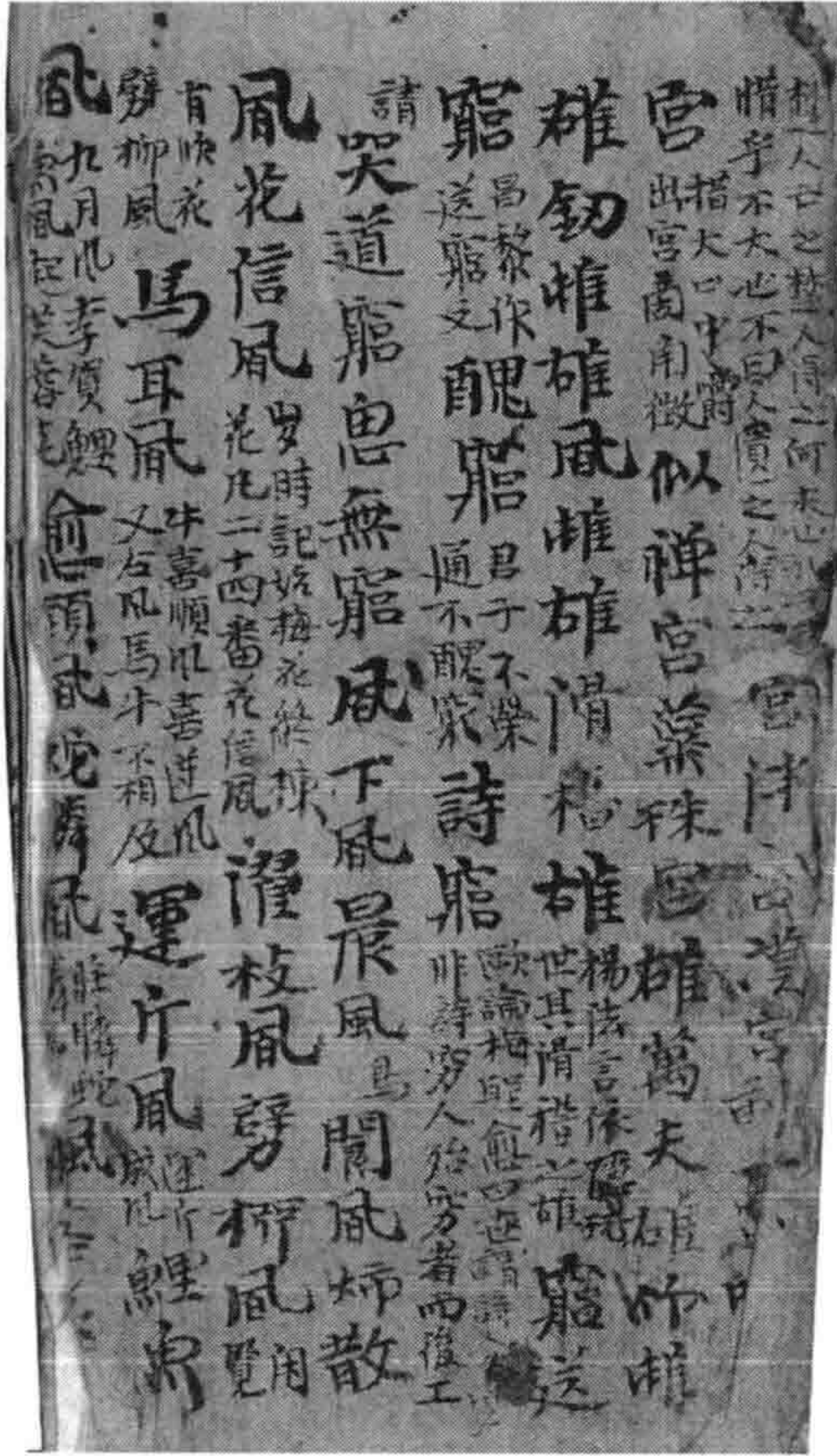
목재문집(牧齋文集)중에서 뽑은 책.

성(姓)은 전(錢), 명(名)은 겸의(謙宜), 자(字)는 수지(受之). 중국 명(明)나라 말 인물이다. 태학사(太學士)로 갑신변(甲申變) 후에 절간에 몸을 의탁하여 1663년 청(淸) 강희 계묘(康熙癸卯)에 80여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고, 이 책은 1685~1686년 간에 간행되었는데 이미 1664년에 범양(范陽) 추전(鄒鐫)이 서문(序文)을 쓰면서 집대성(集大成) 한것을 내세웠다.

이 책은 서(序), 발(跋), 제(題), 서(書), 기(記), 설(設), 전(傳), 인(引), 소(疏) 등이 실려있는데, 수사(手寫) 한 이는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깨알처럼 정성껏 쓰고 일일이 타점(打點)해가며 독공(篤工)한 흔적이 경탄(驚嘆)을 금치 못하게 한다.

성학현회(聖學顯晦)를 논한 대학연의서(大學衍義序)를 소개해 보기로 한다.

4. 율가요람(律家要覽)



율가요람 律家要覽
14.7x22.2 1책 65장

회재(槐齋) 박치원(朴致元 : 1833~1878)은 경암(敬菴) 박근환(朴根煥)의 장자(長子)이다. 손수 운고(韻稿)를 쓰고, 뒤에 황석공소서(黃石公素書)등을 순서 없이 써넣기도 하였다. 회재는 지극한 효행이 있었고 시문을 좋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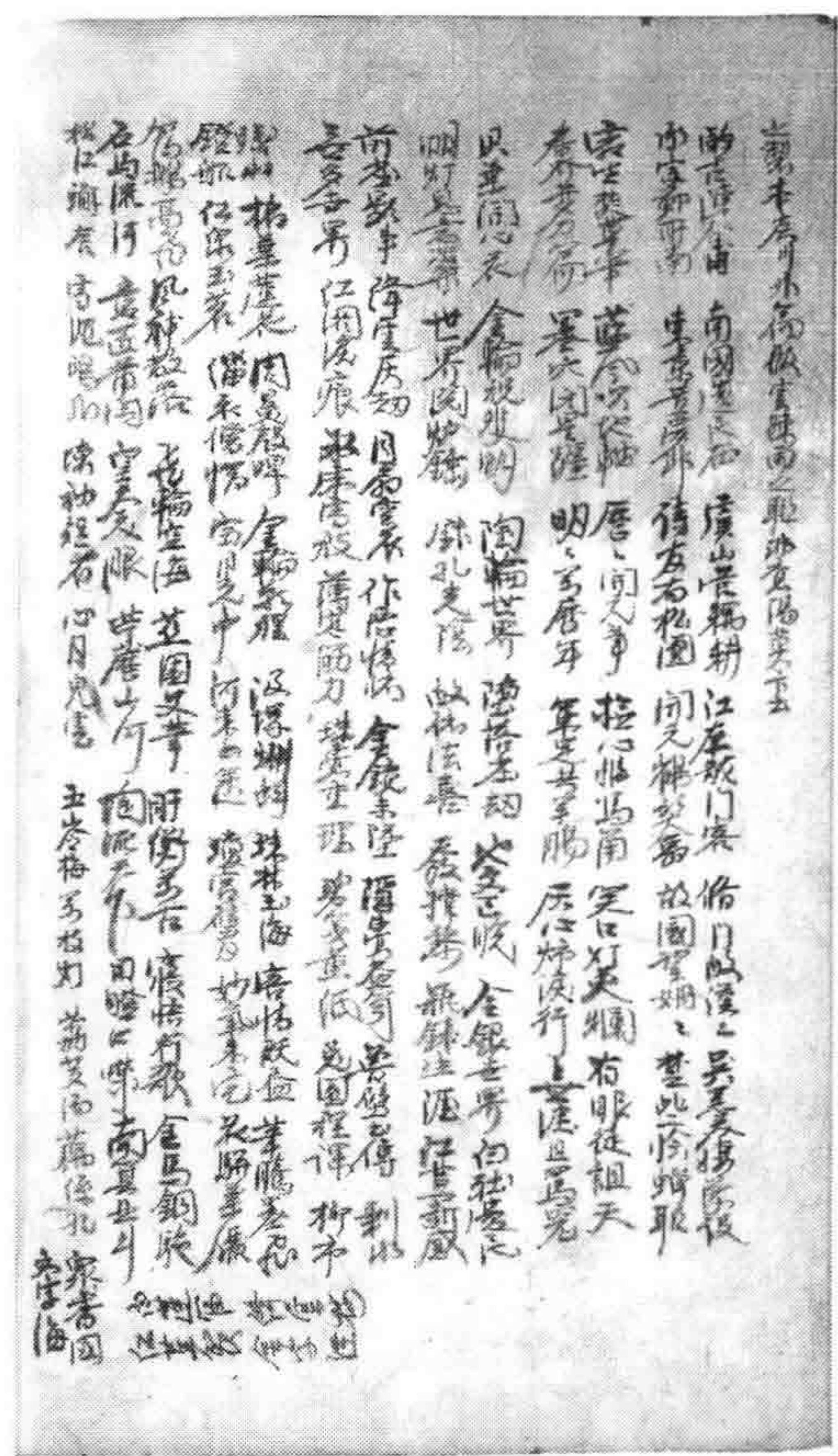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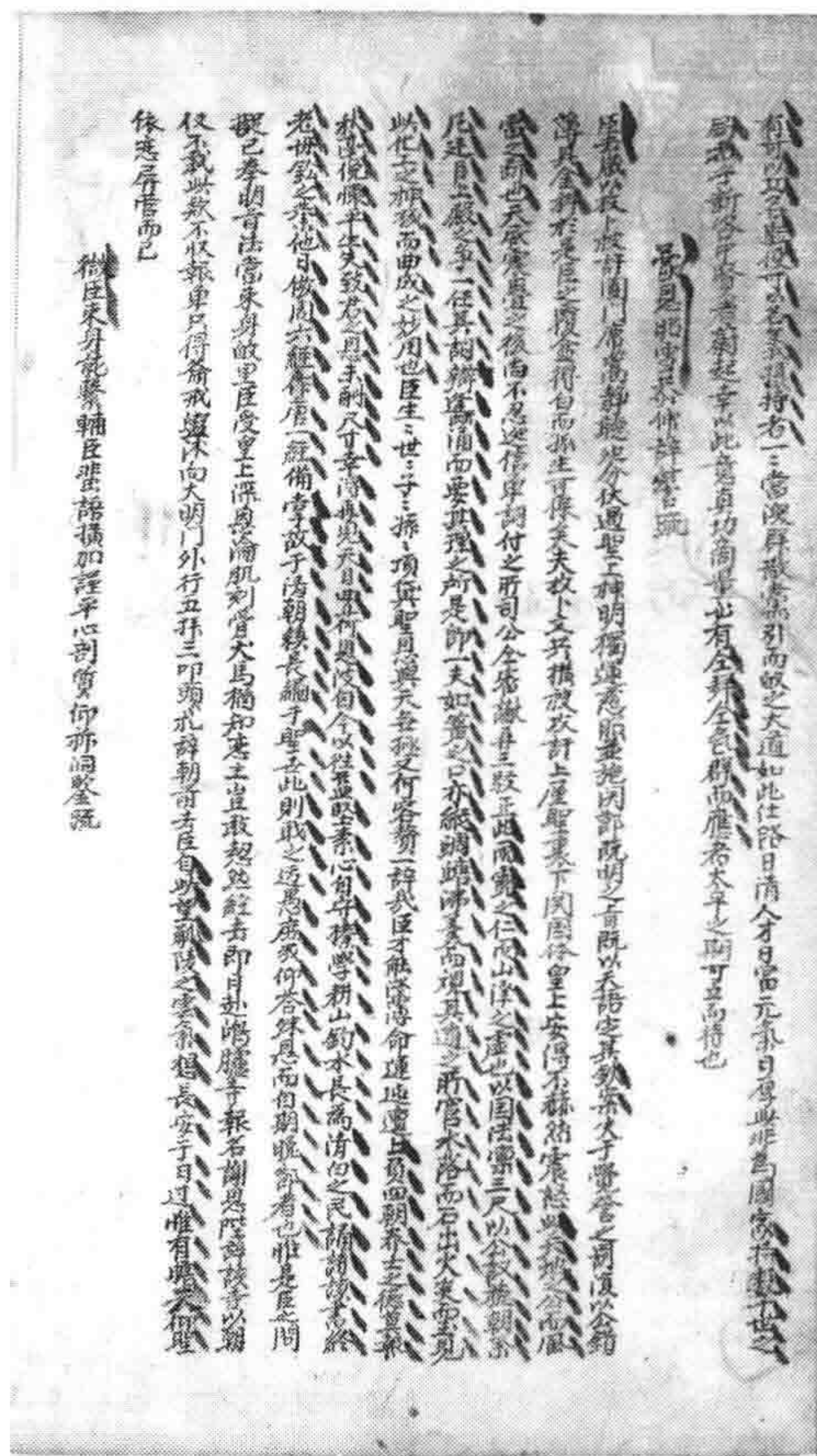
양재(陽齋) 권순명(權純命)이 공(公)과 아우 농와(聾窩) 박치중(朴致宗)의 구거비(舊居碑)를 찬(撰)하면서 형제분의 효행(孝行)을 상세히 기술했는데 구거지(舊居地)는 계남면 요전리(堯田里)이다.

다스림은 도(道)에 근본하고 도는 마음에 근본하며, 전(傳)은 경(經)을 돕고 경은 세상을 돕는 것이니 그 관련됨이 모두 학(學)으로 연유하나니 학이란 인심(人心)의 일월(日月)이다. 에로부터 제왕(帝王) 경의 중화(敬義中和)의 학이 하나도 전해지지 않으니, 한번 변하여 서경(西京)의 구두(句讀)가 되고 두번 변하여 동도(東都)의 표방(標榜)이 되고 여러번 변하여 건안(建安)의 여칙(麗則)과 강좌(江左)의 현담(玄談)이 되며 심지어 원도복성(原道復性)의 글이 나와 풍월(風月)이 부염(浮艷)해 마지 않으니 고학(古學)이 없어졌다.

소식(蘇軾)이 말하기를,

“약이 비록 의사 손에 가지만 처방은 고인(古人)에게 많이 전했으니 이 책이 진실로 옛 처방인제! 이를 얻어 상하(上下)에 퍼면 오도(吾道)의 하늘이 어둡지 않고 사문(斯文)의 태양이 다시 맞으리라.

나는 늙고 고달과 장차 농사나 지으리라.(將擊壤而之) 하였다.



5. 공부자 존영(孔夫子 尊影)



공부자 존영

공부자 존영은 중국 원(元)나라에서 판본(板本)으로 낸 것이다. 당시에 얼마나 냈는지는 알 수 없으나 700년이 지나는 동안 본향교 소장과 미국에 있는 1점만이 남아있다고 한다. 불행히 본향교 소장본을 도난 당하여 다시 모시게 되었는데 본 존영은 장수향교지에서 사진으로 찍은 것이다.

6) 양사재 답세 봉책(養士齋 畝稅 捧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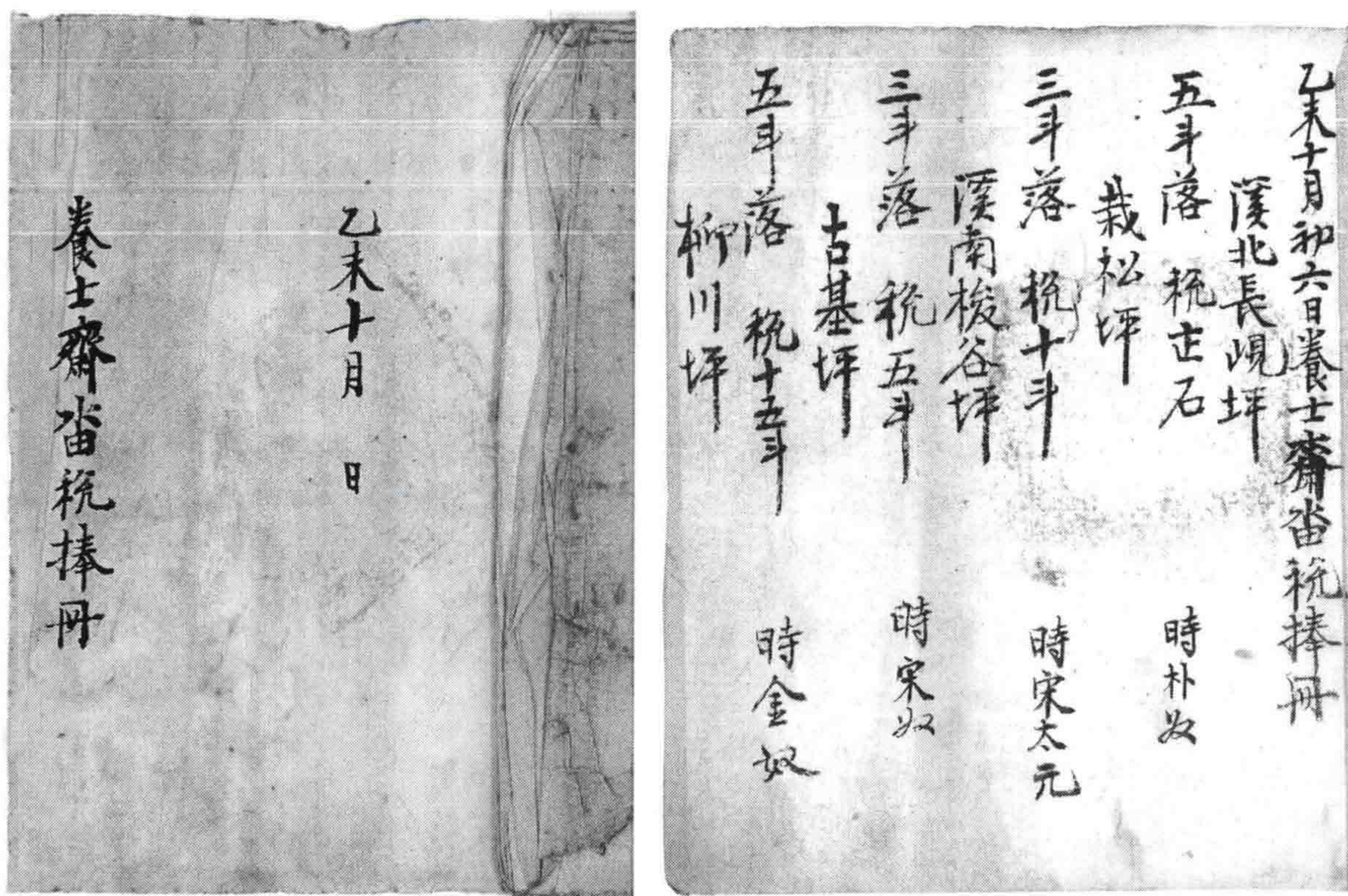
이 책자는 장수향교 양사재에서 1955년(乙未) 10월 6일 날 수봉(收捧)한 당해년도 수세이다. 이책자를 통하여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양사재 논이 50년 전만해도 107두락이 있었다는데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도합(都合) 19석 9두를 받아들인 기록이 끝에 보인다.

그리고 향교논처럼 각면에 산재했던 점도 알 수 있다.

둘째 당시 소작인을 종(奴) 또는 가(哥)로 표시할 만큼 순진했던 것도 재미있다. 그러나 반드시 끝에는 관장(館長)의 수결(手決)을 받는것이 상례(常例)였다.

이상으로 미루어 보아 유일한 교육기관인 향교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보였는가 하는 점을 깨닫게 한다.

끝에는 양사재 서책기(書冊記)도 보인다.



양사재 답세 봉책 養士齋 畝稅 捧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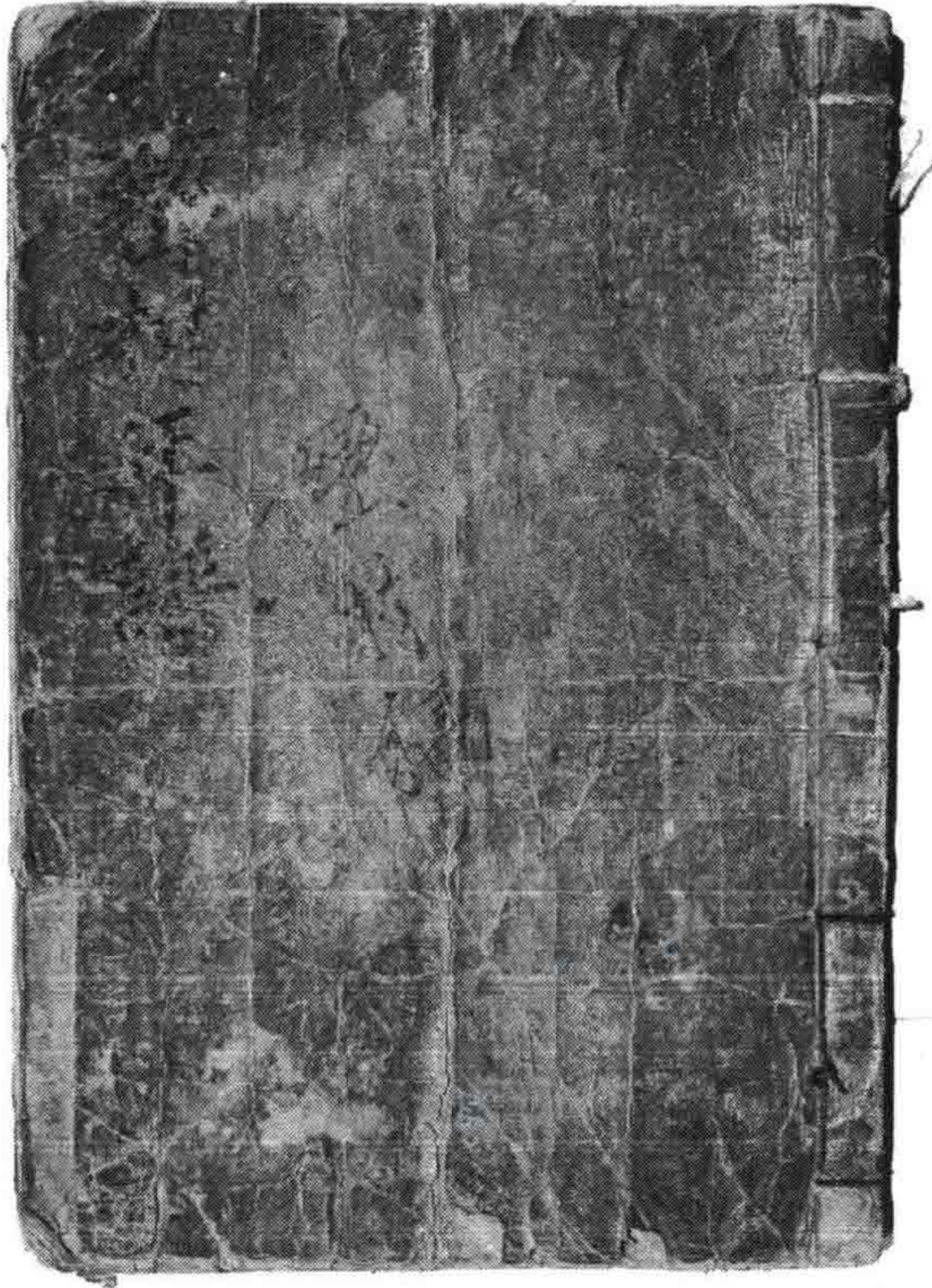
17.3×19.6 1책 4장

陶幕坪
 四斗落 稅 止石 五斗 時 吳哥
 三斗落 稅 止石 時 自永老
 粟谷坪
 四斗落 稅 止石 時 成系
 舊校坪
 二斗落 稅 十五斗 時 成系
 已上都各租十九石九斗

官 冊
 書丹記
 養生齋節目一卷
 養生堂節目一卷
 居接錄 一卷
 忠孝錄 二卷
 農政教篇 四卷
 文書 二十文
 完文 一文



7. 만촌연보(蠻村年譜)



만촌연보
蠻村年譜
21×29 1책 43장

만촌은 조선 영종조(英宗朝) 수충 갈성 결기 효력 분무공신(輸忠 竭誠 決幾 效力 奮武功臣) 충주인(忠州人) 박동형(朴東亨)의 호(號)이다.

만촌은 1695년(肅宗乙亥)에 태어나 1739년(祖己未)에 졸(卒)하기 까지 44년간의 짧은 생애였지만 충효(忠孝)로 일관(一貫)한 실학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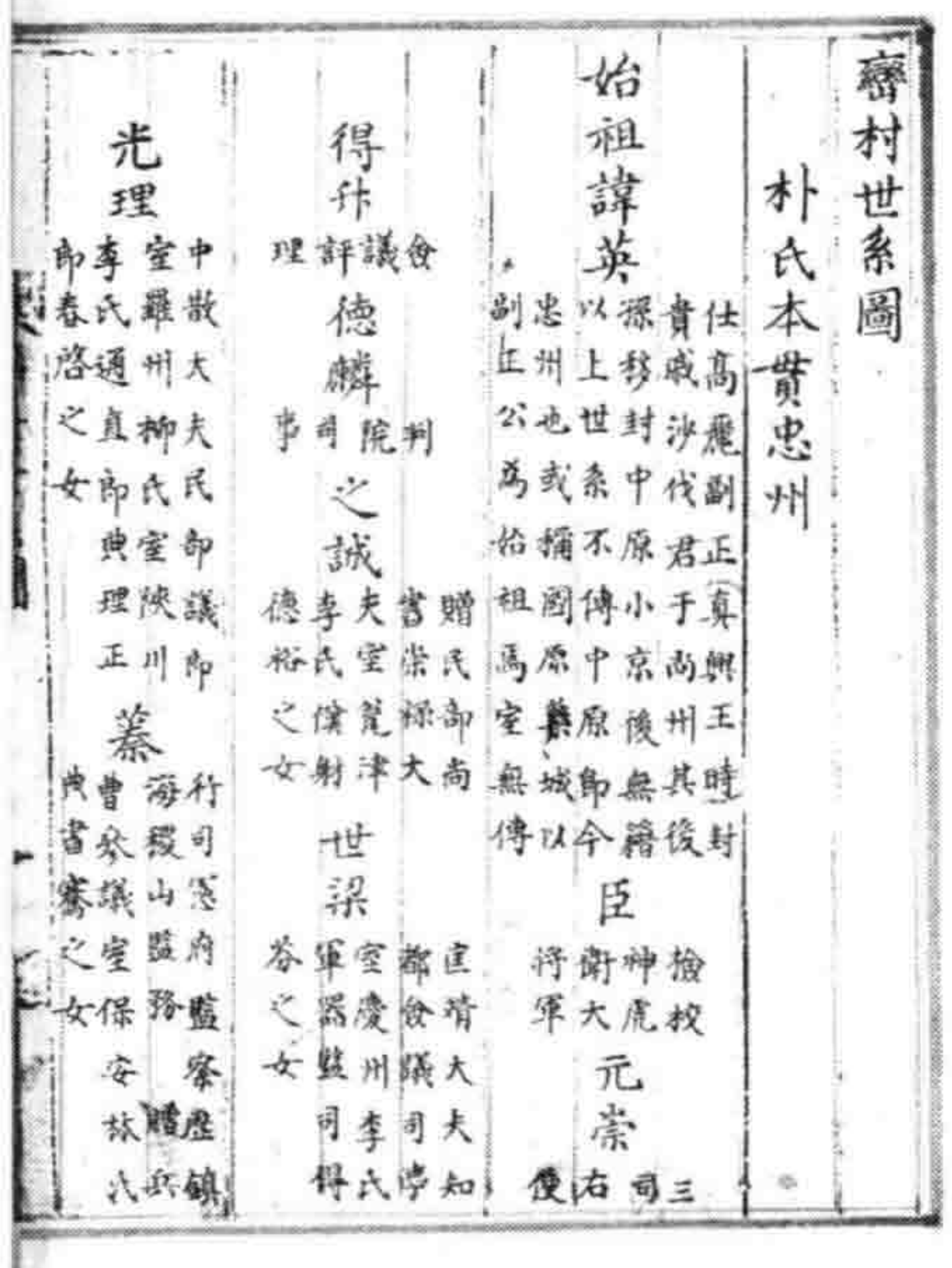
이 책은 그의 아들 대호군(大護軍) 朴完臣이 2권을 손수 써서 고향 장수(長水)로 1권을 보내준 것이다.

만촌은 파은(波隱) 박수기(朴秀基)의 8대 종손(宗孫)으로 공조판서(工曹判書)를 증(贈)하고 충원군(忠原君)을 봉(封)하였으며, 부조묘(不逝廟)를 명(命)하였다. 그리고 선고(先考)는 덕은군(德恩君)에 봉(封)하고 조고(祖考)는 좌승지(左承旨)를 증(贈)하였다.

첫장을 보면,

“숙종대왕 21년 을해(乙亥) 7월 초 3일 신시(申時)에 공이 상주 남면 송영리 집에서 태어났다.” 하고 주(註)에,

齋村行狀
 贈資憲大夫工曹判書兼知義禁府事五衛都
 摠府都摠管行翰忠竭誠揚武功臣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忠原右朴公行狀
 公諱東亨字秀夫號密村系出太原始祖諱英高麗
 副正歷數世入我朝諱慕兵曹參議於公九代祖
 也是生諱忠誠戶曹參判生諱秀基嘉善大夫江原
 道觀察使至公高祖諱命南號蒼崖公廉剛直有性
 理之學曾祖諱擢贈司僕寺正祖諱文昌贈左
 承旨考諱世華文科正即歷五郡贈禮曹判書兼



“공의 선조는 대대로 장수현(長水縣)에서 살았고, 공의 고조(高祖)가 상주(尙州)로 옮겨 살았다고 나와있다. 그리고 잉태할 때 어머니 꿈에,
 “황룡이 대들보를 휘감았더니 태어나 용모가 뛰어났다.”고 씌여 있다.
 끝에는 하산(夏山) 성이홍(成爾鴻)이 지은 행장(行狀)을 붙였다.

8. 옥낭자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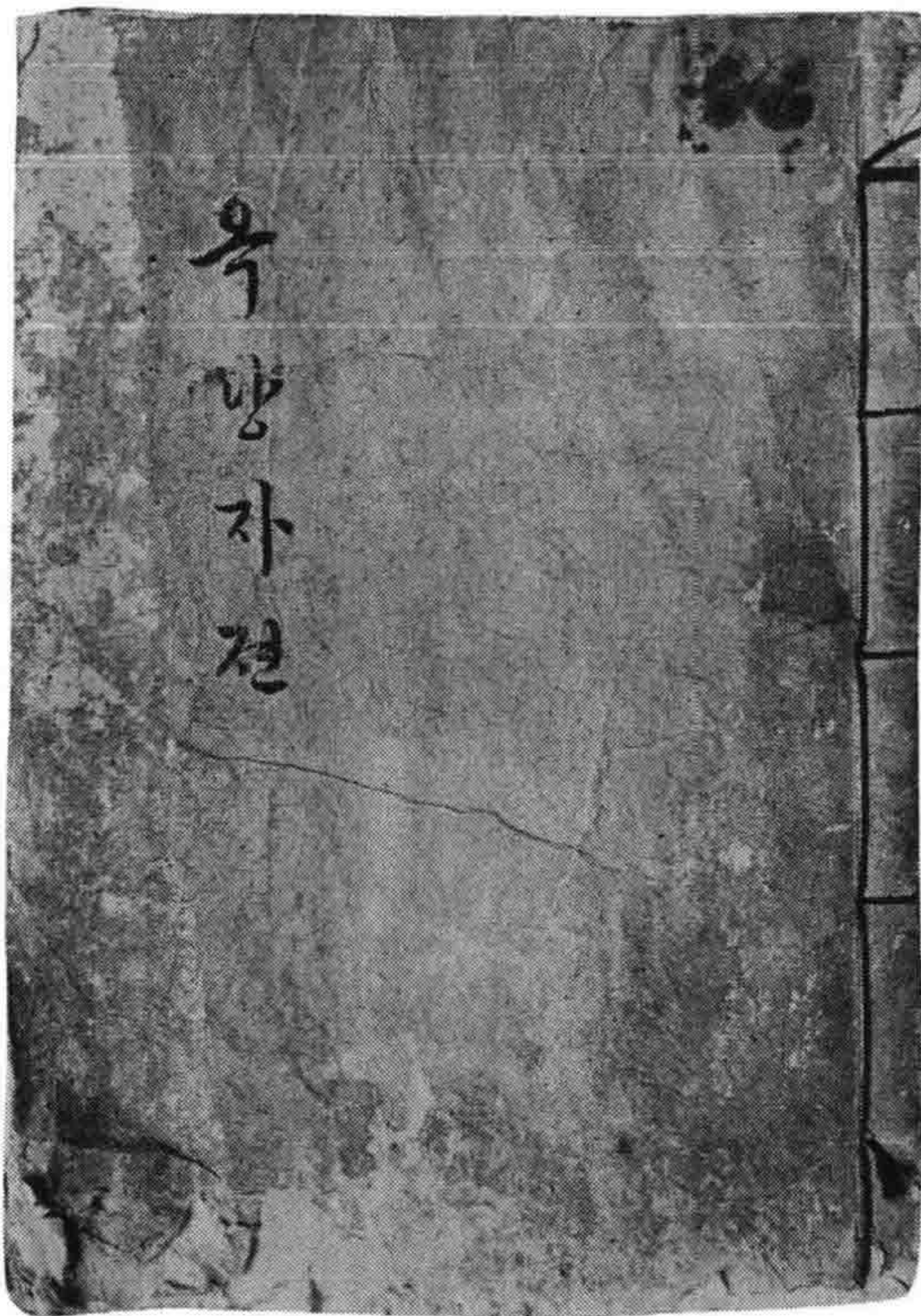
본 옥낭자전을 필사(筆寫)한 이는 충주(忠州) 박수호(朴洙皓)의 처(妻) 문화(文化) 류옥이(柳玉伊)(1916~1983) 여사이다.

사람들은 이 부부(夫婦)의 작품을 일러 쌍옥(雙玉)이라 하였다.

옥낭자전은 작자 연대 미상의 국문소설로 대략 19세기 경에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

함경도 고원땅의 이시업과 영흥의 김옥랑 부부의 혼인의 존엄성과 희생적 인간애를 주제로 한公安소설(公安小說)로 풍속교화 측면이 강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단, 이 책의 무대는 경상도인 것으로 보아 여러 지방에서 비슷한 소설이 나와 풍속을 바꾸고자 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옥낭자전

14×22.2 1책 27장

옥낭자전 필사본
문화 류옥이

경상도 고원땅의 이시업과 영흥의 김옥랑 부부의 혼인의 존엄성과 희생적 인간애를 주제로 한公安소설(公安小說)로 풍속교화 측면이 강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단, 이 책의 무대는 경상도인 것으로 보아 여러 지방에서 비슷한 소설이 나와 풍속을 바꾸고자 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9. 요전경독사숙강록(堯田耕讀私塾講錄) 2권

1930년 경오(庚午)에 화계(華溪) 박상석(朴尙錫)의 주간(主幹)으로 동민(洞民)과 인근 유지들이 합심창건(合心創建)한 요전경독사숙에서 삭망강(朔望講)을 기록한 것이다.

경오(庚午)와 신미(辛未) 2년의 기록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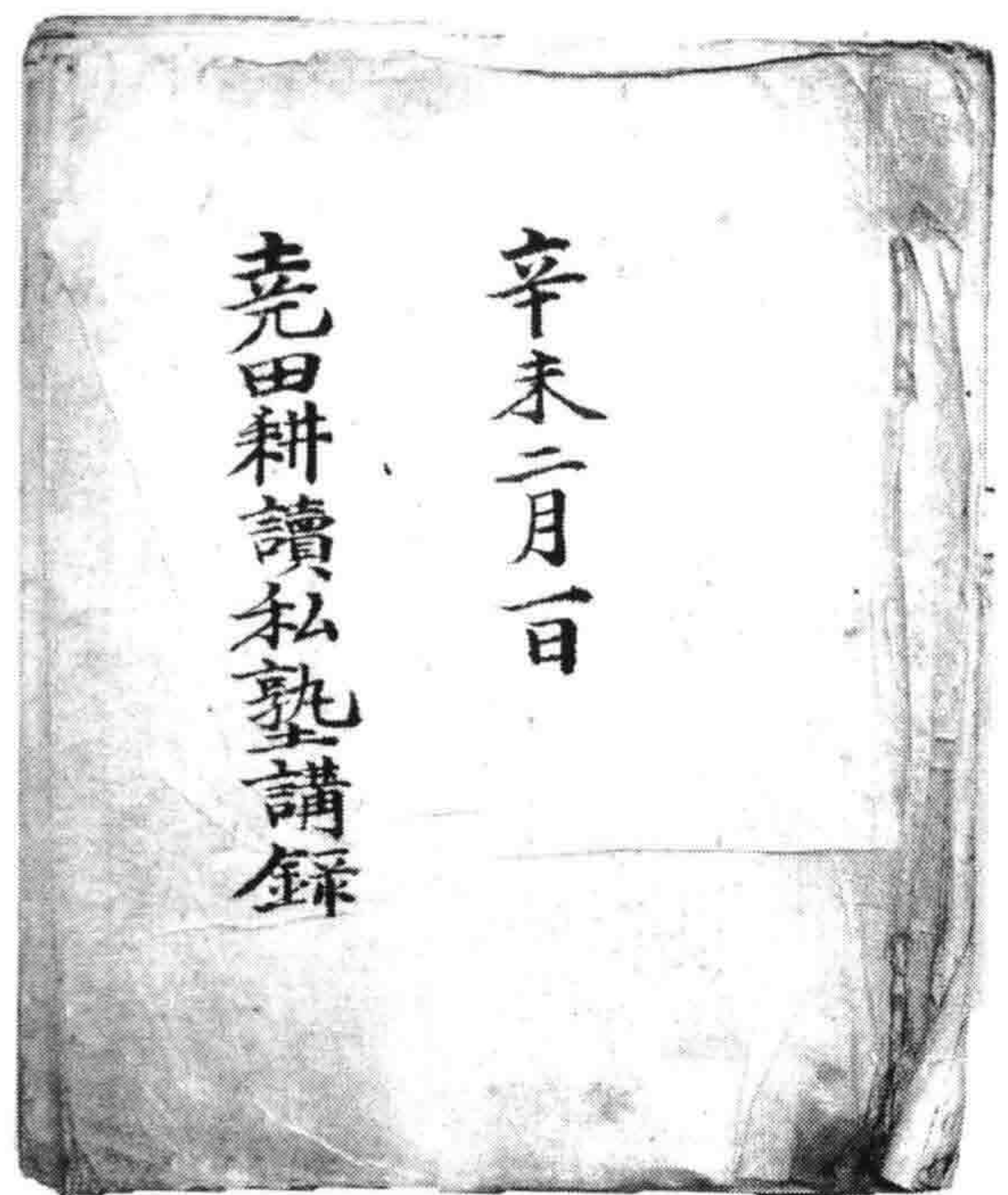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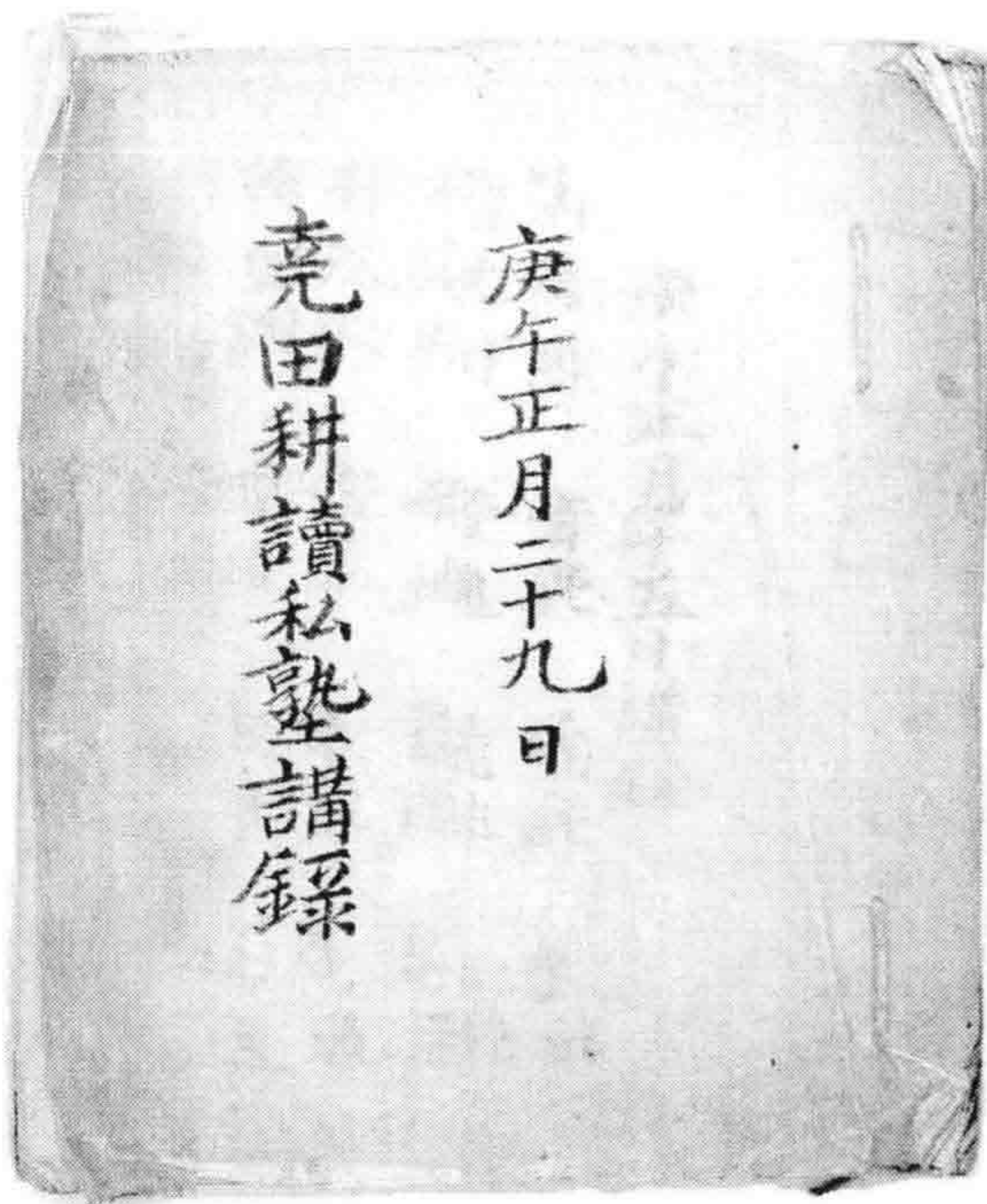
당시는 일제 강점기여서 낮에 펴놓고 국어, 국사, 한문, 윤리 등의 교육을 하기 어려울 뿐 더러 낮에는 농사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야간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다.

강록을 보면 성명(姓名) 밑에 음(音)과 의(義)와 자(字)가 있는데, 음은 보름동안 배운 것을 외우는 것이고 '의'는 뜻을 이름이고 '자'는 글자를 써 보는 것이다.

이것을 순통약조불(純通藥組不)로 채점하는데 요즘의 '수우미양가'와 비슷한 것이다.

화계(1894~1974)는 존화양이(尊華攘夷)의 정신으로 가혹한 일정(日政)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교육을 통하여 국혼(國魂)을 지키려 하였다. 요전리에 와서 1년만 머슴살이를 해도 축문(祝文)을 쓸 수 있도록 하였고, 광복(光復) 후에도 성인교육을 철저히 시켜 전국 수석을 하였다. 남녀노소 모두 만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경독사숙은 그의 아들 박수섭이 이어오고 있다.



요전경독사숙강록 堯田耕讀私塾講錄 1, 2

21x20 1책 24장

庚午正月十五日講錄

朴洙烈	韓共淵	宋濟篤	韓昌淵	朴宅根	朴洙皓	韓琮淵	李重範	韓彩淵
音純	音通	音通	音通	音通	音通	音通	音通	音通
義純	義通	義通	義通	義通	義通	義通	義通	義通
字純	字通	字通	字通	字通	字通	字通	字通	字通

辛未二月一日講

朴洙烈	朴重根	李敬五	裴奉根	李幸範	朴靈出	康甲年	韓昌淵	韓琮淵
音通	音通	音通	音通	音通	音通	音通	音通	音通
義通	義通	義通	義通	義通	義通	義通	義通	義通
字純	字純	字通	字通	字通	字純	字純	字通	字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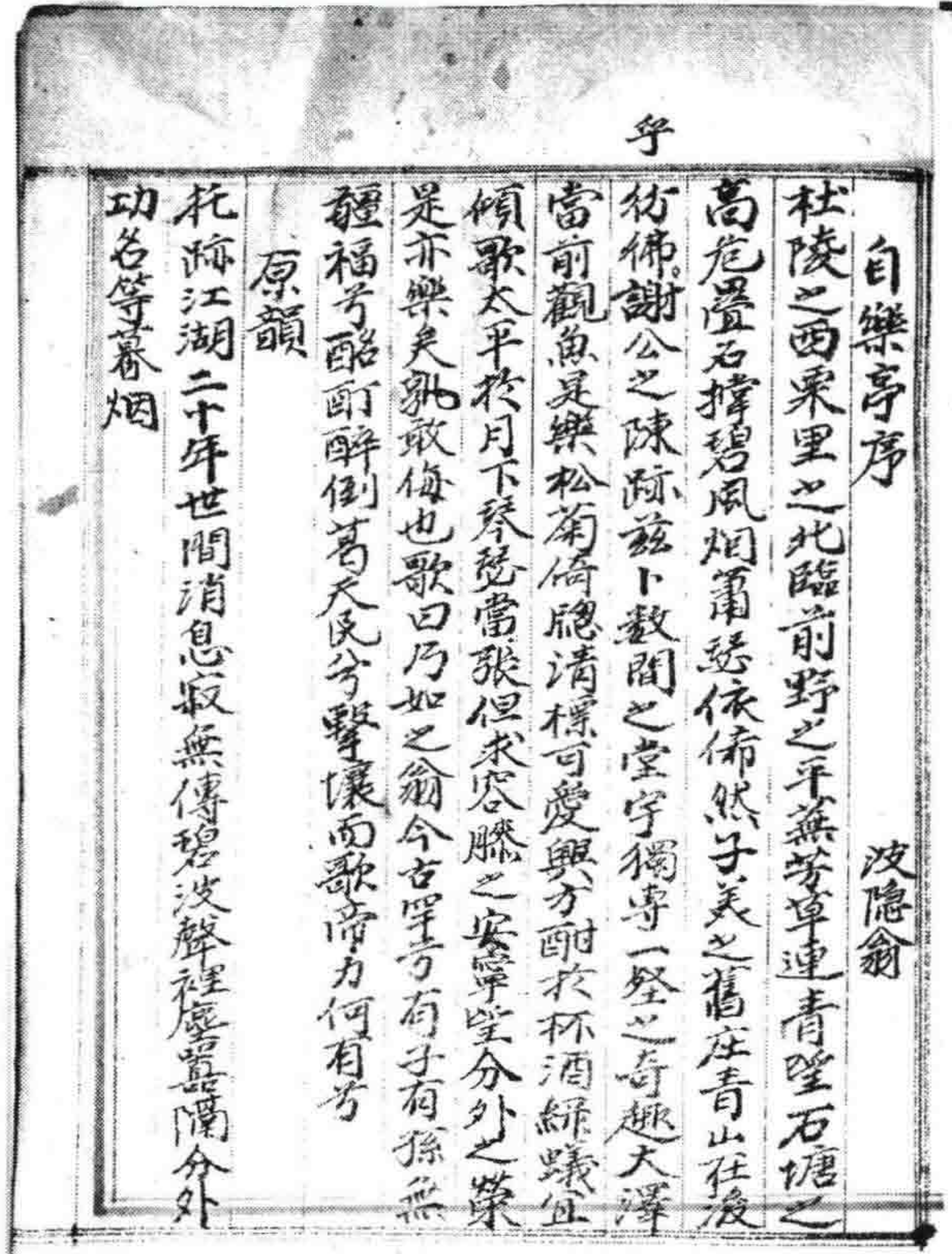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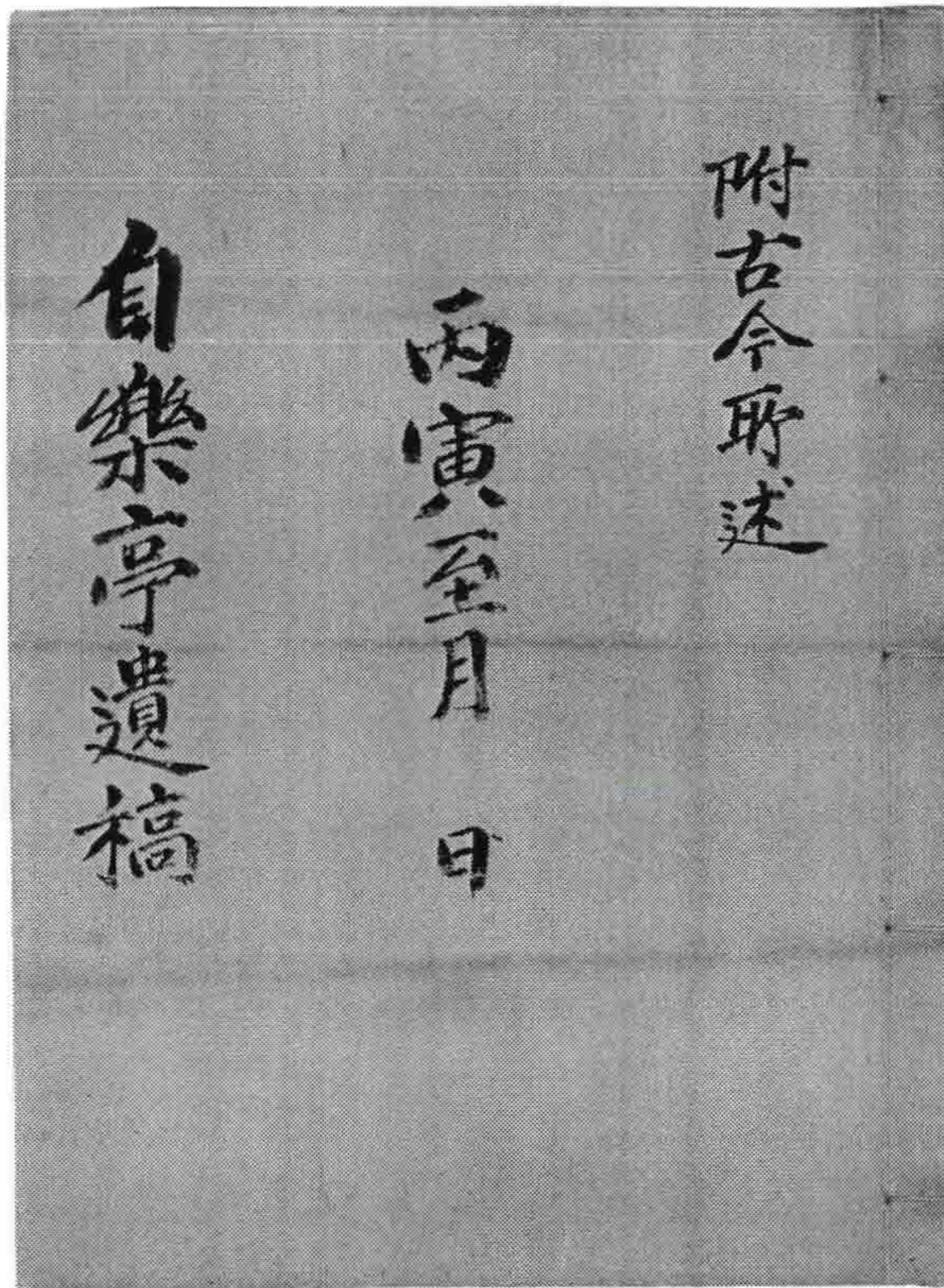


10. 자락정유고(自樂亭遺稿)

1926년(丙寅) 11월에 화계 박상석이 그의 12대조인 파은(波隱) 박수기(朴秀其)의 자락정서(自樂亭序)와 원운(原韻), 족부족시(足不足詩)를 수록하고古今소술(古今所述)을 붙여 한 책으로 하였다.

사암(思菴) 박순(朴淳)의 기(記)와 차운(次韻), 풍산(豊山) 류심춘(柳尋春)의 기와 차운, 지현(知縣) 류후조(柳厚祚)의 기와 차운이 순서대로 실려있다.

다음에 1828년(純祖戊子) 여름에 본읍(本邑)에서 순제(旬題=제목을 내어 10일 만에 채점하는 것) 자락정유허기(自樂亭遺墟記)로 향시(鄉試)를 보였는데 이중 2하(二下) 정옥현(丁玉鉉), 2하(二下)오익신(吳翊臣), 3상(三上) 이삼묵(李三默) 3편이 남아있어 실었고, 끝으로 안동(安東) 권순명(權純命)의 중건기(重建記)를 실었다.



자락정유고 自樂亭遺稿
22.2×28.2 1책 15장

築自樂亭咏不足

波隱翁

世間知不足幾人舉世紛々不知足君子之足長自足小人之足長不足不足之足何以足足又足矣帝不足高樓傑閣粉牆裡安居靜意猶不足黃金珠玉庫有餘用之猶云患不足金鞍駿馬珊瑚鞭大道橫馳著不足車馬僕從教如雷使令於前亦不足冬衣豹鼠夏綿絡寒暑置衣履不足大官名宦位蓋高富貴盈門恐不足肉如丘兮酒如河厚味嚼肥愁不足燕姬越女顏如玉嬌語月態娛不足繁華到處笙歌咽家興湏々衰不足不足不足者何時足不厭之足難充足顏回陋巷一簞瓢志在好學樂且足曾子甕牖衣以褐安貧樂道亦云足子路緼袍陋巷給五月被裘自謂足鴉衣百結卜子夏老而固窮安分足乎委把釣嚴子陵晦跡桐灘肆

自樂亭遺墟記 二下。純祖戊子夏本邑自題

竹樓朽矣而元之之遺名不朽蘭亭已矣而羲之之令名不已則古君子遺風餘韻可見於嘯咏棲息之所矣余過碧溪之東溪山秀麗林石清絕地隔湖嶺之間山控茂長之境於是立馬徘徊南望栗里東瞻杜陵庶幾有隱君子肥遯之地遂尋微路緣溪而行有一小墩巋然獨存而奇巖如梁碧波繁澗余乃攝衣而上彷徨若不能去有樂而忘歸底意思顧瞻前後周視上下則基址完如遺礎尚存意欲開其蹟不可得適有老翁荷杖而過其下余揖而問之曰此墟清勝未知何許高士者盤之遺址耶是翁听然而笑曰子未聞否故江西觀察使朴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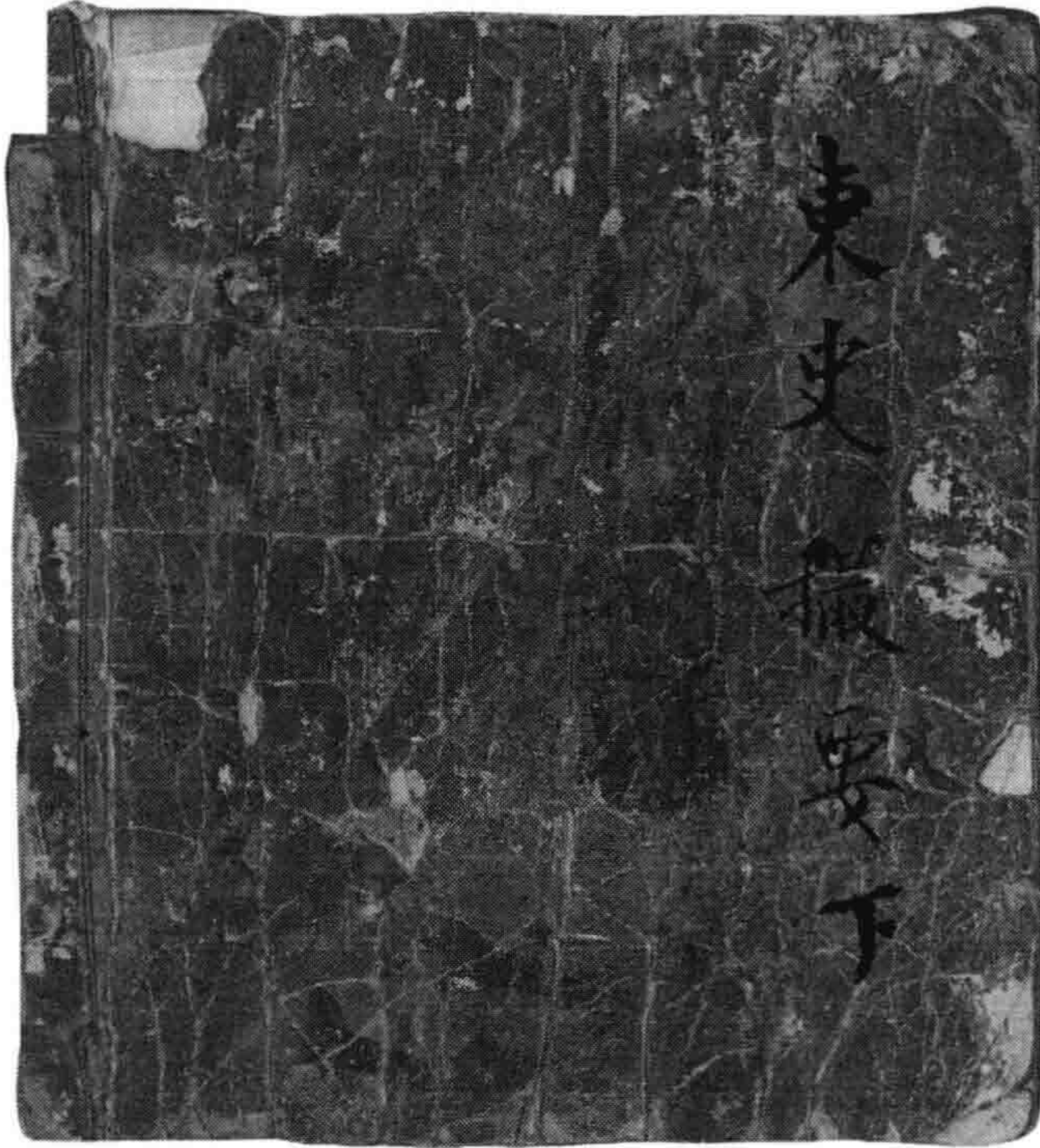
志足情隨野服陶淵明葛巾漉酒道遠足羅浮洞隱葛稚川不貴八珍藜藿足足與不足皆如此不足難足足者足年五十能知足人謂不足我云足長溪窮谷有故廬高枕安卧閑事足鑿井和生計樂流水雲林幽趣足開戶閑居全性命滿壁圖書玩理足靜中觀物得天真老後讀書知樂足醉倒久斷塵間夢詠詩長留閑中足春去春來任徜徉清風明月幽興足我足既足何不足且足分江波之亭兮我獨樂兮乾坤謂我分爾足何求於人何侍於外哉

自樂亭記

余觀夫湖南山水之美此縣最名由縣而言曰德裕山曰碧溪水其尤也必君自得其仁智之樂者如有其人則亦可逍遙於此乎



11. 동사촬요 하(東史撮要 下)



동사촬요 하 東史撮要 下
20.4×22.5 1책 48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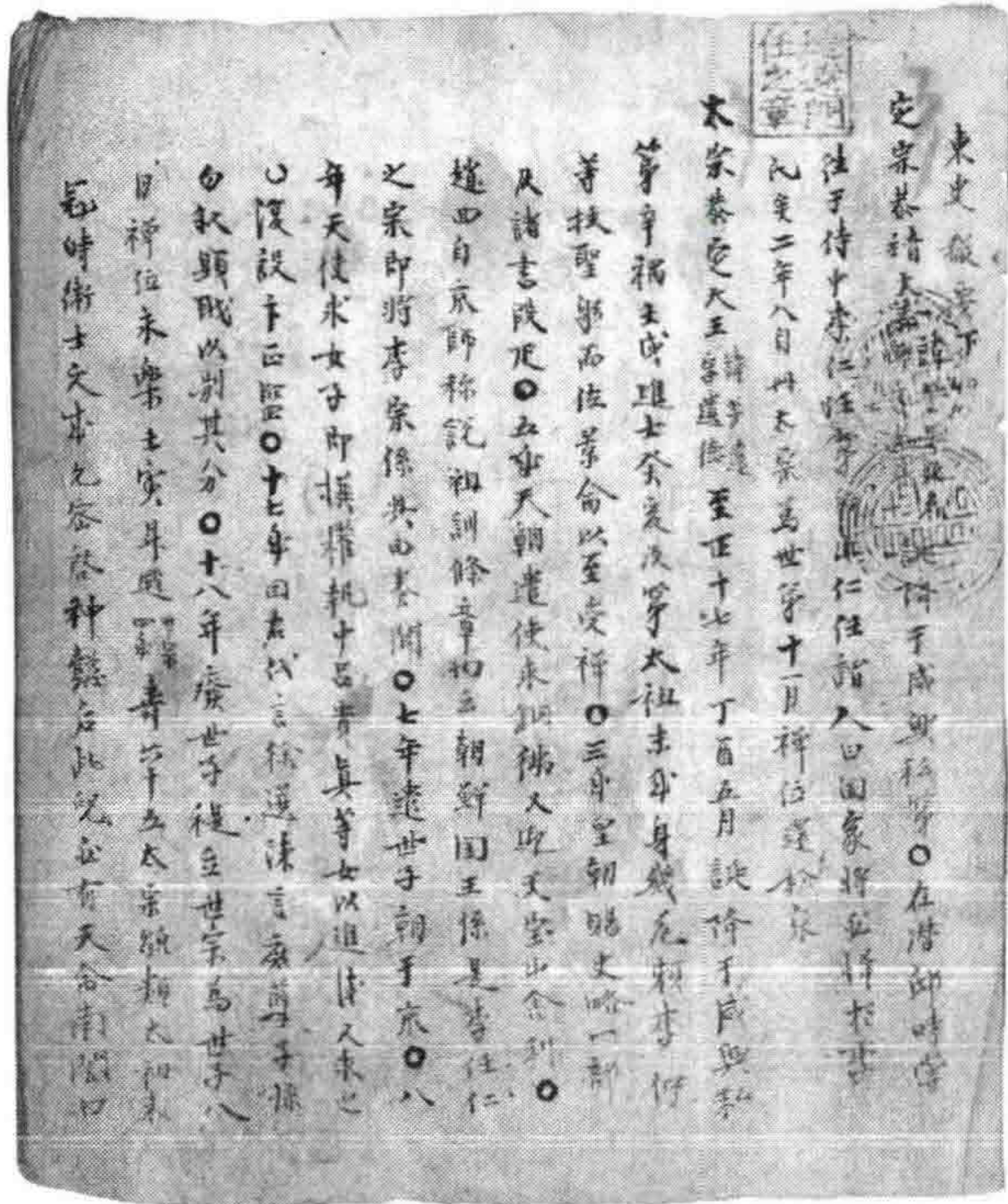
황서(黃鼠=戊子) 청룡(靑龍=甲辰) 백마일(白馬日=庚午日) 조양재(朝陽齋) 간필(看畢)이라 쓴 것을 보면 동사를 쓴 이가 누구인지 모르나 조양재 주인이 감수를 해 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상권(上卷)이 따로 있었는지 또는 상중(上中)2권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다.

또 말미(末尾)에는 동사촬요 하 종(東史撮要 下 終)이라 쓰고, 적서(赤鼠=丙子) 계하(季夏=6월), 획린(獲麟) 아무 서(書)라 한 것으로 보아 획린이 써서 13년 만에 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정종공정대왕 말(定宗恭靖大王 末)부터 시작하여 숙종현의대왕(肅宗顯義大王)까지의 역사서로 21cm×21cm 한지 48 장으로 되어 있다.

앞 속 가의(加衣)에는 “국가지흥폐존망(國家之興廢存亡)이 재어인륜지명불명(在於人倫之明不明) 하니 가불심신여(可不審愼歟)야”하고 우포(又圃)라 호를 썼다. 이는 ‘국가의 흥폐존망이 인륜의 밝고 밝지 못한 데에 있으니 살피 조심하지 않으랴!’ 하는 우포의 글씨이다.

또 뒷 가의 안쪽에는 “동방(東邦)은 예의 최성재(禮義 最盛哉)인지 문물소명 요당(文物昭明堯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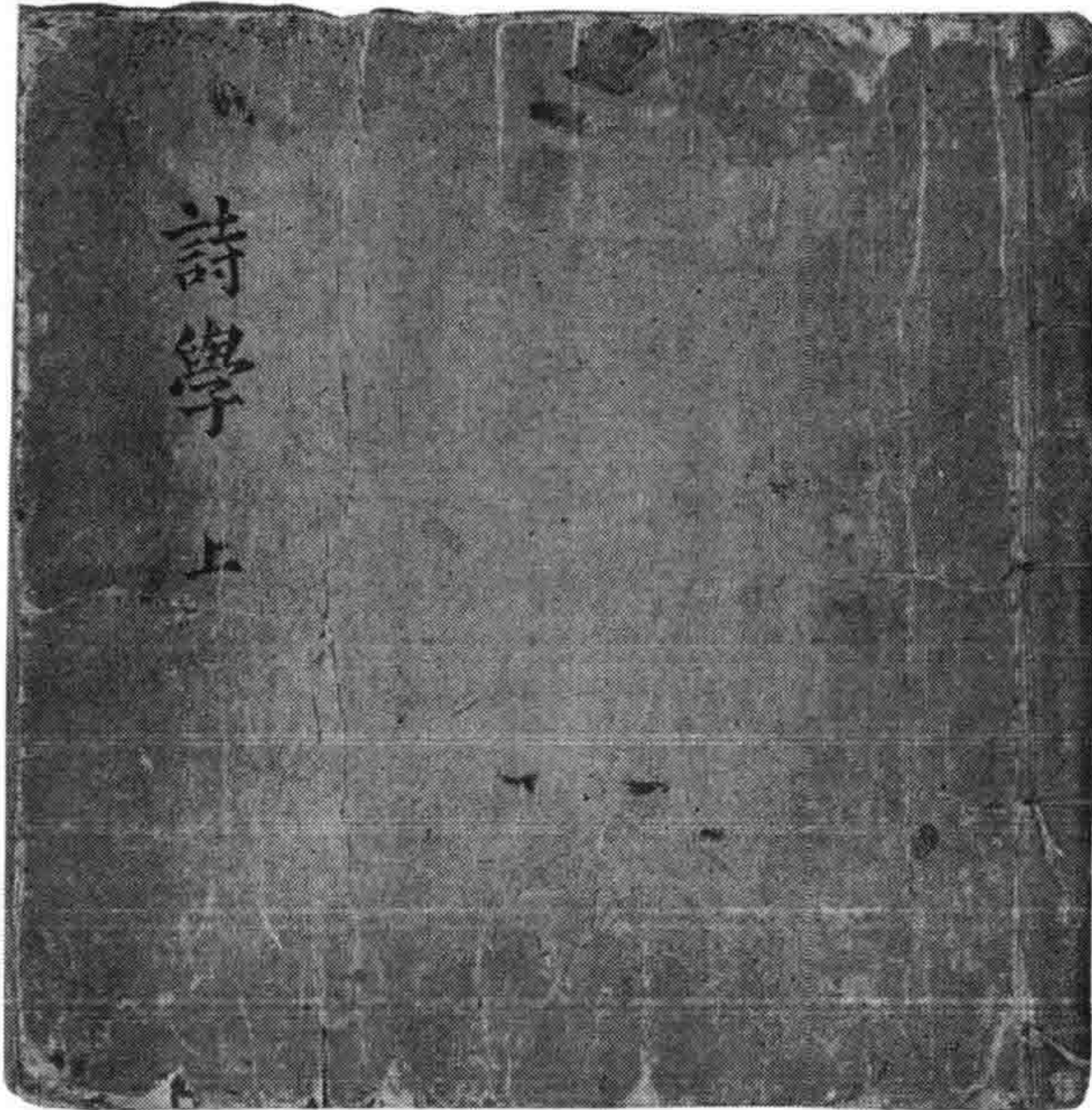


이라 썼는데 이는 “우리나라는 예의가 가장 성하다. 분물이 밝은 요(堯) 임금의 당(唐)나라이다.”라는 뜻이다.

이 책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간략히 기술했는데 사실에 입각하여 그대로 썼다고 볼 수 있다. 선조 소경대왕(宣祖 昭敬大王)조에 보면 경인(庚寅? 1590)년 봄 2월에 황윤길(黃允吉)을 통신사(通信使)로 삼아 일본에 보낸 일이 있다.

만 1년 만인 신묘(辛卯·1591)년 봄 2월에 황윤길, 김성일(金誠一) 등이 돌아와 탑전(榻前)에 대좌(對坐)하였다. 왕이 적정(賊情)을 묻자 성일이 아무 염려없다고 하였다. 성일이 물러가자 일행(一行)이 적상(賊狀)을 전파(傳播)하니 조야(朝野)가 흥흥하여 두려워하였다.

12. 시학 상·하(詩學上·下)



시학 상 詩學上
23×23.2 상 90장

시(詩) 공부를 하는 이는 이 책 2권을 열람할 필요가 있다. 천지(天地)를 시작으로 시를 지을 수 있는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것으로 보인다.

매 제목마다 서사(徐事), 사실(事實), 품제(品題), 대의(大意)를 써서 작시(作詩)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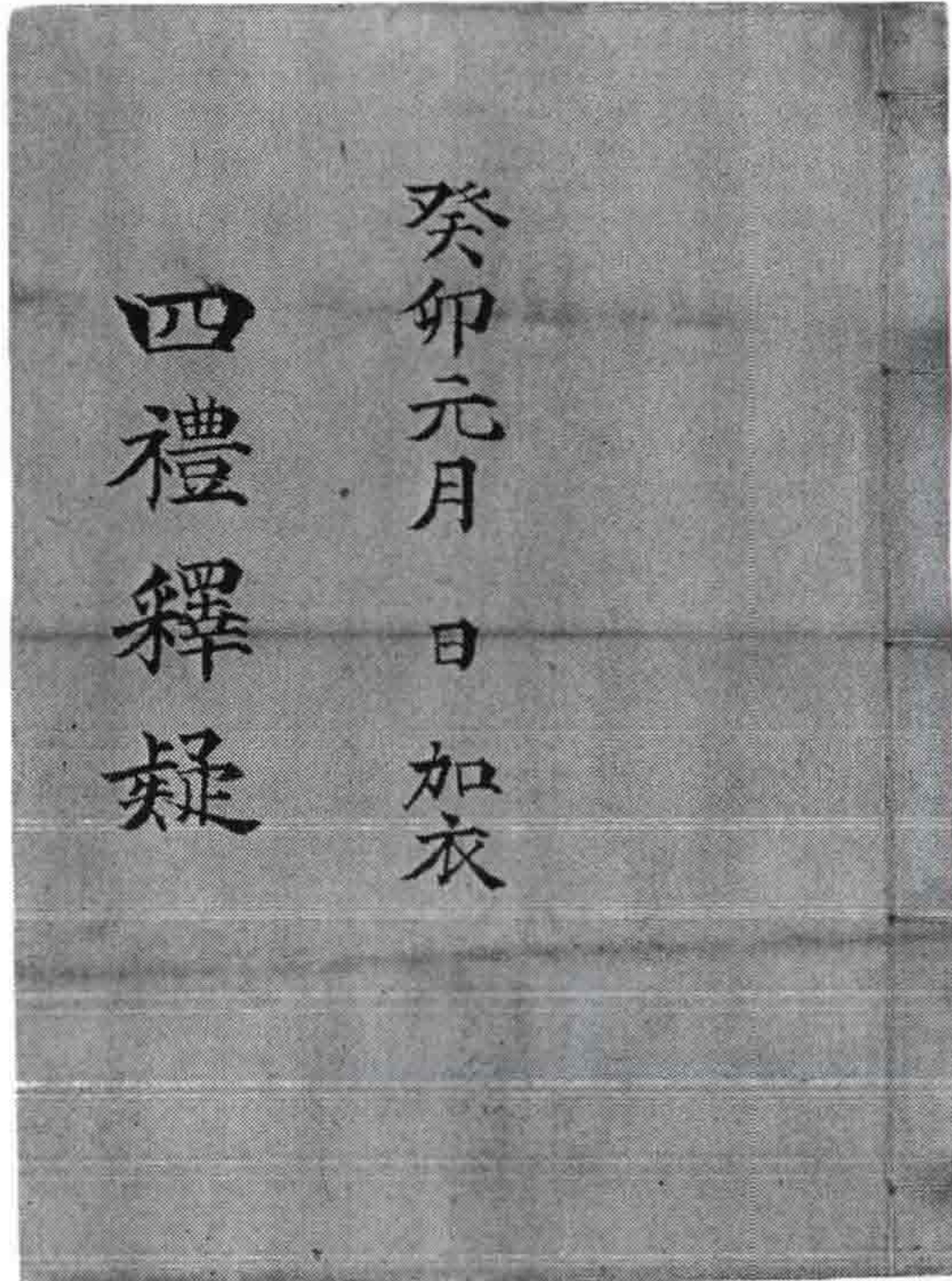
경자(庚子)년에 쓴 것으로 보이는 책으로 누구의 솜씨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시종여일(始終如一) 한 획도 방필(放筆)하지 않고 타점(打點)해 가면서 정성을 쏟은 고인(古人)의 독공(篤工)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하권 말미에는 신축(辛丑)이라 써어 있다.



시학 하 詩學 下
23×23.2 하 81장



13. 사례석의 (四禮釋疑)



사례석의 四禮釋疑
23×30 1책 73장

사례석의는 관혼상제(冠婚喪祭) 사례(四禮)에서 의심(疑心)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례를 분답식으로 기술한 것이다.

화계(華溪) 박상석(朴尙錫)이 아들들에게 쓰면서 익히게 하기 위하여 책을 펴놓고 들며나며 필사(筆寫)하게 하니 1963년(癸卯)의 일이었다. 뒤에는 영지(影紙)가 보인다.

冠禮	童子備器	師友服	合奠	禱祭	納後	奠祭
冠禮一	童子備器	師友服	合奠	禱祭	納後	奠祭
冠禮二	童子備器	師友服	合奠	禱祭	納後	奠祭
冠禮三	童子備器	師友服	合奠	禱祭	納後	奠祭
冠禮四	童子備器	師友服	合奠	禱祭	納後	奠祭
冠禮五	童子備器	師友服	合奠	禱祭	納後	奠祭
冠禮六	童子備器	師友服	合奠	禱祭	納後	奠祭
冠禮七	童子備器	師友服	合奠	禱祭	納後	奠祭
冠禮八	童子備器	師友服	合奠	禱祭	納後	奠祭
冠禮九	童子備器	師友服	合奠	禱祭	納後	奠祭
冠禮十	童子備器	師友服	合奠	禱祭	納後	奠祭
冠禮十一	童子備器	師友服	合奠	禱祭	納後	奠祭
冠禮十二	童子備器	師友服	合奠	禱祭	納後	奠祭
冠禮十三	童子備器	師友服	合奠	禱祭	納後	奠祭
冠禮十四	童子備器	師友服	合奠	禱祭	納後	奠祭
冠禮十五	童子備器	師友服	合奠	禱祭	納後	奠祭
冠禮十六	童子備器	師友服	合奠	禱祭	納後	奠祭
冠禮十七	童子備器	師友服	合奠	禱祭	納後	奠祭
冠禮十八	童子備器	師友服	合奠	禱祭	納後	奠祭
冠禮十九	童子備器	師友服	合奠	禱祭	納後	奠祭
冠禮二十	童子備器	師友服	合奠	禱祭	納後	奠祭

冠禮

問冠禮三加既未能純用吉禮則當用何冠服耶沙溪曰無幅巾則以程冠為初加笠子為再加儒巾為三加未知何如

問將冠而遇喪則如何沙溪曰禮記曾子問曰將冠子冠者聞齊衰大功之喪如之何孔子曰內喪則廢外喪則冠而不醴即位而哭如冠者未至則廢冠者賓與贊禮之人也若是大門內之喪則廢而不行喪在他處則可以加使三加而止不醴之乃即位而哭又禮曰將冠子而未及期日而有齊衰大功之喪則因喪服而冠註齊衰以下可因喪服而冠軒衰不可雜記曰以喪冠者雖三年喪可也云云當酌古參今做而行之耳

所由後神主亦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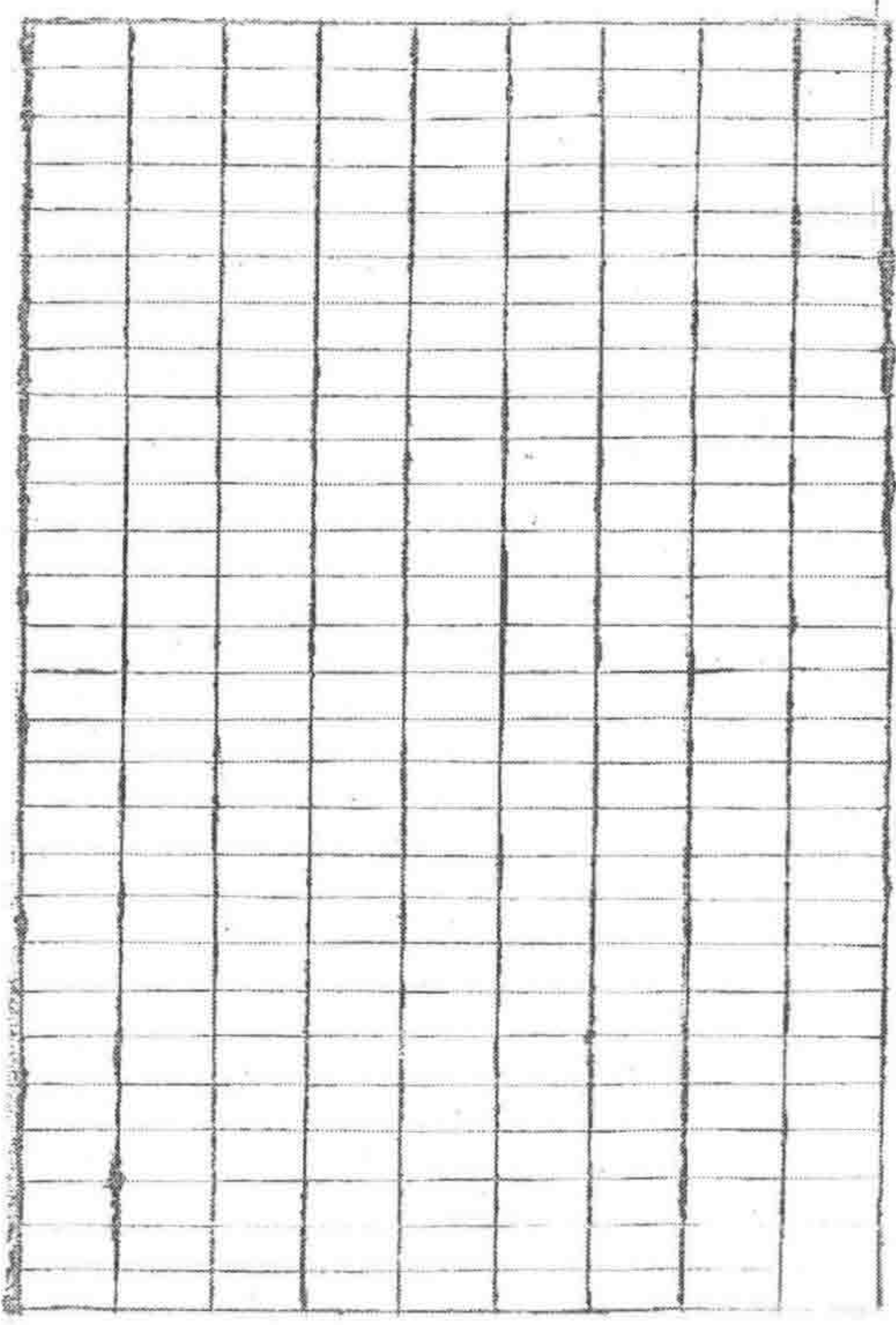
問出緇在於小祥前則當於小祥日緇而大祥日除服耶抑以出後日為制服之始耶荀伯子以為出後晚與於聞喪晚稅服也應以七月為固不當以出後日為制服始此說如何沙溪曰當以出後日為制服之始雖過小祥後緇後亦當更制二十五月之服過中司馬標之云父子之命定於受命之辰加崇之恩起於辭親之日饒令練後出緇被喪雖殺我重自始更制遠日於義何傷云此可為據

問為人後者在所後父喪聞生母喪本喪喪則在途當服何服耶沙溪曰在途只以斬衰服行而至彼行喪服之禮似可蓋重喪遠路喪則當其事

入棺

問世俗必於棺內厚填衣服高出棺上加蓋之際不其木安歟澤堂曰世俗於棺內厚填衣服加蓋之際緇五六寸或令教十人登踏或扶木智引而後方得合蓋此必有前摧腸陷之患矣貧家衣服多者錦絮雖不妨一二寸厚厭貴家則衣服單挾錦段豈以厚厭而分寸減殺也其意本欲行喪防翻尸乃歸於毀尸之慘俗習之謬至此可痛

問冬月死者以槨果棺然後可免屍凍之患否澤堂曰冬月死者俗制必以厚槨果棺然後細切葦草埋棺以丘以防尸凍也余嘗疑其不然不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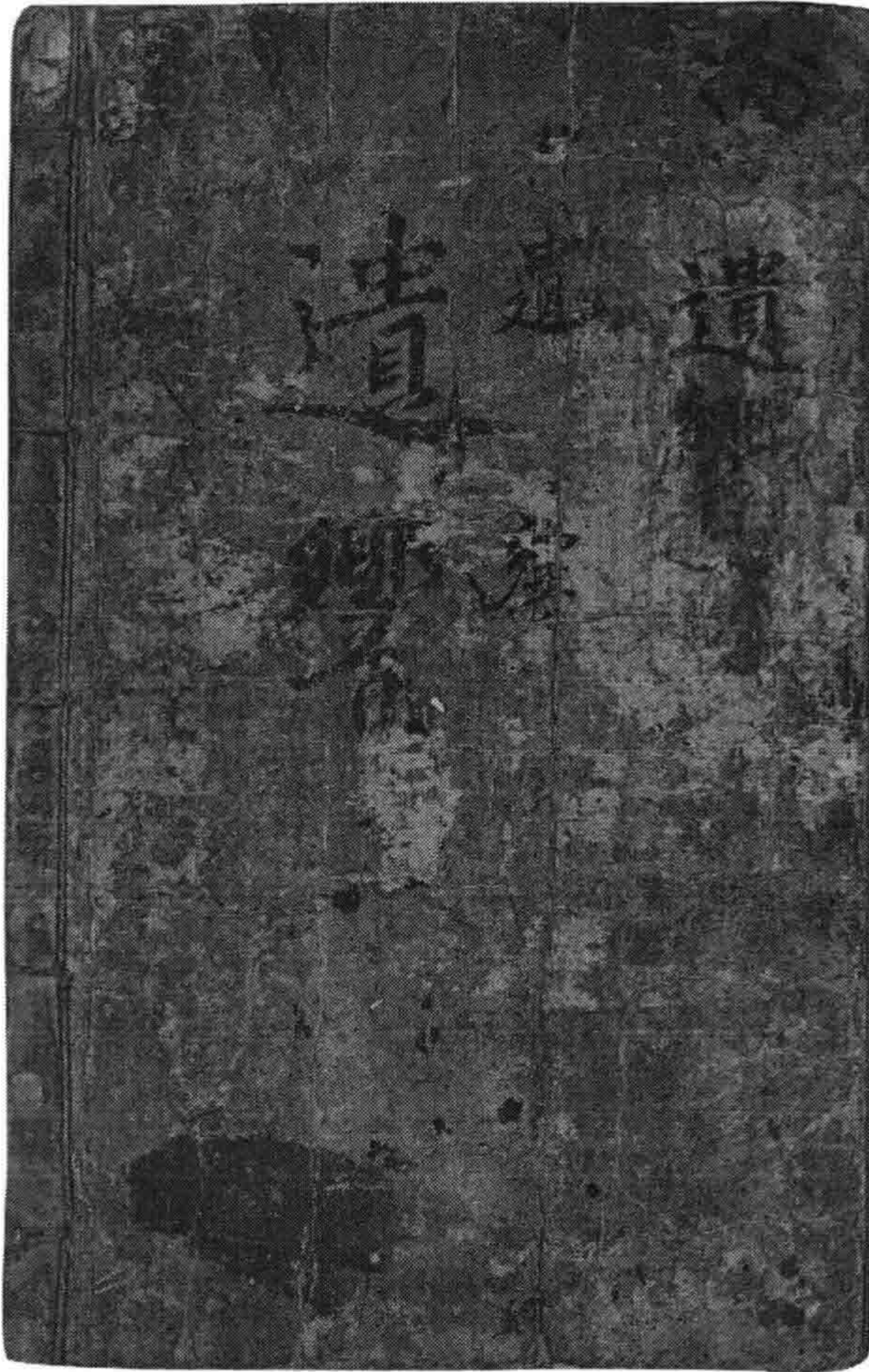


室者皆服本服而不當降也惟卑以下不敢麻則否沙溪曰凡服相報長子於童子已遞減其服則童子於長子亦遞減以報似當

問禮相父母喪女雖適人不降以此推之於祖父母亦當不降也其在兄弟諸父之喪則隨其年遞減月教恐為得之未知如何愚伏曰遞減月教之亦恐不當有知則有哀小則有服何以已之年少減月教耶沙溪曰祖父母曾祖父母依女雖適人不降之義童子似亦不降也

問童子未冠者世俗例加首經可乎愚伏曰童子首經禮無所據不版首經可也寒暄曰禮有童子不杖之文而無不經之文沙溪曰經首家繼中之項也童子未冠何結項之有乎或以為婦人雖未冠有經童子亦當有經然婦之經固有明文童子之經不見諸書恐不當經也

14. 유향(遺響)



유향(遺響)
15×24 1책 85장

중에서도 주로 동파(東坡) 소식(蘇軾)의 시풍(詩風)을 따라왔는데, 사암(思菴) 박순(朴淳)이 당시(唐詩)의 우월함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시풍의 전환점이 된 바, 그 대표적 작가로 손곡(孫谷) 이달(李達), 고죽(孤竹) 최경창(崔慶昌), 기봉(崎峯) 백광홍(白光弘)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세칭(世稱) 삼당시인(三唐詩人)이다.

이 책의 특징으로는 주(註)를 달고, 그 밑에 다시 국한문 혼용 해설이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책 위에 “전라 명필 김아무개가 자월에 쓰기 시작하여 축년에 마쳤다.(全羅名筆金某書始子月終於丑年)”고 쓰고, 밑에 아무개의 책(冊)이라고 썼다가 다시 이름을 지워버렸다.

유향은 당음(唐音)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원(元)의 양사굉(梁士宏)이 당시(唐詩)를 시기별로 구분, 편찬한 것으로 시음(始音) 1권은 왕발(王勃), 양형(梁炯), 노조뉴(盧照紐), 낙빈왕(駱賓王) 등의 작품이고, 정음(正音) 6권은 성당(盛唐), 중당(中唐), 만당(晩唐) 시인(詩人)의 작품이고, 유향 7권은 여러 대가시(大家詩)에 여인(女人)들과 승려(僧侶)의 시까지 합한 것으로 시의 발체가 구차스럽지 않아 많은 호평을 받았다.

당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연대는 미상이나 1505년(燕山 11년) 5월에 교서관(校書館)에 명하여 당음을 간행하게 한 기록으로 보아 오래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소화하기 어렵다 하여 오언절구(五言絶句)만을 뽑아 가르치기를 많이 하였다.

우리나라 시의 사조(思潮)는 송시(宋詩)

君不見門前柳
 榮輝幾時蕭索久
 又不見陌上花
 狂風吹去落誰家
 隣家思婦見之歎
 蓬頭不梳心歷亂
 盛年夫婿長別離
 歲暮相逢色凋瘦

賀蘭道明
 行路難者賢士遇君之路難也遇君之難有似乎行人久別
 其大而難焉故以婦人之悲思為比而錄數之下皆做此

喻人之易老
 君門前柳已不見乎
 榮輝以何如蕭索喜何如悲
 五下

與上句同意上下句為對謂之
 樓扇格言誰家將言下隣家
 但陌上花是更引外則七下
 狂風吹去言時難家則落
 五下

隣家思婦見之歎
 既不畏老而思夫之心尤功蓋夫
 遇其夫容色化老故也詩曰首
 如飛蓬

少時夫別其夫晚時雖相見而色
 已凋則惟心不棄奈何則君子者
 後難遇若精力衰亦難行道

歲暮相逢色凋瘦
 歲暮外夫婿長別離也
 歲暮老則相逢色凋瘦也
 凋瘦之詞更下

入 全羅右軍公 恭 古 始 子 月 終 於 廿 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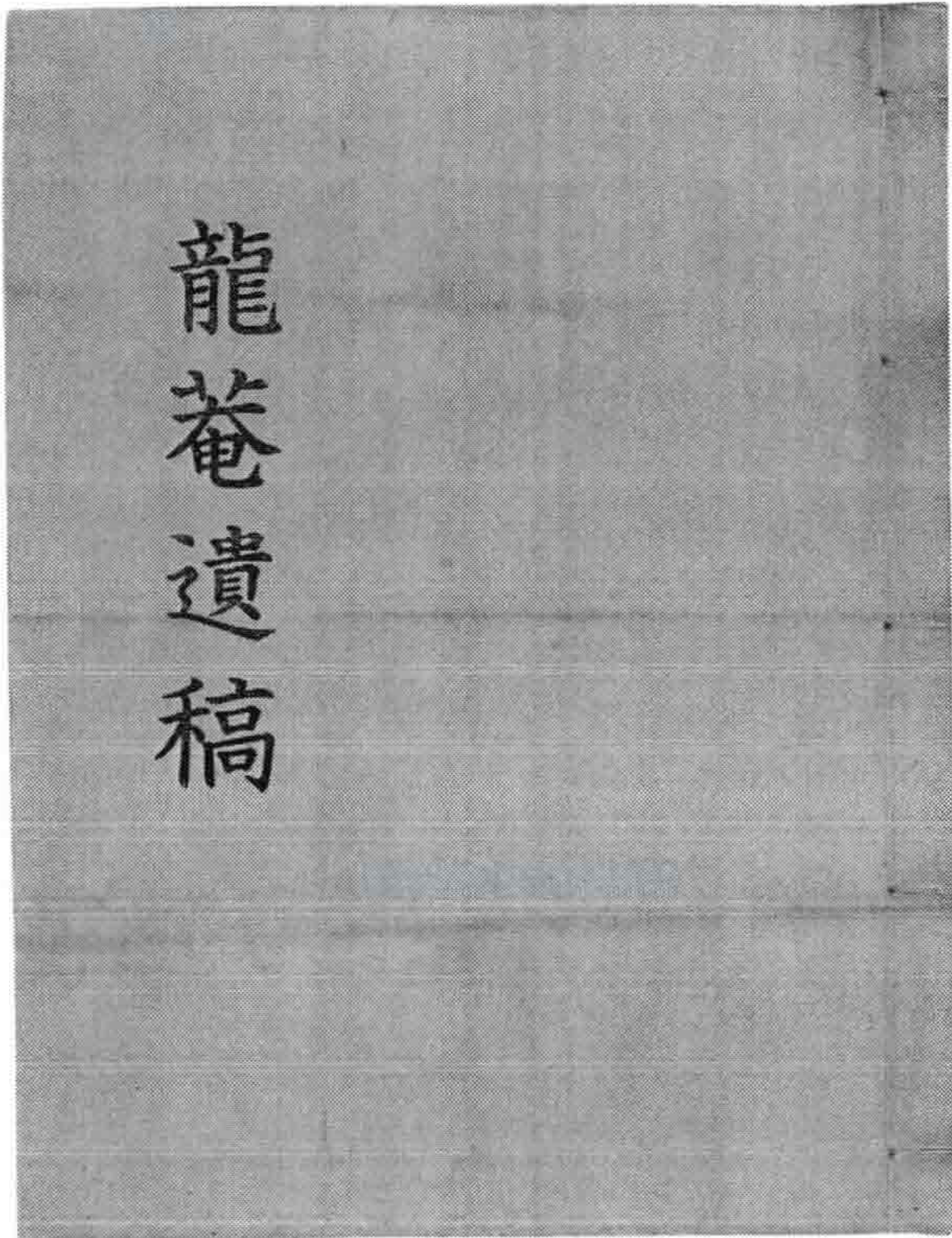
傳之無窮 二世 三世 四世 五世 六世 七世 八世 九世 十世 十一世 十二世 十三世 十四世 十五世 十六世 十七世 十八世 十九世 二十世 二十一世 二十二世 二十三世 二十四世 二十五世 二十六世 二十七世 二十八世 二十九世 三十世 三十一世 三十二世 三十三世 三十四世 三十五世 三十六世 三十七世 三十八世 三十九世 四十世 四十一世 四十二世 四十三世 四十四世 四十五世 四十六世 四十七世 四十八世 四十九世 五十世 五十一世 五十二世 五十三世 五十四世 五十五世 五十六世 五十七世 五十八世 五十九世 六十世 六十一世 六十二世 六十三世 六十四世 六十五世 六十六世 六十七世 六十八世 六十九世 七十世 七十一世 七十二世 七十三世 七十四世 七十五世 七十六世 七十七世 七十八世 七十九世 八十世 八十一世 八十二世 八十三世 八十四世 八十五世 八十六世 八十七世 八十八世 八十九世 九十世 九十一世 九十二世 九十三世 九十四世 九十五世 九十六世 九十七世 九十八世 九十九世 一百世

喜藏辭... 石光... 香... 亂... 真...

다음에 또 “무궁토록 전해가라.(傳之無窮)”이라 써놓고 “이세, 삼세, 사세, 오세, 육세(二世, 三世, 四世, 五世, 六世), 이렇게 써 둔 것을 볼 수 있다.

어찌 되었던 간에 사암 선생께서 좋아하셨던 당시(唐詩)가 명필의 손을 빌어 방손(傍孫)의 세전보물(世傳寶物)이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듯하다.

15. 용암유고(龍菴遺稿)



용암유고 龍菴遺稿
23.5×25 1책 29장

용암유고(龍菴遺稿)는 진사(進士) 이공(李公) 휘(諱) 제현(霽鉉)의 문집이다. 집에 화재(火災)가 나서 어렵게 수집한 책으로 시(詩), 만(輓), 곡(哭), 서(書), 서후(書後), 기(記), 후서(後稔), 사적(事蹟), 전(傳), 제문(祭文), 행록(行錄) 가장(家狀)과 부록(府祿)으로 제문(祭文), 만사(輓詞), 용암기(龍菴記) 등이 있고, 행주(幸州) 기정진(奇正鎭)의 발문(跋文)이 있으며 후에 족후손(族後孫) 도형(道衡)이 서문(序文)을 썼다.

용암은 1764년(英祖甲申)에 광주(光州)에서 태어나 1795(正祖乙卯)에 성균진사(成均進士)에 합격하였으나 출사(出仕)에 뜻이 없고 스스로 임천(林泉)을 즐겨 본군 산서면 마평에 터를 잡고 아우 용강(龍岡) 휘(諱) 구현(久鉉)과 함께 이사하여 자손이 인거(因居)하고 있다.

1824년에 수(壽) 60으로 졸(卒)했는데 노사(蘆沙)는 유고발(遺稿跋)에서 “학식기개(學識氣力)가 우뚝 남사지망(南士之望)이 되었다.”고 극찬하고 있다.

龍菴遺稿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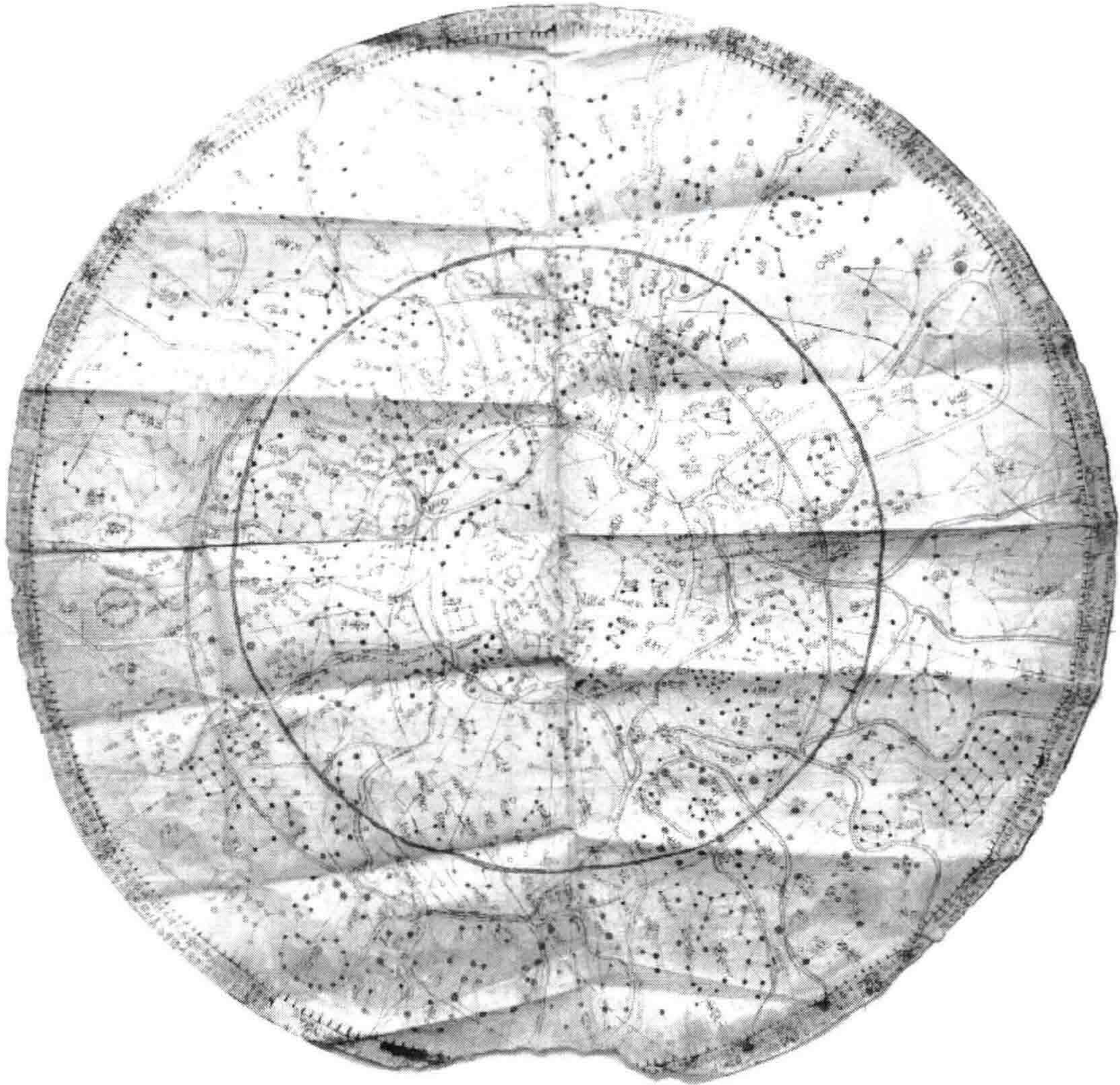
國朝士大夫非科第不能發身故做古為詩文者
絕少過：是習於舉子而達理圓熟者亦鮮其人
故老白首不得志也惟龍菴李公諱霽鉉以舉子
之雄手巨擘早年發解為進士蔚有南服之望焉
稟性剛明而持心仁厚器局俊偉而抱負贍裕處
家庭而盡孝友在宗族而敦愛睦推之鄉黨朋友
而一是敬信為務其一時舉子業則為門戶也既
而見區：奔競從名利其如脫而寓樂溪山以卒
其世於以見耿介拔俗之標瀟灑出塵之想矣後
孫躬耕薄田以為衣食而尚持操勵廉耻鄉黨推
以法家而述先裕後之節又為宗族之模楷皆公
積累之陰也先是家有鬱攸公之稿獨脫反爐亦

跋龍菴遺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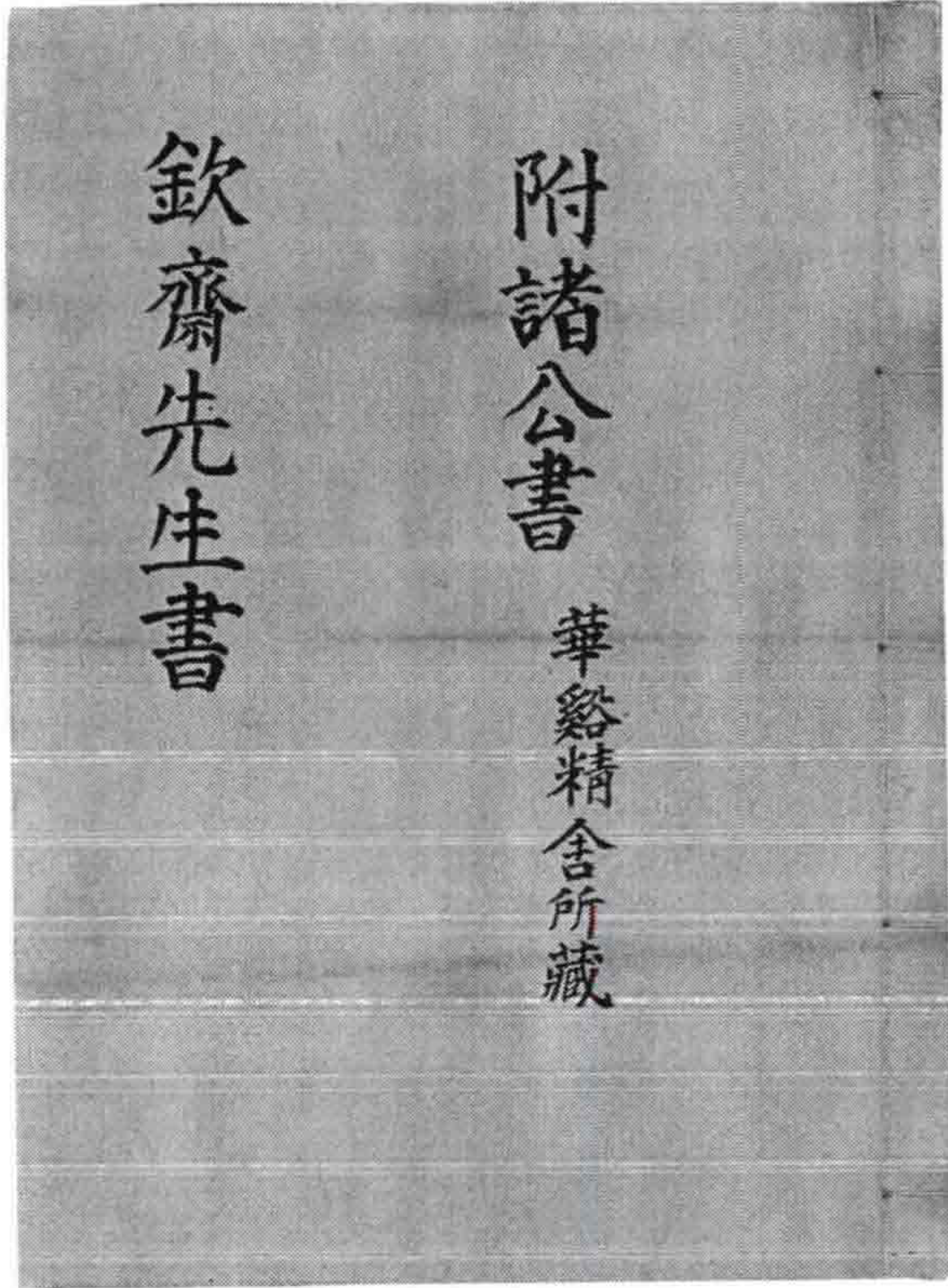
正鎮不省事已從家庭間聞龍菴李公學識氣槩
傑然為南士之望蓋吾先子於公有少時雅契也
一日公訪吾先人於福興山中正鎮是時年可十
二三頗曉長者語句侍立終日夜不知疲公贈我
二絕句遺稿中贈奇秀才金賜者即正鎮幼名也
追思如昨日事而曾未幾時公棄後學先人亦棄
不肖髮上光陰居然五六年正鎮十志業揮顧但
把風樹無涯之悲虛負公勸勉之意感昔憶今悵
惘難勝自念朝暮且將從先人于九原吾不言兩
家後孫安知昔日贈詩時事遂尾題其遺稿如此
云戊辰夏夏先友子幸州奇正鎮謹書

16. 천문도(天文圖)

이 천문도(天文圖)는 성신도(星辰圖)라고 해도 될 것 같다.
원형으로 전국 주군(州郡)을 썼는데 이는 그 지방에서 보는 것과 다른 지방에서 보는 차이를 알게
한 것이다.
작자(作者)는 알 수 없으나 석학(碩學)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17. 금재 선생서 (欽齋先生書)



금재 선생서 欽齋先生書
36×53.5 1책 16장

금재(欽齋) 최병심(崔秉心) 선생은 한말유종(韓末儒宗) 간재(艮齋) 전우(田愚) 선생의 수제자(首弟子)이다.

여기에는 그의 고제(古弟) 박상석(朴尙錫)에게 보낸 서신 6편이 실려 있다.

뒤에 제공(諸公)의 서신을 붙였는데 그 중 묵재(默齋) 김정중(金定中) 선생은 역시 박상석의 스승으로 성균궐주(成均祭酒)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 선생의 문인이다.

先生遺文抄卷終
 拾揚可好詩金名
 於我生平
 古竹主智大願字精
 以經到以受名是
 而止枕都閑子
 此
 古蹟
 辛未仲夏
 八峯東心

只書流金
 吾隨君來
 讀隨君來
 建隨君來
 龍隨君來
 天隨君來
 任隨君來
 居隨君來
 廣隨君來
 有隨君來
 來隨君來
 原隨君來
 學隨君來
 自隨君來

出聖賢
 切人感痛
 長善文
 倍付以末
 另附和辭
 高詩多
 義之精
 辛未仲夏
 八峯東心

先師遺文抄卷終
 拾揚可好詩金名
 於我生平
 古竹主智大願字精
 以經到以受名是
 而止枕都閑子
 此
 古蹟
 辛未仲夏
 八峯東心

全書流金
 吾隨君來
 讀隨君來
 建隨君來
 龍隨君來
 天隨君來
 任隨君來
 居隨君來
 廣隨君來
 有隨君來
 來隨君來
 原隨君來
 學隨君來
 自隨君來

出聖賢
 切人感痛
 長善文
 倍付以末
 另附和辭
 高詩多
 義之精
 辛未仲夏
 八峯東心

19. 격몽요결(擊蒙要訣)



격몽요결 擊蒙要訣
16×24,5 1책 24장

격몽요결은 울곡(栗谷) 이이(李珣) 선생(1536~1584)이 42세 되던 선조정축(宣祖丁丑) 12월에 해주(海州)에서 초학필독서(初學必讀書)로 지었다.

선생은 주자후일일(朱子後一人)으로 평가 받는 성리학자(性理學者)요 정치가요 교육자였다. 말년에 해주에서 강학(講學)하면서 학도들을 위하여 지었지만 후학을 위하는 마음도 겸했으리라고 본다.

이 책은 경오(庚午) 8월에 덕곡재(德谷齋)에서 썼는데 어느 경오년인지 알 수 없고 필사자(筆寫者)도 알 수 없다.

화계(華溪) 박상석(朴尙錫) 선생은 이 책으로 소학(小學) 전에 필히 읽는 교과서를 삼았다.

이 책은 입지(立志)에서 처세(處世)까지 모두 10장(章)으로 되어 있고 현토(懸吐)는 이두토(吏讀吐)를 사용하였다.

뒤에는 제의초(祭儀抄)를 부록으로 하였다.

祭儀抄

出入

凡出入必告祠堂。若近出則入大門。瞻禮而行。故亦如之。若往宿處則焚香拜。故亦如之。若遠出則向處則開中門拜。故亦如之。若往堂焚香告云某將適某所。故告。又拜而後行。故亦如之。但告云某今日欲自某所。故見諸子異居者。近出則不必拜辭。若遠出則須跪祠堂拜辭。如上儀。但不開中門。時主人不關中門。拜辭。祠堂東階請之作階。惟主人。若亦降。由作階。主婦及餘人。雖尊長必由西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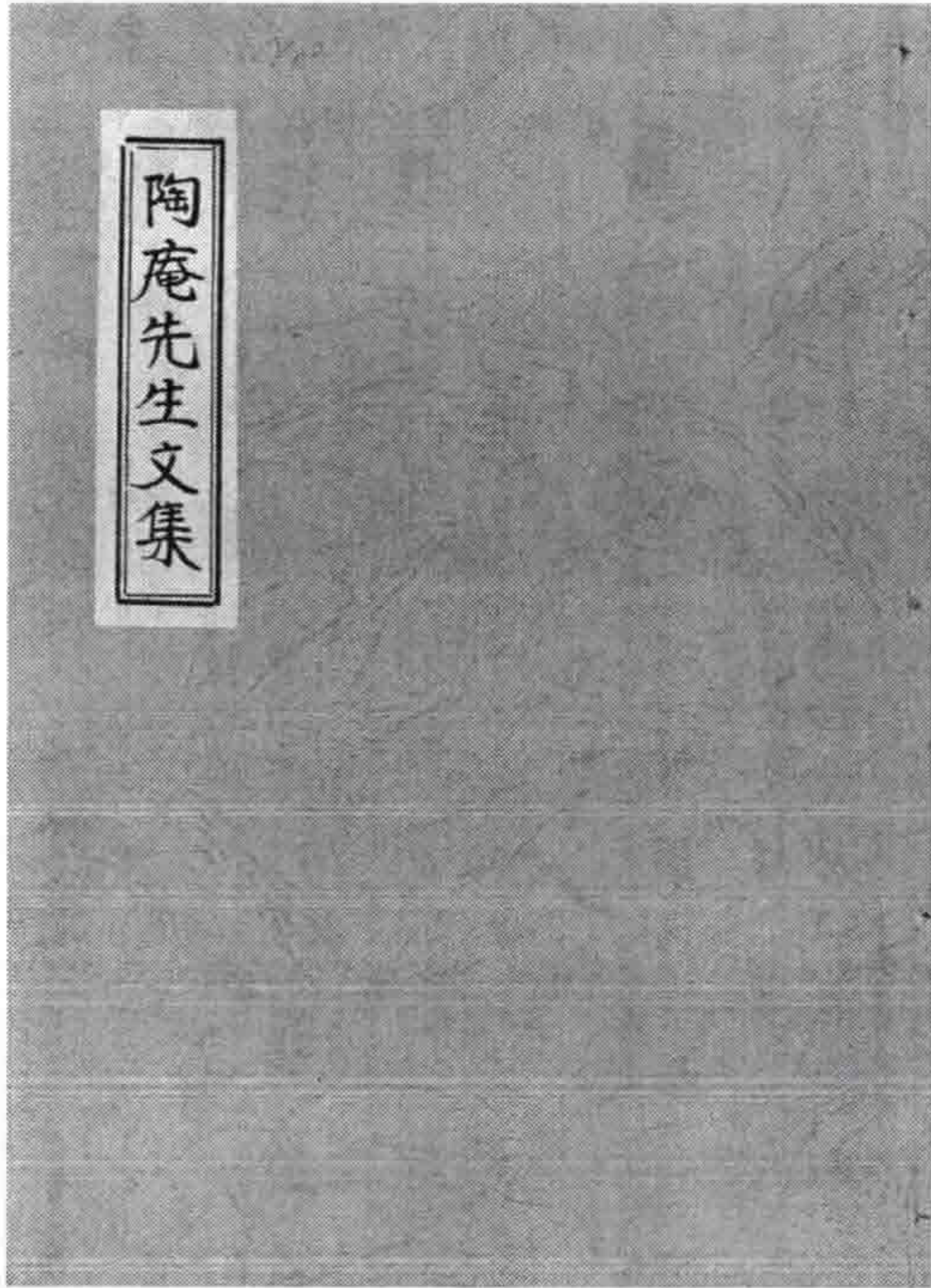
祭禮儀

正至朔望則祭前一日洒掃齊宿。厥明風興。開祠堂門。設茶沙。於香案前。每位設饌。脯菓隨宜。或飯粥亦可。爰若正朔冬至則別設饌數。高卷則加。以豆粥。若冬至則

擊蒙要訣序

人生斯世。非學問無以為人。所謂學問者。亦非異端別件物事也。只是為父當慈。為子當孝。為臣當忠。為夫婦當別。為兄弟當友。為少者當敬。長為。及富有信。皆於日用動靜之間。隨事各得其當而已。非馳心玄妙。希觀奇效者也。但不學之人。心地茅塞。誠見慈昧。故必須讀書窮理。以明當行之路。然後進詣得正。而致履得中矣。今人不知學問。在於日用而妄意高遠。難行以推別與人。自安暴棄。豈不可哀也哉。予定居海山之陽。有一二學徒。因學余。懇懇以為師。而且恐初學。不知向方。且無堅志。而泛泛請益。則彼此無補。及貽人譏。故略書一冊。子粗取之心。躬躬奉親。接物之方。名曰擊蒙要訣。欲使學徒。以此充心之所當。日下功而余亦久。甚因隨欲。以自警。為丁丑季冬。

20. 도암선생문집(陶庵先生文集)



도암선생문집 陶庵先生文集
21×29.7 책 43장

도암 이경광(陶庵李綱光 1563~1617)선생 문집
오언절구(五言絶句), 칠언율시(七言律詩), 기(記),
설(說), 문(文)과 연보(年譜), 가장(家狀), 행장(行狀),
묘갈명(墓碣銘)으로 엮어진 단권 책(單券冊).

1862년 3월 후 보름에 통정대부 행 승정원 우부승
지 겸 경연참찬관(通政大夫行承政院右副承旨 兼 經
筵參贊官) 허부(許傳)가 서문(序文)을 썼다.

陶庵先生文集題目	五言絶句	五言律	七言絶句	七言律	記	說	文	年譜	家狀	行狀	墓碣銘
----------	------	-----	------	-----	---	---	---	----	----	----	-----

도암서원 기초자료(道巖書院 基礎資料)

所在：長水郡長溪面西邊里

본 서원(本書院)은 조선 순조(純祖)15년 을해(乙亥, 1815)에 유림(儒林)이 창건하여 도암(陶庵) 이경광(李綱光), 정숙공(貞肅公) 분사(分沙) 이성구(李聖求), 강고(江皐) 유심춘(柳尋春) 삼현(三賢)을 모셨다.

그 후 고종(高宗) 5년 무진(戊辰, 1868)에 조령(朝令)으로 훼손되었다가 光復後 癸巳(1953)에 지방 유림의 발의로 복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陶庵先生 略歷

① 先生の 出生과 歷史的 背景

선생은 太宗大王의 아들 敬寧君 丕의 5대손으로 고조 植은 牟陽君이고 증조 承孫은 仙差君이고 조고 裕는 河東君이며, 知禮縣監 希讓과 屯村 黃喜 선생의 증손 引儀 翔의 女는 考와 壻가 된다.

明宗18년 癸亥(1563) 7월 3일 京城 明禮洞에서 출생하니 諱는 綱光, 字는 日章, 號를 陶庵이라 하였다. 용모 수려하고 말과 함께 문자를 알아 6세에 글을 잘 붙이고 의사 명민하여 기개 왕성하니 백부 判書 菊齋, 중부 贊成 淸澤 諸公이 칭찬하기를,

“우리 가문을 창성할 사람은 반드시 이 아이가 될 것이다.” 하였다. 10세에 정식으로 백부에게 수학하여 정진한 결과 15세에는 孝悌의 行과 學業의 工이 老成의 경지에 이르렀고, 16세에 安判書 桑溪公의 아들 縣監 彦容의 女에게 장가들었다.

28세 되던 宣祖23년 庚寅(1590)에 부친이 지례 현감으로 재직 중이어서 서울에서 省親을 다니는데 中路인 長水縣 任內面 陶旨村 外家를 찾아 산천의 수려함과 임석의 깨끗함을 보고 은둔할 뜻을 가지니 이때 이미 임진란이 올 것을 예견했던 것이다.

일찌기 방촌 선생은 讓寧大君의 폐세자 논의에 반대하였다 하여 太宗의 노여움을 사 도지촌에 유배되니 數代를 내려와 자연스레 외손인 도암 선생이 가대를 물려받게 된 것이다.

이듬해에 부친이 병으로 사직하자 모시고 서울 집으로 갔다가 다음 해인 壬辰(1592) 4월에 왜적이 부산포에 상륙하여 삼시간에 서울을 점령하자 처자를 처가에 부탁하고 와병중인 부친을 등에 업고 600리 길을 걸어서 長溪 三峯里 뒤에 있는 詞土山으로 들어가 꿩잡고 고기 낚아 성심봉양하니 이때 전라도에는 왜적이 침입하지 못했었다.

한편 안씨 일가는 綜南山에 피난했는데 이듬해에 부인이 피난소에서 숙질(宿疾)로 서거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 달려가 낫하고 임시로 안씨 선영하에 장사 지내고 아들을 데리고 돌아왔다.

이로부터 3년 후인 1596년에 白華山 남쪽 도지촌에 望華堂을 짓고 陶庵이라 自號하니 이로써 영구히 棲息할 곳을 얻게 되었고 얼마 후 巨擘에 사는 蔚山府使 延安 李喜男의 女에게 再娶하여 가정을 안정시켰다.

② 野獸를 感動시킨 孝誠

선생은 하늘이 내리신 효자였다. 어려서부터 昏定晨省的 道와 愛親敬長の 義를 하나같이 小學에 따랐으며 兵燹蒼黃中에도 甘旨의 供을 모자람이 없게 하였다.

36세에 부친이 숙질로 위독하게 되자 온갖 정성을 다해 侍湯하고 손가락을 끊어 피를 입에 흘려 넣으며 대신 가게 해달라고 기원도 하였으나 노인 증세를 어찌하지 못하여 끝내 하세하였다. 天川面 朴谷 後麓에 安葬하고 3년을 侍慕하는데 大鹿과 猛虎가 와서 지켜주었다. 3년 동안 잠시도 廬幕 밖을 나가지 아니하니 草履 한 켤레가 떨어지지 않았다.

복을 벗자 또 모친상을 당하여 前喪과 같이 하니 이번에도 범과 사슴이 와서 길들인 듯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이 골짜기를 가리켜 孝廬洞이라 하였다.

③ 心性工夫와 學問交遊

선생의 공부는 한마디로 存心養性¹⁾에 歸結된다 하겠다. 著書 대부분이 유실되어 전하지 않지만 한 덩이 고기로 왼손맛을 알 듯이 殘篇 詩文으로도 족히 전체의 뜻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선생은 一身의 主가 곧 心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君子小人의 分이 一念의 善惡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主一無適²⁾의 敬에 이르도록 篤工精進한 흔적이 역력하니 이것이 선생의 선생되신 所以이며 끝없이 후학의 숭앙을 받는 理由일 것이다. 文章보다 道學을 重視하는 마음으로 繼往聖 開來學의 뜻을 품은 선생은 임금을 연모하고 고향을 그리는 심정으로 堂名을 望華(望京華)라 했으면서도 일체 벼슬 길은 외면했으니 司憲府 持平 등 三徵에도 終乃不就하였다.

선생의 道義交遊로는 同庚 從弟³⁾인 芝峯 李遼光 선생이 隨時來往하고 旅軒 張顯光 선생은 仁同에서, 愚伏 鄭經世 선생은 陝川에서, 그리고 本邑의 游軒 丁瓘 선생, 晚軒 丁炤 선생, 三巖 朴以謙 선생, 秘巖 朴以恒 선생이 자주 와서 唱酬講討하였다.

④ 先生の 隱遯講學이 世教에 미친 影響

이상과 같이 선생의 家門이 顯著華麗하고 한문이 精博하며 交遊 또한 當代名賢들이었다. 어려서부

宣

陶庵先生遺集序

粵在

祖昭敬王威際遺逸之士蓋多以好學篤
 行微或起或不歸遠於道行其志而已
 矣時則長水之白華山屢徵至憲臺而固
 守白華者世所稱 陶庵李先生是也張
 旌軒往來相訪歎其高卧之樂鄭愚伏講
 論經義定為道義之交旌軒遇伏兩先生
 百世之表率也而與之契合如此則 先
 生之德可知已藥山吳公銘其墓曰 先

陶庵先生文集卷之上序

生孝悌得之天十歲學漸博弱冠踰嶺是
 不出山外三南章甫往來門牆盡成宿德
 之美又曰得乎內者重而無慕乎外此又
 可以見 先生之平生也歷世而高山之
 仰未已建祠于道巖以尸祝之嗚乎 先
 生之家世何其多學行文章也菊齋其伯
 父也清潭其季父也 先生受訓焉芝峰
 其從弟也 先生同學焉分沙東洲其諸
 從子也 先生貽謨焉其後又有混泉退
 村梅軒游齋景淵堂相繼不絕盛矣哉今

터 家庭之學을 물려받고 오묘한 道理를 마음에서 얻어 실천에 옮기는 實學으로 一世의 巨儒들을 長水僻地로 모여들게 하면서 55세를 一期로 下世할 때까지 오로지 講學에 心血을 기울였으니 이 재주와 포부로 주위의 권고대로 出仕했더라면 國家의 棟梁之材가 되고도 남았겠지만 그보다도 史上 未曾有의 大亂後에 解弛해진 儒風을 振作시키고 孝를 바탕으로 둔 身敎⁴⁾로서 후학을 양성한 世敎의 功은 이 지방 문화계발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이거니와 한 시대를 초월하여 길이 邦內儒林의 師表가 되고 彝性⁵⁾을 가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할 것이다,

(참고문헌 : 陶庵集, 道巖書院 ● 省錄, 長水誌, 三綱錄)

2. 貞肅公 分沙先生 ● 歷

선생은 도암 이경광 선생의 종제가 되는 文簡公 芝峯 李¹⁾ 龜光 선생의 子이다. 諱는 聖求요 字는 子異이며 號를 分沙라 하였다.

宣祖 17년 甲申(1584)에 京城 明禮洞 李氏 集姓村에서 태어났다. 왕족의 지친일 뿐 아니라 三公六卿이 즐비한 명문가에 태어나 약관 24세인 선조 41년 戊申(1608)에 文科에 급제하여 藝文官 檢閱이 되었다. 2년 후 光海 2년 庚戌(1610)에 世子侍講院, 說書에 전임되고 다음 해 成均館 典籍, 司憲府 監

察을 거쳐 禮曹佐郎, 兵曹佐郎을 역임하고 知製教를 겸임하였다.

광해군 5년 癸丑(1613)에 司憲府持平에 임명되어 鰲城府院君 白沙 李恒福 선생이 鄭浹의 문제로 모함을 받아 배척 당하는 것을 구출하고 간당의 배척을 받아 파직 되었으나 다시 庚申(1620)에 永平 判官이 되었다. 백사 선생이 北靑의 配所에서 별세하자 선생은 포천에 花山書院을 세우고 백사 선생의 제사를 올렸다. 반대파들은 즉각 이를 무고하여 파직되어 물러나 있게 되었다.

1623년 癸亥에 仁祖反正이 되어 司諫院 司諫이 되고 江華府使로 전직했다가 인조 3년 乙丑(1625)에 承旨로 內職에 들어왔다. 禮曹, 兵曹參議를 거쳐 大司諫으로 승진되고 戊辰(1628)에 全羅監司로 나왔다가 辛未(1631)에 都承旨로 임명되었다. 吏曹參判을 거쳐 癸酉(1633)에 兵曹判書로 六卿의 지위에 올랐다.

大司憲, 京畿監司를 거쳐 吏曹判書가 되었는데 병자호란이 일어나 남한산성으로 왕을 호종하였다가 三田渡 항복으로 난이 끝나고 右議政으로 世子師傅를 겸하면서 謝恩使로 審陽에 다녀오기를 두 차례나 하였으며 敦寧府領事, 中樞府領事를 거쳐 인조 19년 辛巳(1641) 10월에 드디어 領議政의 막중한 직위에 올라 八道에 德을 퍼게 되었다.

그러나 선생은 항상 가문의 영화와 자신의 직위에 겸손하여 국태민안에 심혈을 기울였고 높은 자리에 오래 있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2년 만에 一人之下萬人之上의 자리를 사임하고 동대문 밖에 초가삼간을 지어 은거하다가 인조 22년 甲申(1644)에 유명을 달리하니 貞肅公의 諡號가 내려졌다.

170년이 지난 순조 15년 乙亥(1815)에 유림의 발의에 의하여 조정에 장계를 올려 도암서원을 세우고 도암, 분사, 강고 三賢을 모신 것이다.

(참고문헌 : 道巖書院瓊省錄, 長水誌, 行狀, 國史大辭典)

3. 江臯先生 ● 歷

선생의 姓은 柳요 籍은 豊山이요 諱는 尋春이요 字는 象遠이요 江臯는 그의 號이다. 領議政 文忠公 西崖 諱 成龍의 7대손이요 贈左贊成 諱 潑의 아들이며 右議政 靖憲公 洛坡 諱 厚祚는 그의 아들이 된다. 江臯, 洛坡 父子分이 長水縣監을 지냈고 함께 去思碑가 세워지기도 한 名門이다.

-
- 1) 存心養性 : 자기의 본심을 가지고 본성을 가름 (孟子盡心章)
 - 2) 主一無適 : 일심으로 잡념이 없음.
 - 3) 同庚從弟 : 같은 나이의 사촌 아우
 - 4) 身教 : 몸으로 가르침
 - 5) 彝性 : 타고난 떳떳한 본성

英祖 38년 壬午(1762) 8월 24일 尙州郡 中東面 干勿里에서 태어났다. 正祖 19년 乙卯(1795)에 공신의 후예로 추천 받아 蔭輔로 承政院注書에 발탁되어 孝陵參奉, 五衛副司果를 역임한 다음, 외직으로 長水縣監에 부임하니 정조 21년 丁巳(1797)의 일이다.

이듬해 12월 15일에 아들 쌍둥이를 낳으니 형은 곧 厚祚이고 아우는 孝祚이다.

내직으로 들어가 世子侍講院 翊贊으로 純祖가 世子時에 講官으로 재직하였고 庚申(1800) 7월에 正祖가 승하하시고 純祖가 즉위하신 후 王世子の 侍講院 左翊贊으로 講官이 되었으나 이 분이 즉위하지 못하고 떠나자 뒤에 追尊하여 翼宗이라 하였으며, 憲宗을 世孫으로 책봉했을 때 世孫侍講院 左長史로 역시 강관이 되었으니 순조, 익종, 현종 3대 임금의 시강원 스승이 되는 광영을 얻었다.

義城縣令, 固城郡守를 거쳐 순조 30년 庚寅(1830)에 正三品 堂上官인 敦寧府都正으로 발탁되고 癸巳(1833)에 龍驤衛副護으로 전직되었다.

선생이 순조 34년 甲午(1834) 3월 5일에 考終하니 享年 73세이다.

江阜集 10권, 東宮輔翼篇2권, 儉說1권 自銘錄1권 등의 저서를 남겨 귀중한 문헌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현종 13년 丁未(1847)에 도암서원에 諱享하니 선생이 가신지 겨우 7년 만의 일로서 遺愛鄉民의 숭양하는 마음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참고문헌 : 江阜集, 道巖書院續省錄, 長水誌, 典故大方)

4. 書院設立目的과 繼承發展의 必要性

成均館이 國立大學이고 鄉校가 地方公立學校라면 書院은 私立學校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書院의嚆矢는 朝鮮 中宗36년 辛丑(1541)에 周世鵬 선생이 豐基郡守로 부임하여 順興 竹溪에 白雲洞書院을 세워 이 지방 출신인 文成公 安珦 선생의 위패를 모시고 강당을 지어 후학교육을 담당하는 복합구조로 시작하였다.

그 후 明宗3년 戊申(1548)에 退溪李滉 선생이 풍기군수로 부임하여 조정에 보조를 청하니 庚戌(1550) 2월에 紹修書院이라 賜額하고 書籍, 奴婢, 田上 등을 내려주었다.

이로부터 각처에 서원이 서게 되었는데 本邑 長水에도 肅宗21년 乙亥(1695)에 滄溪書院이 설립되었고 이어 5개 서원이 세워졌으니 本 道巖書院도 그중의 하나이다.

서원은 선현을 숭양하면서 학문을 익히는 매우 효과적인 교육기관으로 사회가 문란한 이 시대에 특히 계승발전 시켜야 할 필요를 느낀다. 아무쪼록 시설을 확충하고 학생을 모아 선현의 덕을 흠모하면서 충효례 교육의 전당으로 부활시켜야 할 것이다.

도암서원요람(道巖書院要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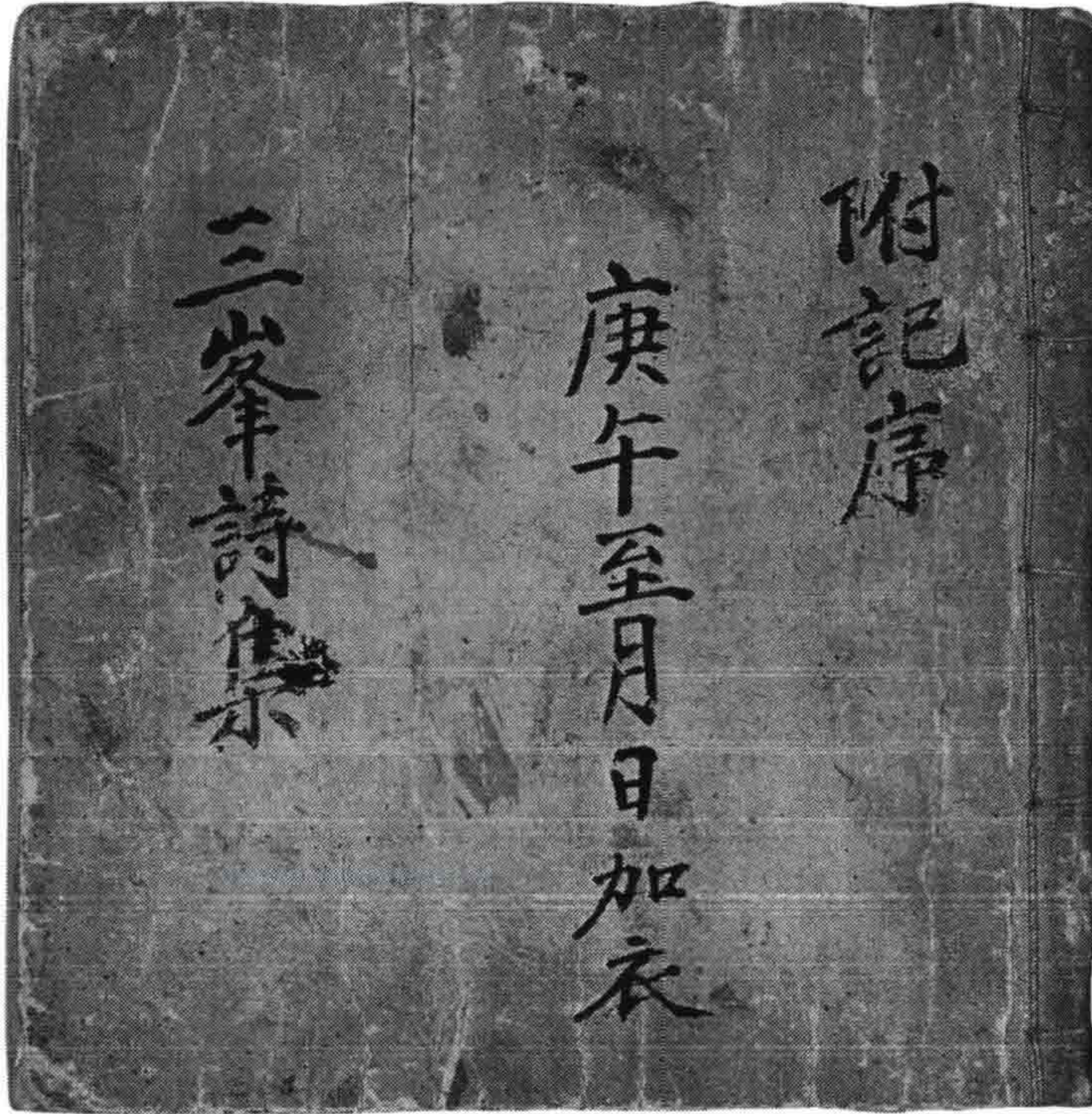
道巖書院(도암서원 연혁)

1. 위치 - 전북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서변 663의 10
2. 1815(순조15년)유림 창건
3. 1868(고종5년) 조령으로 철폐
4. 1953 지방유림에 의하여 복설
5. 1983 사후각 중건

◎ 도암서원 역대원장

초대	서문홍.	박문석.	한연태.	정경조
	한상춘.	김윤권.	박상석.	양진식
	박두석.	양병춘.	정안조.	한창수
	양병하.	김창영.	김종진.	한병두
	양병조.	오치황.	김진홍.	이상순

21. 삼봉시집三峯詩集



삼봉시집三峯詩集
19.5×20.3 1책 60장

삼봉은 충주인(忠州人) 박치효(朴致敎 : 1866~1931)의 호(號)이다. 시(詩)와 술(述)과 무전 여행(無錢旅行)으로 한평생을 보냈다.

현감(懸監) 권직상(權直相)이 시를 좋아하여 자주 교유(交遊)하였고 기발한 시상(詩想)과 호방한 성품으로 가는 곳마다 명성을 날렸다.

김삿갓처럼 모아놓지 않아 조카 상석(尙錫)이 아는대로 적어둔 것이 한권의 시집이 되었다.

칠언율시(七言律詩)가 주를 이루는데 때로는 낙운성시(落韻成詩)로 여러 수(首)를 짓기도 하였다.

금난정서(金蘭亭序)와 자락정 중건기(自樂亭重建記)가 있어 부록(附錄)으로 실었고 1980년 묘비(墓碑)를 세우면서 종손(宗孫) 수섭(洙燮)이 묘갈명(墓碣銘)을 지었는데 끝에 기록하였다.

公州佳遊其諸族共知

囂塵閱歷拜先山團會幸成花樹間老去
詩樽三月暮評未泉石一區間幾年長水
相傳信是日公州喜對顏此地風烟惟在
目丁寧他夜夢中看

夜又

兩地迢々積水山杖頭轉路漫雲間青灯
古屋書群在細柳虛汀鷺夢間病俗多年
生白髮含杯盡日借紅顏源々宗誼深如
此花樹春風帶笑着

相逢今日社無量同醉故人盃鷺隨漢笛
留閒境風送林花繡碧苔牛羊漸下斜陽
晚跌宕羣帝去路催

登安義愁送培

先生杖屨屺培留春酒未人愁送遊汝島
亦知愁送意旋飛佇立水群流

留居昌郡兵山村

他鄉久在我鄉同到處無非慣面中大道
穿山橫走北長江鑿陸卧流東碁群一局
花朝兩酒氣三盃柳夕風偶入仙庄經十

22. 지성선사공자상(至聖先師 孔子像)



지성선사공자상
至聖先師 孔子像

장수향교에 600년동안 모셔왔던 공자영정(孔子影幀)을 2003년未 설달에서 2004년(甲申) 정월 사이에 도난(盜難)당하였다. 이 영정은 원(元)나라에서 모셔온 판본(板本)인데 이 판본마저 미국(美國)에 있는 한 점과 함께 두 점만이 남아 있었던 보물(寶物)이다.

즉시 경찰에 신고되지 않아 결국 찾지 못했고, 다시 영정을 낼 수 밖에 없게 되자 박수섭에게 화가(畫家)를 찾아 청(請)하도록 하였다.

부탁을 받아들인 가전(可田) 김호석(金鎬豐) 화백(畫伯)은 박수섭의 스승이신 염재(念齋) 김균(金筠) 선생의 손자인바, 정부요청 6점 작업을 마루고 특별히 착수한지 8개월만에 완성하고 재료비만 받는 성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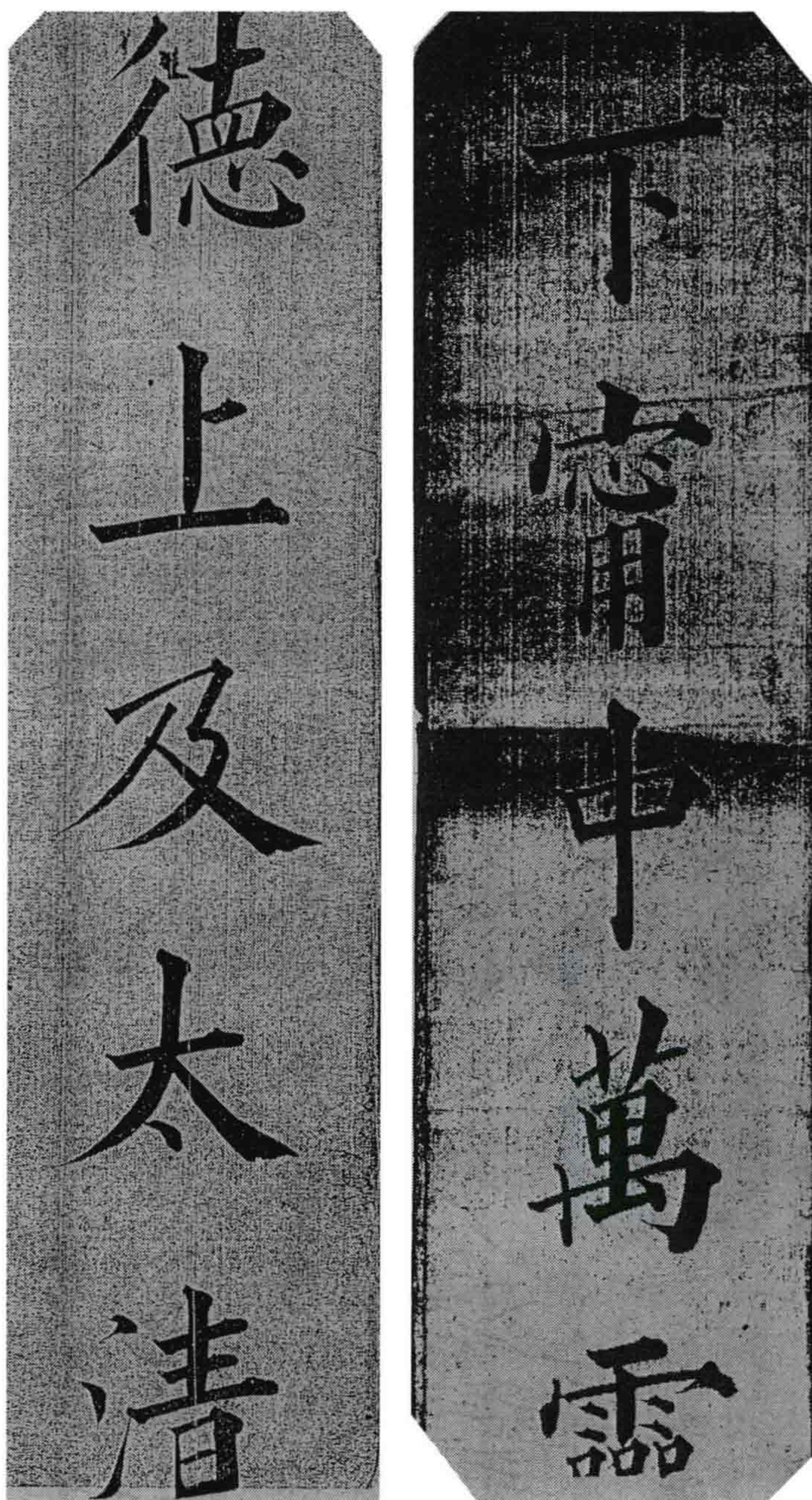
글씨는 신임전교(新任轉典校) 김두봉(金斗奉)의 요청으로 요전(堯田) 박광근(朴光根)이 썼다.

23. 구성궁예천명첩 (九成宮醴泉銘帖)

이 서첩(書帖)은 석정(石亭) 이정직(李定稷)이 천하명필 구양순(歐陽詢)의 구성궁 예천명을 임모(臨摹)한 것인데 문하생을 가르치면서 매일 체본(體本)을 해 준 것이 모여서 첩이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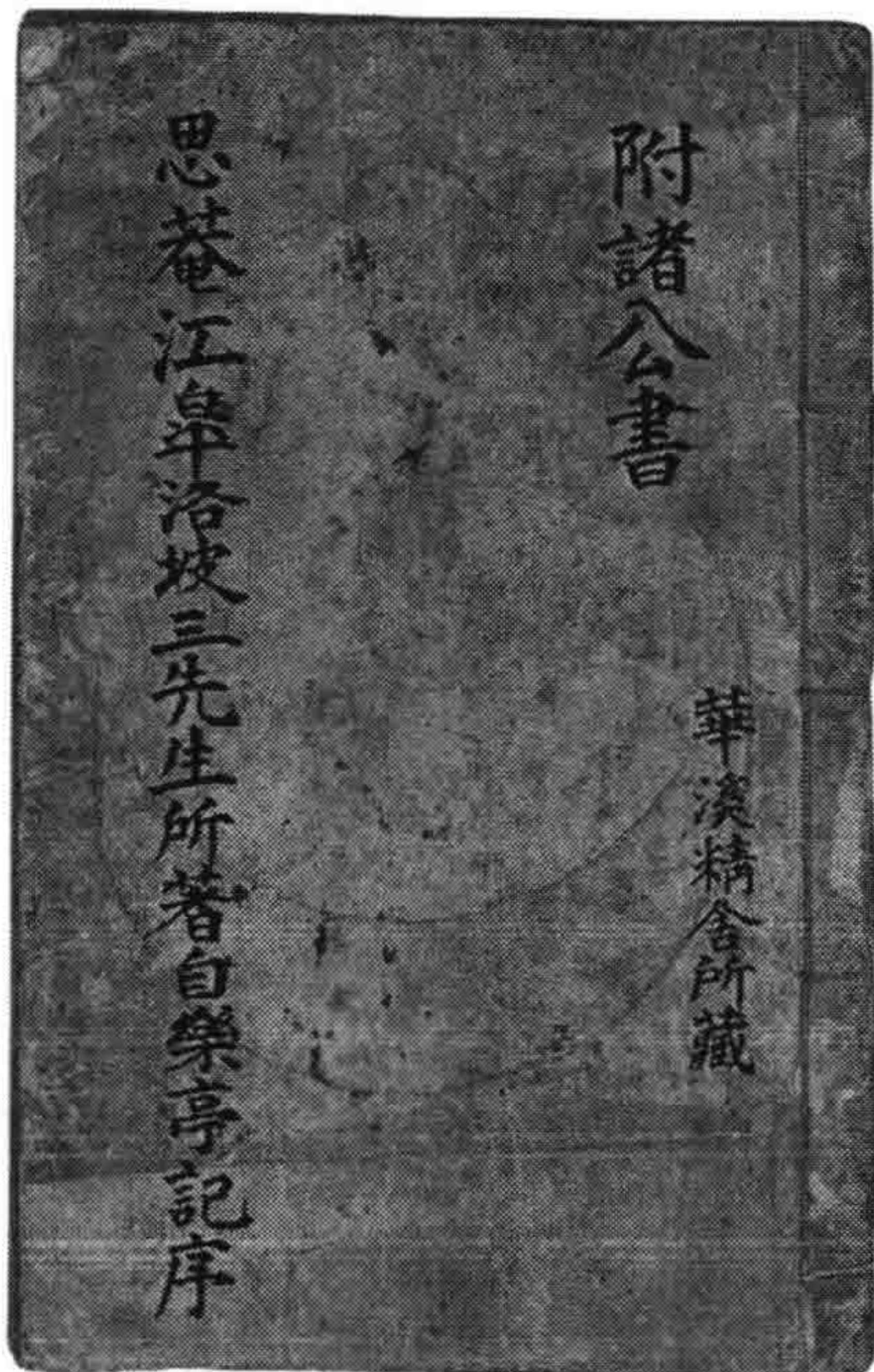
석정은 1841년 김제시 백산면 요교리(蓼橋里)에서 이계환(李啓煥)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유학자(儒學者)이면서 시서화(詩書畫)에 능통하였고, 동서사상(東西思想), 성력(星曆), 술수(術數), 예학(禮學), 산학(算學), 의약복서(醫藥卜筮), 음양풍수(陰陽風水), 제자백가(諸子百家), 등 섭렵하지 않은 것이 없다.

1910년에 70세를 1기로 즐겼는데 세상에서는 호남삼재(湖南三才)로 공과 해학(海鶴) 이기(李沂), 매천(梅泉) 황현(黃玹)을 일컫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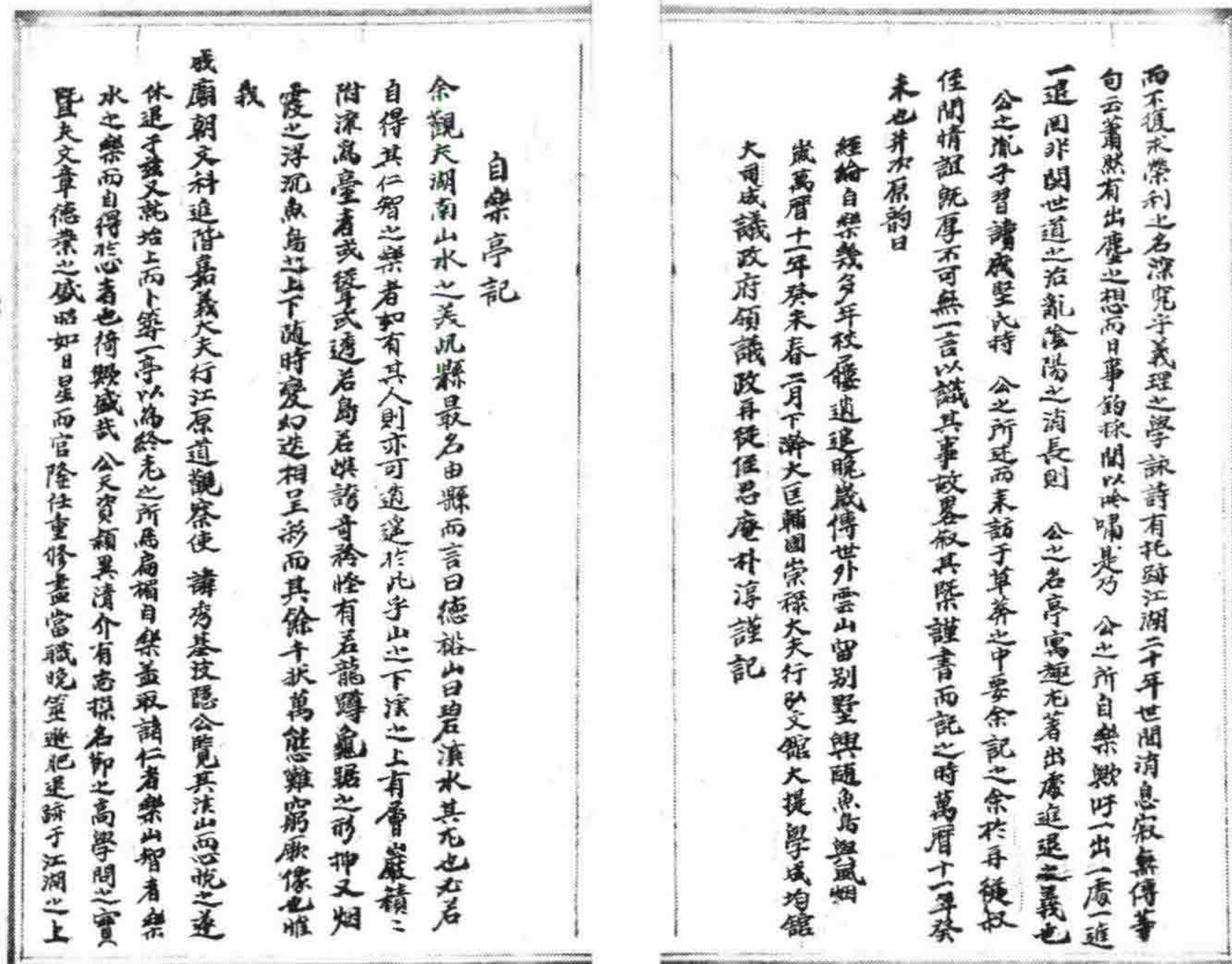
구성궁예천명첩九成宮醴泉銘帖

24. 사암, 강고, 낙파 3선생
자락정기서(思菴江臯洛坡三先生自樂亭記序)



이 책은 1583년 계미(癸未)에 사암(思菴) 박순(朴淳)이 지은 자락정기(自樂亭記)와 봉사손(奉祀孫) 참봉(參奉) 이휴(李休)가 써서 보내준 편지를 필두로 강고(江臯) 류심춘(柳尋春)의 기(記)와 편지, 낙파(洛坡) 류후조(柳厚祚)의 서(序)와 편지가 수록되고, 뒤에 제공(諸公)의 편지가 붙여졌다.

사암, 강고, 낙파 3선생 자락정기서
思菴江臯洛坡三先生自樂亭記序
20×29.7 1책7장



26. 지차시학 (只此是學)

“다만 이것이 이 학문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이것은 글씨를 말한다. 습서(習書)는 정심단좌(正心端坐)하여 학문(學問)하는 자세를 익히는 것이다.

이 필첩(筆帖)은 백현(柏軒) 이봉우(李奉雨) 선생(1919~1992)의 체본(體本)이다.

백현은 선형옥골(仙形玉骨)로 재주가 초월하여 문필(文筆)에 능(能)했으나 나를 아는 이가 드물어야 귀하다는 생각으로 남에게 보이기를 꺼렸다. 문집(文集)을 정리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다.



? 화산사 사적(華山祠 事績)

계남면 화산리(火山里)에 있는 화산사는 1961년(●●●辛丑)에 본군 유림(儒林)의 발의(發議)로 성균관(成均館)과 전국 각 향교(鄕校)의 호응을 얻어 창건되었다.

화산서원(華山書院) 위에 사당을 짓고 파은(波隱) 박수기(朴秀基), 문간공(文簡公) 눌재(訥齋) 박상(朴祥), 문간공(文簡公) 충암(沖庵) 김정(金淨), 안재(安齋) 박지견(朴枝堅), 문충공(文忠公) 사암(思庵) 박순(朴淳), 육류정(六柳亭) 박지효(朴之孝) 육현(六賢)을 모시고 있다. 전북문화재자료 34호로 지정되었다.

사적 목록(事蹟 目錄)은 사진으로 소개하고 6 선생 행략(行略)은 가계(家系)와 도학(道學) 문장(文章) 절의(絶義) 등을 줄거리만 적었다.

이 책의 글씨는 광주(廣州) 안종묵(安鐘默)이 썼다.

화산사 사적(華山祠 事績)

26.9×36.9 1책 55장

? 명은고(明隱稿)

명은고明隱稿
20.8×29.3 22권 22책

명은고(明隱稿)는 명현(名賢) 부안(扶安) 김수민(金壽民 : 1734 祖) 선생의 유고(遺稿)이다. 이 책이 필사본(筆寫本)으로 편집 정리된 것은 손자(孫子)인 병조참판(兵曹參判) 제곡(●谷) 한역(漢●)에 의해서였다. 제곡공이 김해부사(金海府使)로 있을 때 필사본으로만 정리하고 발간(發刊)을 하지 않은 것은 점필재(償畢齋) 김종직(金宗直) 선생의 조 의제문(弔義帝文)과 더불어 세조(世祖)의 왕위찬탈(王位贊奪)을 풍자(諷刺)한 단 두 편의 작품(作品)으로 전하는 내성지(奈成誌, ●) 때문이었다. 조 의제문은 항우(項羽)가 초희왕(楚●王)을 죽인 중국 고사(故事)를 비유한 것이고, 내성지는 명 태조(明太祖) 주원장(朱元璋)의 손자인 건문황제(建文皇帝)와 그의 숙부(叔父) 연왕(燕王 : 明太祖四子)과의 관계를 비유한 것이다. 즉 이 소설(小說)에는 똑같이 숙부에게 죽임을 당한 단종(端宗)과 건문황제가 강원도 내성(內城 : ●●)에서 양국(兩國) 충신열사들을 위한 연회(宴會)를 베풀자 줄을 잇는 참석희망자에 대해 입장(入場)시킬 자격을 심사하는 형식을 통해 역사상에 등장하는 그들의 자잘 못을 뚜렷이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면 사화(士禍)의 발단(發端)이 되고 자손에게 화(禍)가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간행을 하지 않은채 오랫동안 필사본으로 내려왔다. 애석한 것은 6·25때 12, 13, 14권 3책을 누군가가 빌려가 아직 찾지 못한 일이다.

이 책의 수록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권 = 홍윤승(洪允升)과 성대중(成大中)의 서문(序文)과 함께 시(詩) 683수 및 남의 시 13편.

2권 = 시 409수 및 남의 시 2수

3권 = 장편시 234수, 은자(隱者)로서의 사상과 감정 등 생활상이 형상화된것이 많음.

4~5권 전반부 = 기동악부(箕東樂府)로 고조선에서 조선후기까지의 영사시(詠史詩) 387편과 남의 시 11인데 단군(檀君)부터 당시의 인물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소재를 취하고 있음. 이를 시대별로 나누어보면 고조선부터 삼국시대까지의 대상을 읊은 시 41권, 고리(高麗) 39편, 조선 307편임.

5권 후반부 = 명(銘), 기타 103편.

6~7권 35편, 7권 7권 31편인바 이글은 1798년(正祖 22년)에 왕이 사서오경(四書五經) 중 의심되는 부분을 조목별로 유학자들에게 물은 여제(●製)에 대해 공의 의견을 쓴것임.

7권 후반부 = 당의론(黨議論), 효묘유사(孝廟遺事).

8권 = 도설(圖說), 향약조목(鄉約條目)으로 113도와 도설과 기타 4편.

9~10권 = 성리(性理)로 9권에 20편, 10권에 80편.

11권 = 소(疏) 7편.

15권 = 유산록(遊山錄) 8편, 성(性) 38편, 예(禮) 22편 등 68편.

16~17권 = 주역차기(周易筮記)로 16권에 서(序) 기타 4편과 주역차기 30편, 17권에 주역차기 34, 기타 5편과 아들 복현(復鉉)의 서문.

18권 = 지(識) 6편, 이중 내성지(柰城誌)는 충간포핍의식(忠姦褒貶意識)을 담고있어 주목됨.

19권 = 설(設) 서(序) 발(跋) 등 잡저(雜著) 89편.

20~21권 = 천리분해(天理問解)로 20권 천리분해 25, 기타 1편, 21권 천리분해 57, 기타 4, 주록(追錄) 7편.

22권 = 잡저(雜著) 82편과 외손(外孫) 이치백(李致白)의 발문(跋文) 등 남의 글 6편.

전체적으로 시문(詩文)을 나누어보면 각종 시 1814수, 자작 시조(自作時調) 1수를 비롯 시조 3수 및 남의 시 25수와 문(文) 도표(圖表), 기타 693편 및 남의 글 21편 등 총 2500여편에 이른다.

이와 같은 방대한 시문을 통해 선생의 학문과 사상에 놀라지 않을 수 없고, 시종여일 필사(筆寫)한 정성 또한 대단하다 할것이다.

선생이 흠모한 인물은 한(漢)의 엄준(嚴遵)의 촉(蜀)의 제갈양(諸葛亮), 당의 도련명(陶戀明)이었고 미호(溟湖) 김원행(金元行)의 문인(門人)으로 우암(尤庵)을 존경하였다.

1855년(宗乙●)에 송정원 좌승지 겸 경연참찬관(●)에 증직(贈職)되었다.

행장(行狀)은 홍문관 부제학(弘文館 副提學) 김근순(金近淳)이 짓고 묘비(墓碑)는 척제(●齊) 이서

구(李書九)가 지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구복(鄭求福)교수는

“비록 시골에 살면서 관직에 나가지 않은 무명(無名)의 선비였지만 그의 학문은 학계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믿는다.”

라고 평가하였다.

註: 본 해설은 7대손 종원(鍾元)의 간행사와 정구복(鄭求福)의 명은집 해제(明隱集 解題)를 참고 하였음.

? 담허재집(澹虛齋集)

이 책은 조선 효종(孝宗) 시대의 학자(學者) 부안인(扶安人) 담허재(擔虛齋) 김지백(金之白, 1623~1671)의 목활자본(木活字本) 문집(文集)이다. 처음 저자(著者)를 사숙(私淑)한 유계(幽溪) 정재흥(丁載興)의 발의(發議)로 증손 급(汲)과 5대손 수민(壽民) 등이 수집편차(差輯編次)하였고 그후 1895년에 후손 낙린(洛麟) 낙리(洛鯉) 종술(鍾述)등에 의해 간행(刊行) 되었다.

공의 아버지 도촌공(陶村公) 연(沆)은 1617년에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했으나모후(母后) 인목대비(仁穆大妃)를 서궁(西宮)에 유폐(幽閉)시킨 광해군(光海君)의 패륜(悖倫)에 항의하여 출사(出仕)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의리사상을 가르쳤고, 병자호란에 의병(義兵)을 일으켜 여산(礪山)까지 진격했으나 굴욕적인 강화소식을 듣고 통곡해산하고 돌아와 학분연구에 몰두, 도촌유고(陶村遺稿)를 남겼다.

이러한 존주의리(尊周義理) 사상은 직접 공에게 영향을 끼쳐 1648년(仁祖26)에 생원시(生員試)에 급제하고 서도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본성(本性)을 찾는 위기지학(爲己之學)으로 일관하였다.

공의 연원(淵源)을 살펴보면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을 사사(師事)하고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 동춘(同春) 송준길(宋浚吉)을 추종(追從)하였다.

1667년(顯宗 8) 우리 연해로 표류해온 한인(漢人) 임인관(林寅觀) 등 90여명을 청(淸) 나라로 압송(押送)할 때 그의 중형(仲兄)인 백암공(白岩公)과 함께 소(疏)를 올려 명(明)나라에 대한 배신행위임을 극간(極諫)하니 조정(朝廷)에서 모두 그 대의(大義)에 감복(感服)하였다.

1798년(仁祖 22)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에 추증(追贈)되고 송정연호첩(崇禎年額帖)을 하사(下賜)받았다. 뒤에 칠궐사(七巖祠)와 요계서원(蓼溪書院)에 배향(配享)되었다.

이 책은 미발간고서(未發刊古書)를 수집하는 금번 취지와는 다르지만 그 희귀성과, 특히 공의 의리사상(義理思想)을 높이 평가하여 다루는것이다.

1권 시(詩), 2권 소(疏), 3권 서(書), 4권 잡저(雜著), 5권 서기발측문제문(序記跋逐文祭文), 6권 행장(行狀), 그리고 부록(附錄)으로 되어있다.

1989년에 12대손 종원(鐘元)이 다시 간행(刊行)할 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순범(張舜範) 전문위원은

“이 저서(著書)는 우리나라 학계(學界), 특히 철학(哲學)이나 문학분야(文學分野)의 새로운 연구자료가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평가(評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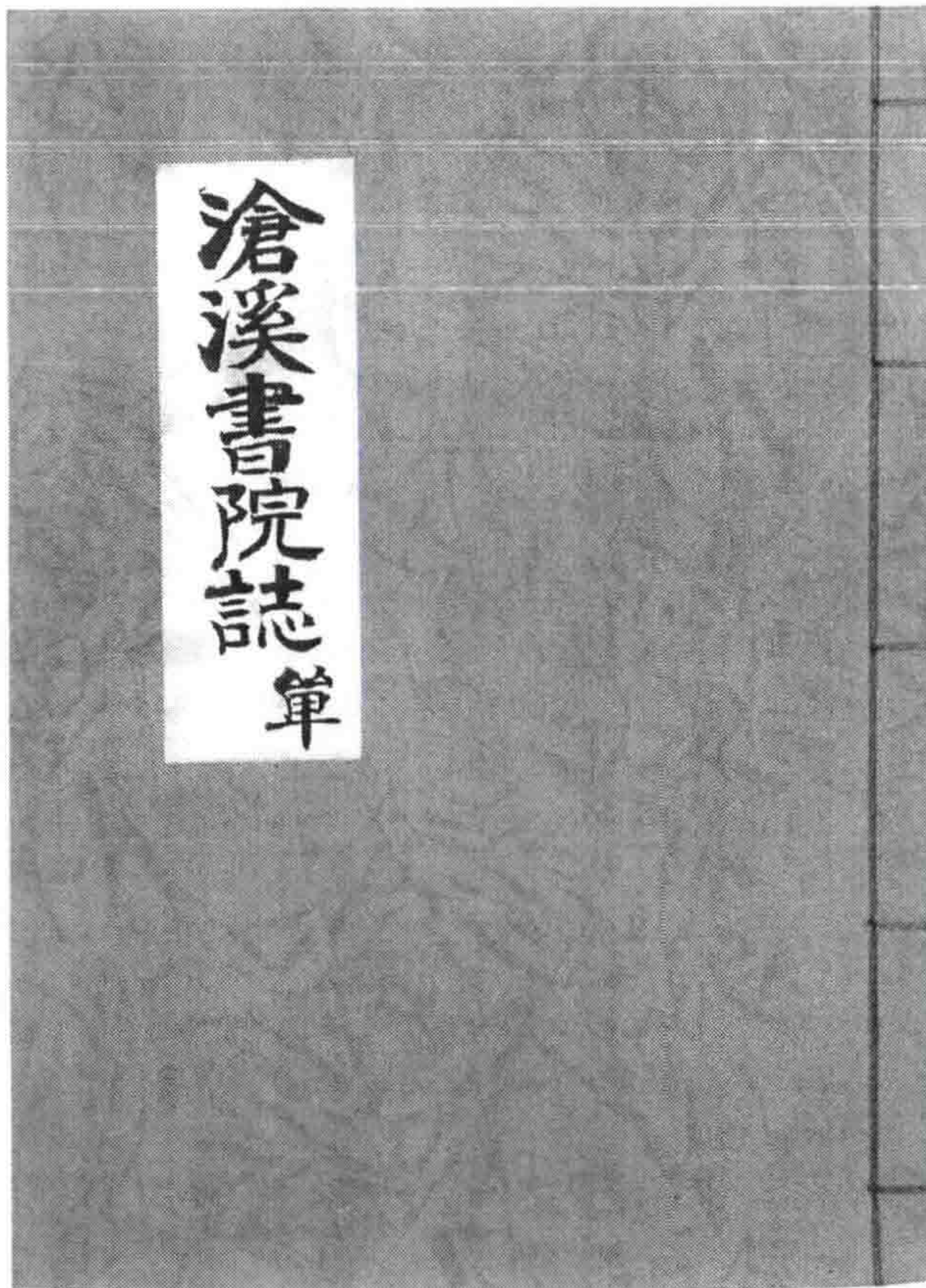
담허재집 澹虛齋集
22×29.3 6권 205장

註: 본 해설은 12대손 종원(鐘元)의 간행사와 장순범(張舜範)의 해제(解題)를 참고하였음.

?. 창계서원지(愴溪書院誌)

창계서원은 1815년(15年)에 장수읍 선창리 566-1번지에 창건되었다. 익성공(翼成公) 방촌(房村) 황희(黃喜), 열성공(烈成公) 나부(懦夫) 황수신(黃守身), 뇌계(●溪) 유호인(俞好仁) 송탄(松灘) 장응두(張應斗) 네분의 위패를 모셨는데 1868년(高宗 5년) 서원철폐령(書院撤廢令)으로 훼철(毀撤)되었으나 본군 유림의 정성은 막을수 없어 설단행사(設壇享祀)를 계속해 오다가 1958년 (光●)에 다시 복설(復設)하였고 십일년째 되는 1968년에 무명재(無名齋) 강백진(康佰珍)을 뇌계 차위(●溪次位)에 모셔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 책은 동곡(東谷) 안종묵(安鍾默)의 글씨로 초안(草案)을 잡은 것인데 아직 인쇄는 되지 않았지만 원위(原委)는 대략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창계서원지(愴溪書院誌)
20.2×28.3 1책 21장

滄溪書院五先生行歷

厖村黃先生

先生諱喜字懼夫號厖村諱翼成長水人新羅時侍
中公諱瓊為遠祖至于麗末有諱均庇贈崇政大夫
議政府左贊成有諱君瑞贈議政府左議政行資憲
大夫判江陵府事祖與考也至正二十三年(高麗恭愍
王十二年)癸卯二月十日巳時止于松京可助里第自
幼時聰明絕倫稍長嗜學夜以繼日詩書百家無不通
曉識度深遠姿儀雄俊望之如泰山黃河中朝使者
嘗見公不覺致敬盡禮性且至孝躬供甘旨凡父母所

欲為不至不義則不敢違忤肅廢王十年癸亥中司馬試
己巳中文科 太祖二年癸酉選為世子右正字轉入翰苑
(一云革命之日先生與麗朝舊臣七十二賢同入杜門洞
諸賢以蒼生之望屬先生因出)歷平安江原兩道伯
及大曹判書 太宗十六年戊戌以讓寧世子廢事忤
旨謫于南原 世宗八年丙午陞右議政翌年陞左議
政戊申選清白吏 世宗十三年辛亥拜領議政辭疏
不允翌年入耆老所三十一年己巳年八十七以本職致仕
命給二品祿 文宗二年壬申^前日易簣于別第正寢享
年九十 上聞訃輟朝吊祭賻贈有加 命配享于

世宗廟度謚曰翼成思慮深遠曰翼為相克終曰
成 肅宗乙亥鄉儒建滄溪祠而俎豆焉

儒夫黃先生

先生諱守身字季孝號儒夫謚烈成公長水人翼
成公黃喜第三子公生于 太宗七年丁亥五月
十一日儀觀甚嚴德性寬厚聰穎絕倫一覽輒記
世宗元年翼成公謫居南原先生晝夜侍側竭力
奉養誠敬兼至與伯仲凡歡愛之情尤篤焉沉潛
經典百家諸書無不涉獵 世宗十三年辛亥蔭
除宗廟副承兼司憲府監察三十二年拜嘉善大

夫同知中樞府事復為三軍鎮撫使 端宗二年
拜漢城府尹又為慶尚節度使法度甚密威令嚴
明 世祖卽位策勳為推忠佐翼功臣封南原君
十二年丁亥陞領議政是歲五月二十五日卒于
正寢訃聞 上震悼輟朝三日遣禮官吊祭賻贈
特厚官庀葬事 肅宗乙亥享于滄溪祠

潘溪俞先生

先生姓俞氏諱好仁字克己號潘溪祀溪人新羅
時阿飡諱三宰為始祖曾祖諱信中領郎將考諱
蒼將仕郎公生于 世宗二十七年乙丑自幼聰

睿器字天成年綏適紀華聞已播壬午俱中司馬
兩試遊太學與梅溪曹偉受學于佔畢齋金先生
之門得其授受之嫡傳 成宗五年甲午先生偶
入宮苑當乘輦前 上曰汝能詩乎對曰粗解
上呼一旬曰金玉非寶良臣寶對曰日月非明聖
主明 上大奇之特 賜文科旌擢弘文正字命
揀文臣賜暇讀書湖堂與許璫蔡壽權健楊熙止
實膺其命世皆榮之歷博士修撰弘文校理司憲
府掌令以母老乞養 上手札諭銓曹曰好仁事
君之日長事親之日短不可不從其志 特除晉

卅收使銓曹啓以晉牧未滿六期拜樂安郡守公
以遠辭乃以陝川換之歸覲有詩曰北望君臣隔
南來母子同 成宗遣中使取覽極稱忠孝兩全
甲寅四月卒于官壽止五十 上聞訃震悼命優
賜賻物謚曰文禧有文集二卷享于咸陽瀼溪別
祠長水滄溪書院

無名齋康先生

先生諱伯球字子鞞號無名齋信川人侍中之淵
后校尉楊子 世宗三十一年己巳生學於舅氏
佔畢齋先生文章節義為當世推重 成宗三年

壬辰居泮宮與南秋江諸賢作花山鄉約丁酉文
科榮親善山第畢齋以本倅出宴鄉老而贈詩曹梅
溪亦有詩可見光景庚子選補翰苑 成宗十七
年丙午拜禮曹正郎己酉為母乞便養出宰咸安
初鄉先生素而識之壬子秋畢齋易養葺文集及
藝尊錄 成宗二十五年甲寅以司憲府掌令被
召遂朝歷弘文修撰議政府檢詳舍人丙辰出宰
興海治有聲蹟丁巳刊行藝尊錄有跋文尋拜司
諱院司諫燕山戊午與寒處諸賢同時被禍而杖
流刑卅甲子加罪被刑享年五十六 中宗二十

一年丙寅靖國首雪戊甲之寇 贈大司諫謹曰文簡公 光復後丁未任實新安書院長水滄溪書院追配焉

松灘張先生

先生諱應斗字彥仲號松灘求禮人三韓統合功臣太師謚忠獻公諱貞弼為鼻祖九世祖諱彬有功於麗祖封木川君自此木川為貴祖諱孝禮行咸陽教授以曾孫冽衛聖勳 贈通政大夫刑曹叅議考諱自綱成均生員行順天教授與寒暄梅溪為道義之交以孫冽衛聖勳 贈資憲大夫戶曹判書松灘先生 中宗朝生員文科 宣祖壬辰功臣錄

券與春男等同列行守門將元良宣武原從功臣二等至大司憲吏曹判書從趙靜菴門修道義之契以子冽衛聖勳 贈統德補林功臣崇政大夫判敦寧府事封木原君以己卯名賢享于長水滄溪書院

滄溪祠事蹟

見儒夫黃先生文集中

滄溪書院在長水縣北三里柵嶺下西麓向禹之原村名仙倉前臨大野溪水源之自南而來故名焉本縣以黃氏姓貫翼成烈成兩公遺風餘韻尚有未泯至今子孫或在其地 肅宗朝乙亥士論齊發營建妥靈之所邑中士人金碩輔縣宰閔鎮崇尹以徵諸

人有力焉翼成公位板在首享烈成公次之其後鄉人以俞滄溪好仁張松灘應斗並為追享兩人亦本縣人也

滄溪書院維持請願狀

伏以滄溪書院四先生偉烈碩德可以師表於士林維持乎世道其在邑有此先生之祠宇而既有恩渥又有影堂其所以崇奉於式之節出尋常萬之而顧此滄溪之院創設雖久而尚未得 恩渥影像雖奉而猶未營影堂亦有 聖朝致社之祭文而尚未及懸板者以其財力之苟艱士氣之凋殘也其為

士林之慨惜者為何如哉粵自創建之初春秋享祀祭需自官一依他賜額例逐一奉上而又以相時加火田特為畫給求作本院補用之資而所謂火田風磨雨洗自甬崩頽茲以多士論報前官又以猪項村畧于山田充代其數以為其祖豆萬一之補圖而况又院宇凋殘講堂傾頽巍然道傍庶作一廢院矣雖欲重修而物力蕩盡百甬思之拮据無策幸蒙我城主領恤之恩澤優惠以公谷亦賜以役軍幾至於告訖其為德澤至矣盡矣乃者看審時城主教是猪項火田之執卜題下於該面掌任者雖未及洞燭其本

? 원려재 차운(遠廬齋 次韻)

원려재는 원파(遠波) 박수섭(朴洙葉)의 서재(書齋)이다. 그가 54세 되는 1996년(丙子) 봄에 고락(告落)하고 기문(記文)과 원운(原韻)을 지었는데, 문인(門人) 류기영 박사(柳基榮 博士)가 중국 유학 중에 당대석학인 상해(上海) 복단대학(復旦大學)의 왕수조 교수(王水照教授)에게 차운을 청(請)하자, “그윽히 사모하며 언제 한잔하면서 손잡고 함께 들노래를 불러 불고” 하는 뜻으로 즉석에서 써준 것인데 시도 좋으려니와 글씨 또한 명필이다.

번액(便額)과 주련(柱聯)은 강암(剛菴) 송성용 옹(宋成鏞壘)이 써주었다.

遠波居士惠公遠廬齋詩云素和敦步原玉
 采雲西向越洪波
 泉味耕讀久
 塵志縱橫光
 舉鶴談笑日
 携手同唱巴人歌

王水照
 丙子春月

원려재 차운 遠廬齋 次韻

13.3×29.5

遠慮齋

戊寅夏
張壽書

但看目前
近憂可畏
聖慮在遠
慮千里外

? 시당유고(時堂遺稿)

시당(時堂) 전의(全義) 이한응(李漢膺: 1902 壬寅~1949 己丑)은 총명(聰明)이 과인(過人)하여 한 번 들으면 문득 기억하는 재주를 지녔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포부를 마음껏 펼치지 못한 채 짧은 생(生)을 마치니, 이는 청약(淸弱)한 체질(體質)에 주경야독(晝耕夜讀)의 과로 탓인가!

그의 시문(詩文)은 청아간결(淸雅簡潔)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눈을 떼지 못하게 한다.

1권은 서(書), 잡저(雜著), 기(記), 서(序), 발(跋), 제문(祭文), 상량문(上梁文), 혼서(婚書)로, 2권은 시(時), 시(詩)로 나누어 친필(親筆)로 남겼는데 글씨 또한 유려(流麗)하다.

서문(序文)은 족질(族姪) 도형(道衡)이 짓고 썼다.

시당유고 時堂遺稿

21×29 2권 1책 50장

? 서산유묵(瑞山遺墨)

서산(瑞山)은 전의(全義) 이풍호(李豐鎬 : 1867丁卯 ~ 1955乙未)의 호(號)이다. 재덕(才德)을 겸비(兼備)하고 설월(雪月) 같은 정신(精神)으로 경사자집(經史子集)을 두루 섭렵(涉獵), 이를 실천궁행(實踐躬行)하여 전가고풍(傳家古風)을 더욱 계승천양(繼承闡揚)하였다.

동학난(東學亂), 일제침략, 6·25동란 등 일생을 병화(兵火) 속에 살면서도 의리(義理)를 지키고 의연(毅然)히 대처하여 일족(一族)이 면화(免禍)하니 모두 공의 학덕(學德)을 칭송하였다.

유묵(遺墨) 몇 점 중에서 조고(祖考) 서초(瑞樵) 휘(諱) 희석(熙奭) 가장(家狀), 신평군(新豐君) 장유(張維)가 지은 우계선생(牛溪先生) 신도비명(神道碑銘), 그리고 판서(判書) 윤석촌(尹石邨) 답서(答書), 고재(顧齋) 이병은(李炳殷)이 지은 묘갈명(墓碣銘 : 아들 道衍 글씨)을 추려 보았다.

서산유묵瑞山遺墨

21×29 2권 1책 50장

? 장부총론(臟賦總論) 및 약성가(藥性歌)

장부총론은 5장(肺, 心, 臟, 肝臟, 胃腸, 脾臟) 6부(大腸, 小腸, 胃, 膽, 膀胱, 三焦)를 총 망라하여 해석한 것으로 현대의학에서도 연구하여 겸용(兼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책이다. 뒤에 약성가를 붙였는데 약의 성분을 적은 것이다. 부록이라 하지 않고 뒤 가의에다 표기하였다.

필사(筆寫)는 누구의 솜씨인지 모르겠고 갑자(甲子) 12월에 시작하여 을축(乙丑) 3월 14일에 가의(可衣)를 했다고 뒤에 연필(鉛筆)로 쓴 것으로 보아 1924년 갑자(甲子)가 아닌가 싶다.

장부총론臟賦總論 및 약성가藥性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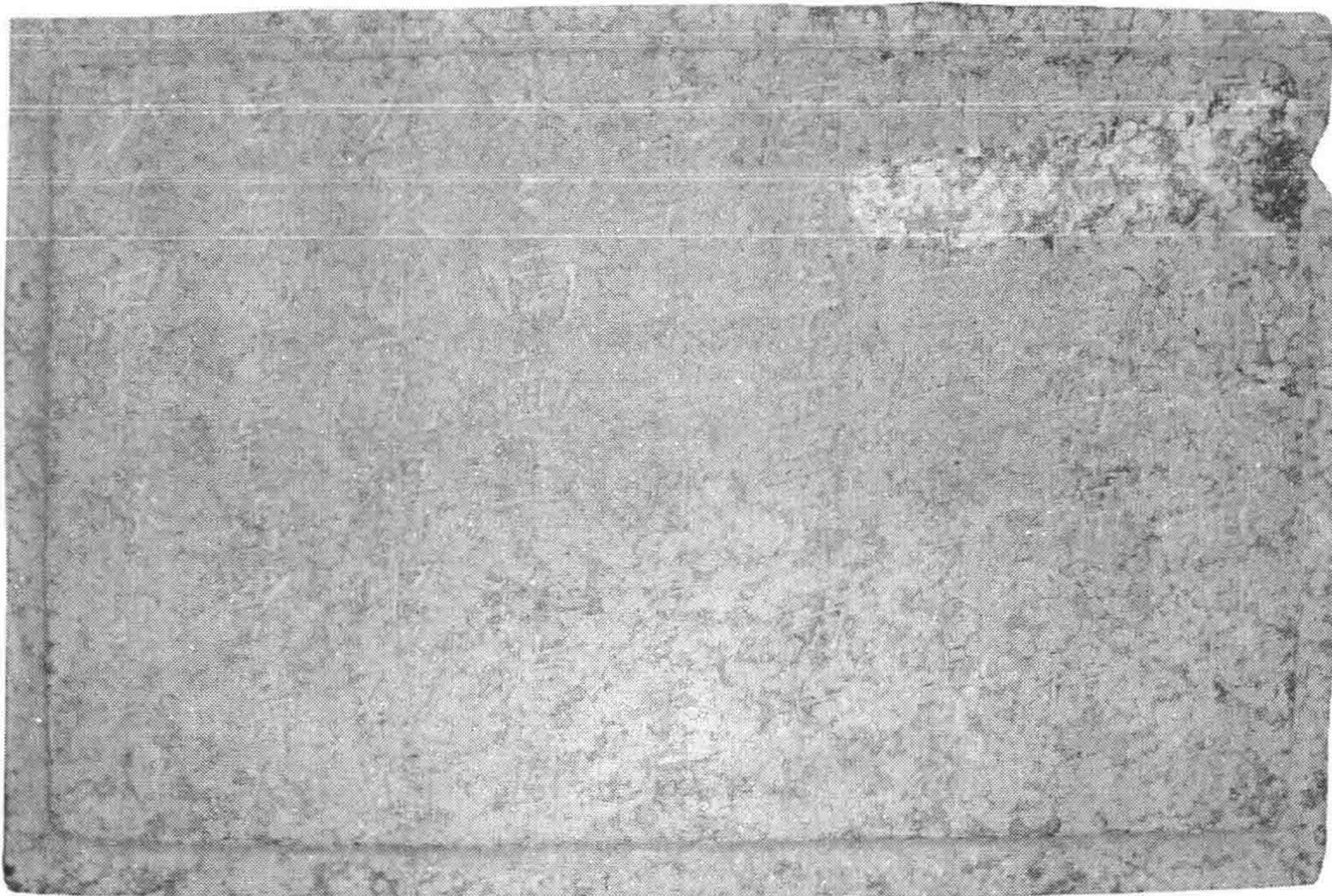
18×28 1권(장부총론 28장, 약성가 18장)

(?) 양의원(梁義源)의 배(配) 하동정씨(河東鄭氏) 지석(誌石)

정씨(鄭氏 : 1803 純祖癸亥 ~ 1834 純祖甲午)의 묘(墓)가 장수 수남면(水南面) 상필덕(上必德) 촌좌(村左) 간좌(艮坐) 을득신파(乙得申破 : 乙方에서 물이 나와 申方으로 빠짐)에 있었는데 계남면 가곡리(佳谷里) 부군(夫君)의 묘로 이장(移葬)하면서 곱돌 지석(誌石)이 나왔다. 정묘계해(正廟癸亥)는 순묘계해(純廟癸亥)로 했어야 옳을 것 같고 유인(孺人)의 고(考)는 희미하지만 덕연(德演)으로 보인다. 석남원 양의원(適南原梁義源)은 그에게 시집갔다는 뜻이다.

1834년 12월 졸(卒)인데 사서인(士庶人) 유월이장(逾月而葬 : 한 달 넘겨 장사함)의 예(禮)에 따라 이듬해 2월에 장사지냈다.

장수 지방에서 많이 나는 곱돌은 비교적 물러 중기(重機) 작업 중에 개석(蓋石)이 깨어졌다.



양의원(梁義源)의 배(配) 하동정씨(河東鄭氏) 지석(誌石)
40×25

? 사례홀기(四禮笏記)

이 책은 흥성인(興成人) 장준(張浚)이 쓴 것이다. 서계(西溪) 조선생(趙先生)이 성룡곡(省龍谷)에 서식(棲息)할제 이웃에 사는 조태유(趙泰疏)가 선생에게 관혼상제(冠婚喪祭) 사례홀기(四禮笏記)를 뽑아 주실 것을 청(請)하였고, 때마침 장준이 역질(痘患)을 피하여 선생 문하에 붙여 살게 되어 가르침에 따라 쓰고, 또 자기 역견(臆見)으로 고문(古文)에서 뽑아 조하(條下)에 쌍서(雙書)하는 등 보입(輔入)한 부분들이 있다.

예서(禮書)로서 아주 귀중한 책이며 붉은 색으로 표시한 곳은 중요한 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송정기원후 재병신(崇禎紀元後再丙申) 5월 일 기(記)라 했으니 곧 1715년(肅宗丙申) 여름 5월에 쓴 것이다.

가의(可依)에 사례홀기(四禮笏記), 정사원월 12일 초(丁巳元月十二日抄)라 쓰고, 끝장에 책주(冊主) 임수원(林洙源)이라 쓴 다음 병진 계동(丙辰 季冬) 7일에 어필(語畢)이라 했는데 이는 임수원의 글씨로 보이며 책주가 바뀐 동기는 알 수 없다. 임수원의 연대를 알면 어느 병진인지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책 속에 오자 낙서가 가끔 많이 있으니 보는 이가 살펴보라.”(此卷之中誤字落書間間有之看者察也) 한 것은 장준의 글씨이다.

사례홀기(四禮笏記)

18.5×28 1책 60장

? 구선동안(九仙洞案)

반암면(蟠岩面) 구선동(九仙洞)에서 서당(書堂) 삼희재(三希齋)를 창건하여 자제(子弟)들을 교육 시킬 목적으로 의연금(義捐金)을 청하는 글을 1913년 계축(癸丑) 10월 일에 동원(洞員) 5인 명의로 작성한 청의문(請義文)을 2년 뒤인 을묘(乙卯) 10월 일에 책으로 맨 것으로 추정되고, 뒤에는 삼희재 토지안(土地安), 식본안(殖本案), 토지 매매 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 전집차용증(典執借用證)을 붙였다.

삼희(三希)란 선비는 현인을(士希賢), 현인은 성인을 바라고(賢希聖), 성인은 하늘을 바란다(聖希天)는 뜻이다.

구선동안 九仙洞案

23×30 1책 8장

? 불설경(佛說經)

이 책은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일제시대 용지(用紙)들을 주워 모아 잡기장(雜記帳)을 만들어 여러 경(經)과 고(誥), 진언(眞言), 전문(呪文), 진언(眞言), 발원문(發願文), 부적(符籙), 풍수설(風水說) 등을 쓰고 토(吐)는 한글과 이두(吏讀)를 썼으며, 뒤 가의(加衣) 안쪽 초학방문 위 여백(餘白)에 잉크로 남원군 운봉면(南原郡 雲峯面)이라고 쓴 다음 이어 조선독립(朝鮮獨立)네 글자를 갈겨 쓴 것을 보면 비록 한지(韓紙) 살 돈도 없는 궁색한 삶이었지만 조선인의 얼을 잃지 않은 살아 있는 민초(民草)임을 알 수 있고, 이는 전체 동포(同胞)의 똑 같은 심정임을 추측하게 하여 자못 숙연(肅然)해짐을 느끼게 하는 책이다.

불설경佛說經
18.2×26.8 1책 22장

? 송오유시집(松塢遺詩集)

송오(松塢)는 전의(全義) 이한수(李漢秀 : 1899乙亥~1963癸卯)의 호(號)이다. 종숙(從叔) 서산(瑞山) 휘(諱) 풍호(豐鎬 : 1867 高宗丁卯~1955 光復乙未)를 따라 은거행의(隱居行義)하여 법가유풍(法家遺風)을 지키면서 시문(詩文)은 별로 유념(留念)하지 않아 흩어진 것을 재종질(再從姪) 경근(庚根)이 수집(蒐輯)하고 권영팔(權寧八)이 국역(國譯)하여 성책(成冊)하고 만장(挽章) 몇 편과 유묵(遺墨)서(序)와 서(書)를 붙였다.

발문(跋文)은 손(孫) 부섭(富●)이 하였다.

송오유시집 松塢遺詩集

21×29.5 1책 69장

? 전?(前)

책이름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 누구의 글씨인지 알 수 없으나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책이다. 진종황제(眞宗皇帝)부터 동파(東坡)까지 여러 문장가(文章家)의 시부(詩賦)가 쓰여 있다.

전?前?

16×22 1책 41장

?. 죽천유고(竹泉遺稿)

죽천(竹泉) 권봉규(權鳳奎 : 1865 高宗 乙丑 ~ 1946(光復 2年 丙戌)는 안동인(安東人) 윤수(允壽)의 아들이다.

산서면 신창리(新昌里)에 살면서 오산(五山)의 족형(族兄) 청련재(靑蓮齋) 권진규(權晉奎) 문하(門下)에서 수학(受學)하였다.

1권은 시(詩), 2권은 서(序), 기(記), 잡저(雜著), 사(辭), 침(寢), 명(銘)으로 되어 있는데 청아정중(清雅鄭重)하여 학문가(學問家)의 풍도(風度)를 알 수 있다.

글씨 또한 죽천(竹泉) 본인이 직접 쓴 것이다.

죽천유고 竹泉遺稿

21×29.5 1책 64장

? 요람일책(要覽一冊)

책 이름을 요람이라 하면 될텐데 일책을 덧붙였다.

축문(祝文), 문묘축문(文廟祝文), 창계사(滄溪祠) 단사 축문(壇祀祝文), 편지투(便紙套) 등을 순서 없이 써놓고 보던 책이다.

언제 누가 썼는지도 알 수 없다.

요람일책 要覽一冊

16×23 1책 37장

⑦. 계하사목(啓下事目)

이 계하사목(啓下事目)은 가선대부(嘉善大夫) 박세기(朴世基 1839 憲宗己亥~1895高宗乙未)가 무주군 안성면 주고리(酒庫里)에 살 때 국조(國朝) 정훈공신(正勳功臣)의 자손(子孫)인 그에게 왕(王)이 하교(下敎)한 조목(條目)을 1886년(高宗丙戌) 9월에 충훈부(忠勳府)에서 등급(騰給)한 것인데, 그의 종손(從孫)인 계북면 임평리(林坪里) 박용덕(朴龍德)이 벽은(碧隱) 이인기(李寅器)의 손을 빌려 국역(國譯)하였다.

공신의 자손을 대대로 수록(收錄)하여 영세(永世)에 미치도록 우대(優待)하려는 뜻이 들어 있다.

계하사목啓下事目
21×29.6 7장, 번역본 6장

? 위학지방(爲學之方)

학문(學問)하는 방법(方法)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 주자대전(朱子大全)에서 뽑은 것이다. 은봉(隱峯) 안방준(安邦俊)이 우계(牛溪) 성혼(成渾) 문하(門下)에서 얻어 남쪽으로 돌아와 인쇄하여 학도(學徒)에게 준 것인데, 병술(丙戌)년 봄 3월에 관곡노포(寬谷老圃)가 위생(魏生)에게 써준 글이 뒷장에 붙어 있다. 관곡(寬谷)은, 처음 배우는 선비가 더욱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는데, 여기에 동의하면서 군부사제(君父師弟) 가릴것 없이 세인 필독서(世人必讀書)로 권하고 싶다.

내용을 보면, 보낸 편지 2, 답장 15, 편전주차(便殿奏劄) 1, 독서지요(讀書之要) 1, 창주정사(滄州精舍)에서 학자(學者)를 깨우는 글 1, 또 학자를 깨우는 글 1, 어록(語錄) 일부, 문인(門人) 황간(黃幹)이 지은 행장(行狀) 2단이 실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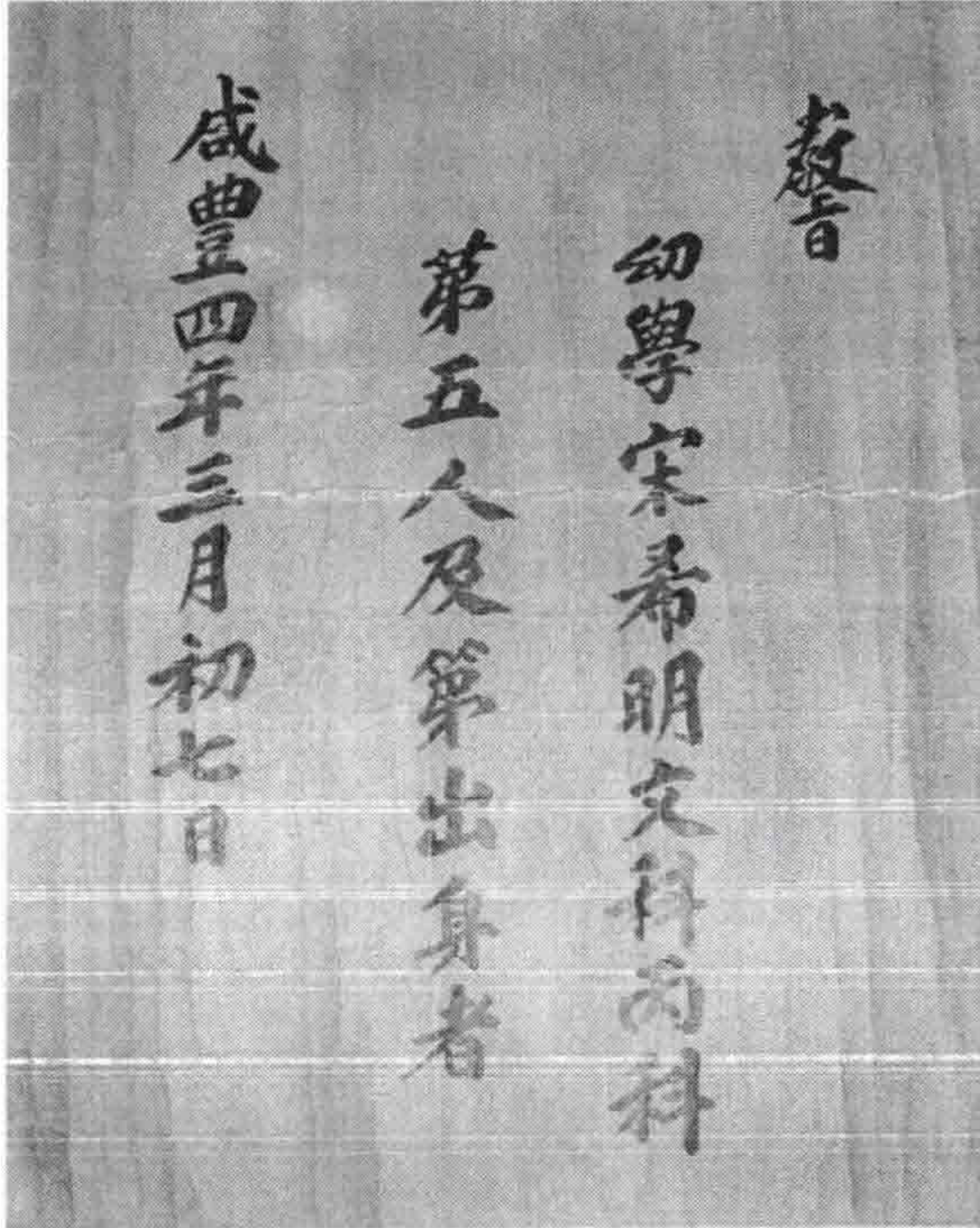
글씨는 여러 사람의 합작품(合作品)이다.

한편 주문지결(奏門旨訣) 1책이 나왔는데 내용은 위학지방(爲學之方)과 똑같고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의 발(跋)이 있다. 여기에 보면 우계(牛溪)가 겸손한 마음으로 제목을 붙이지 않은 것을 후인(後人)이 주문지결이라 했다고 했는데 후인은 우암 자신을 말한 것으로 본다.

위학지방 爲學之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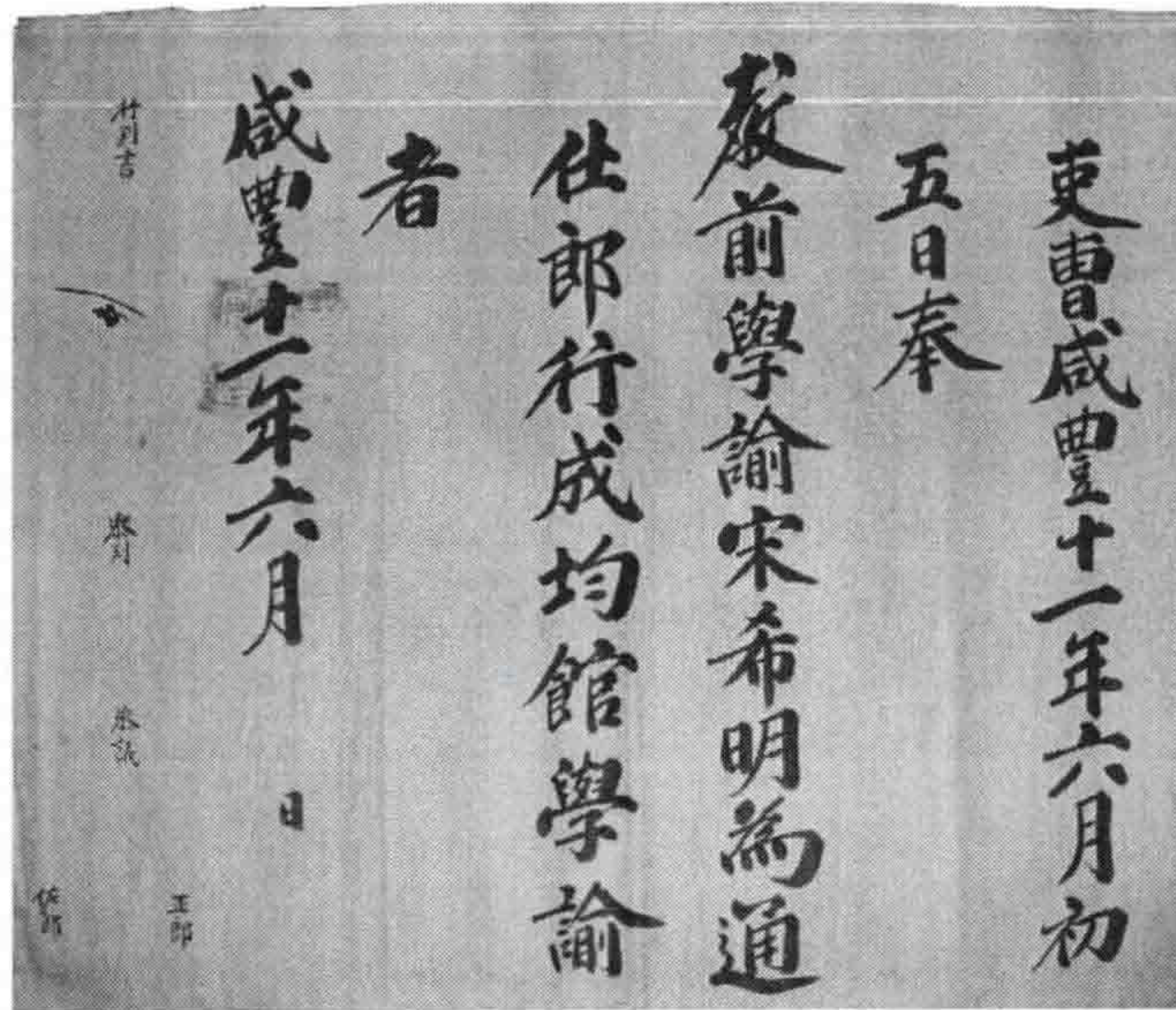
16×23,2 1책 30장

? 송희명 교지(宋希明 教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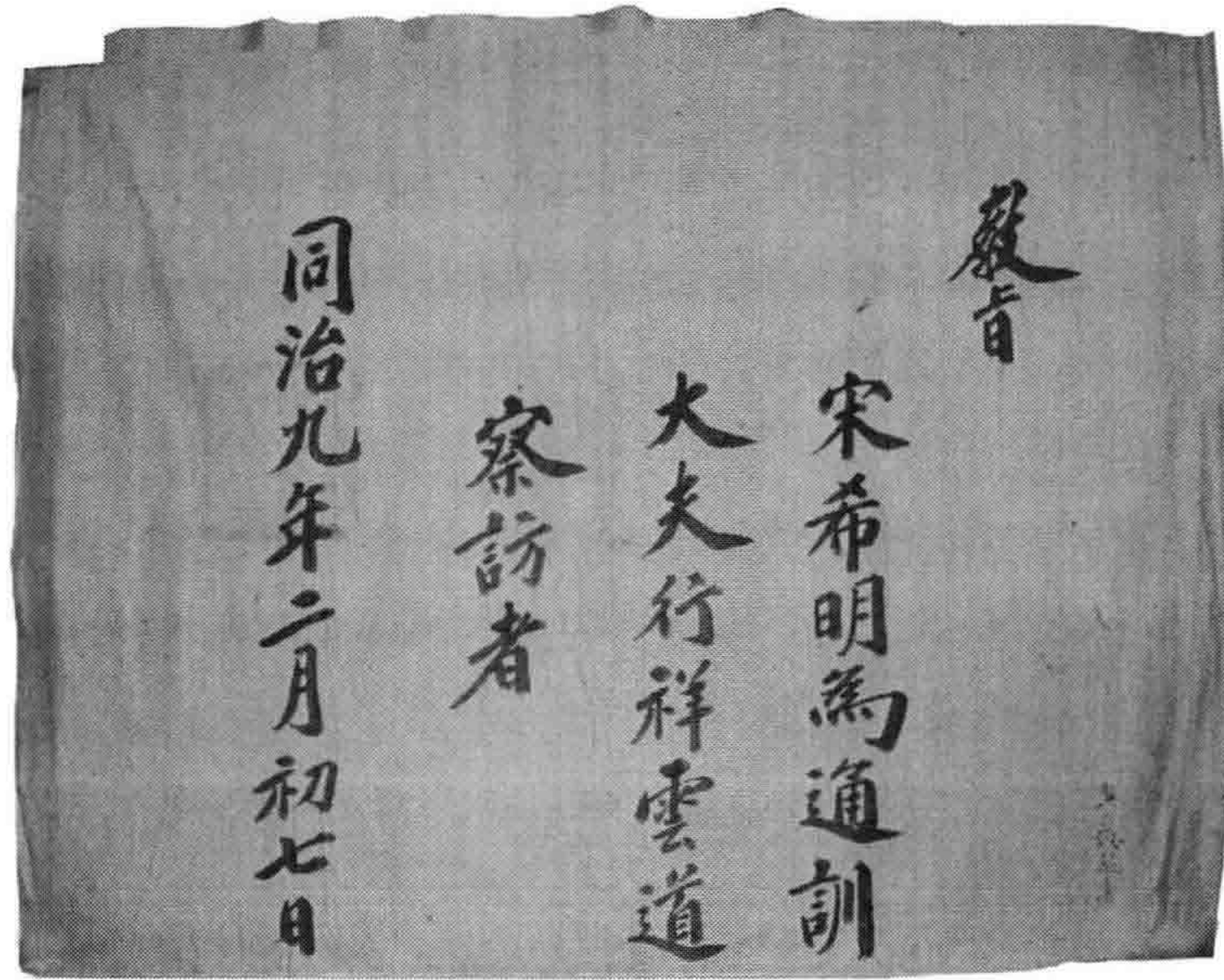


1. 송희명(宋希明 ~)은 연안인(延安人)으로 호(號)는 유초(逾樵)요 대사성(大司成) 광언(光彦)의 후(後) 의헌(義憲)의 아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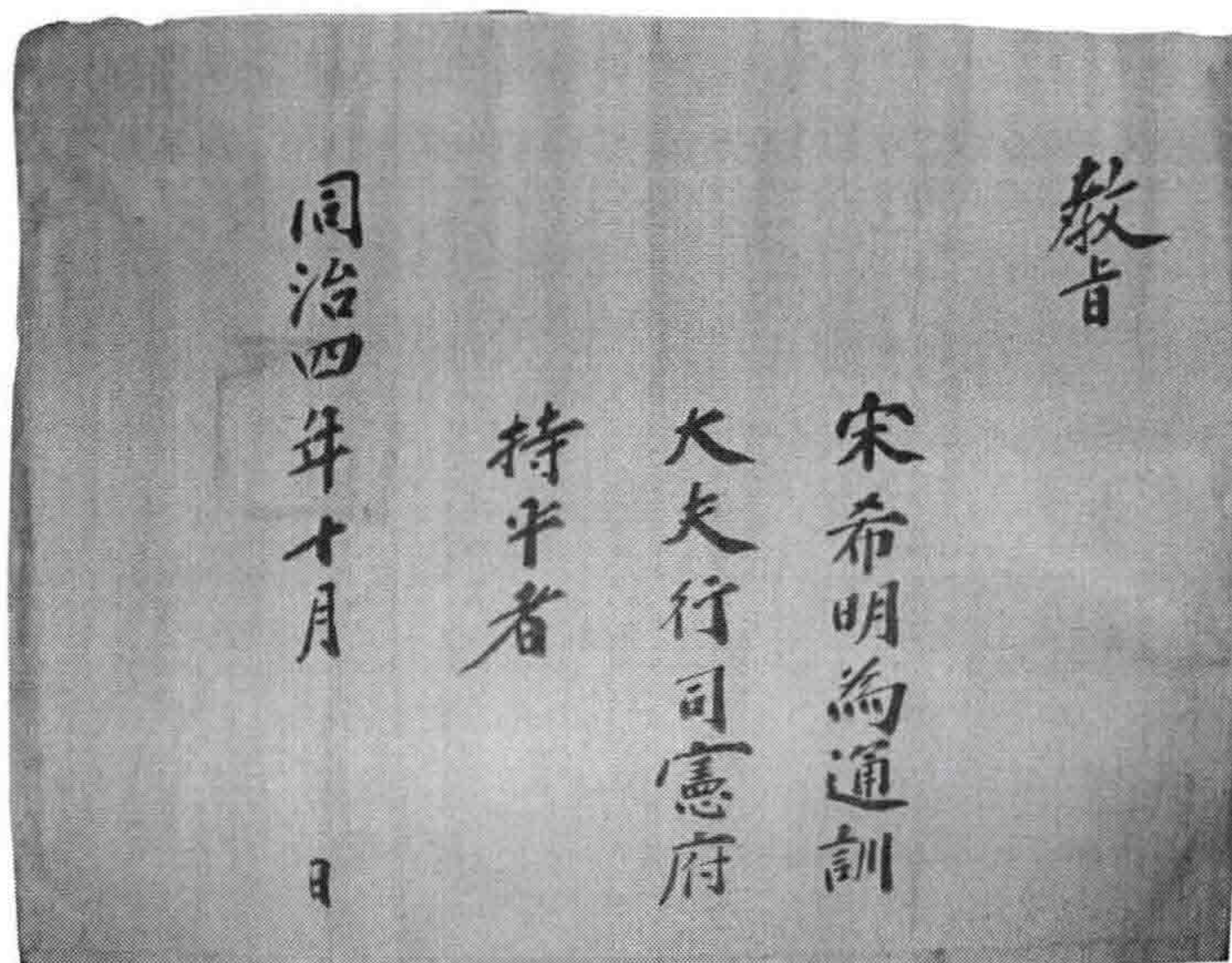
천천면 연평리에 살면서 1854년(哲宗甲寅)에 문과 병과(文科丙科)에 급제(及第)한 교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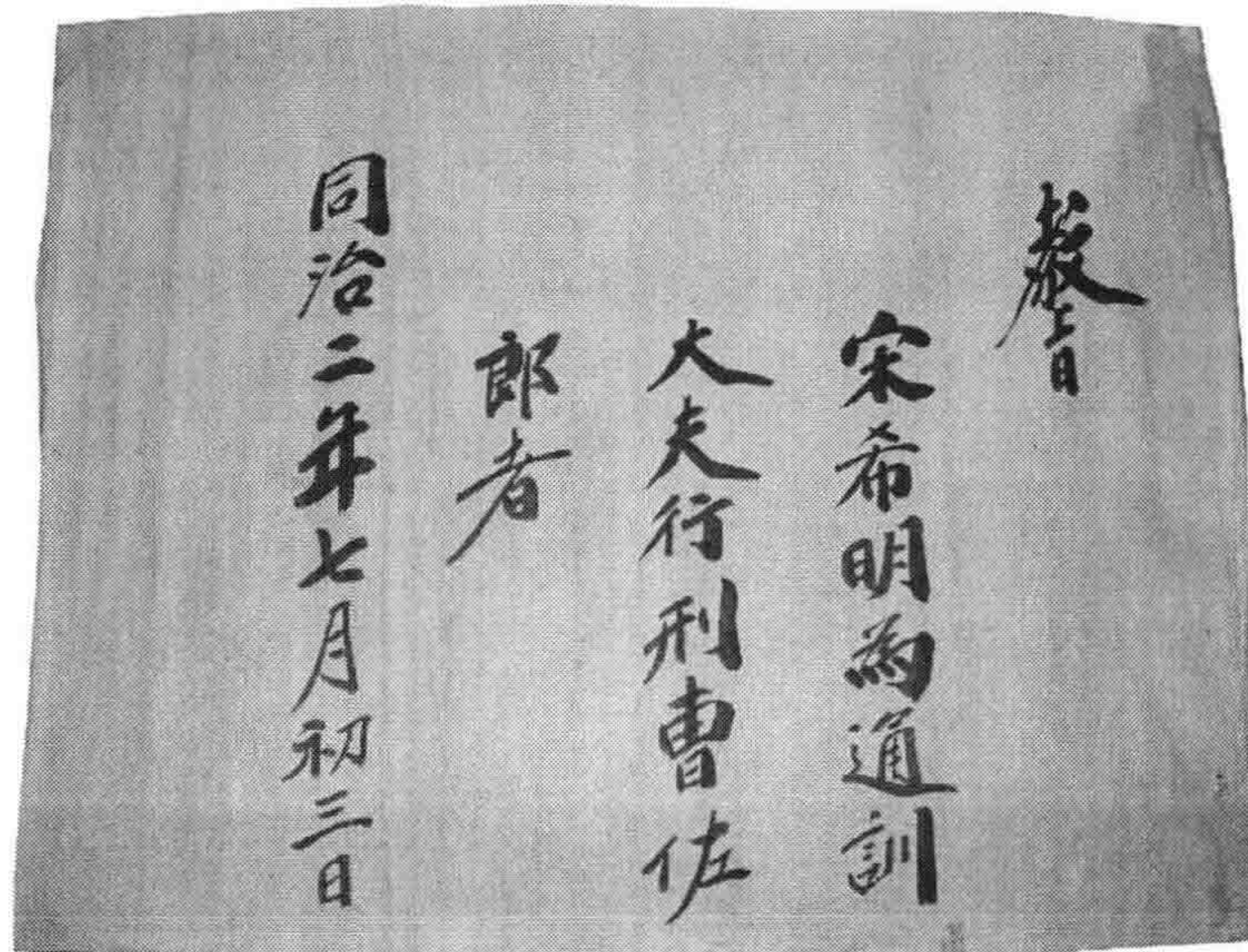
2. 1861년(哲宗辛酉)에 통사랑 행 성균관 학유(通仕郎行成均館學諭)에 제수(除授)된 교지이다. 일자(日子)는 6월 초 5일이다.



3. 통훈대부 행 형조좌랑(通勳大夫行刑曹佐郎)교지이다.(1863년 哲宗癸亥 7월 초 3일)



4. 통훈대부 행 사헌부 지평(通勳大夫行司憲府持平)교지이다.(1864년 高宗甲子 10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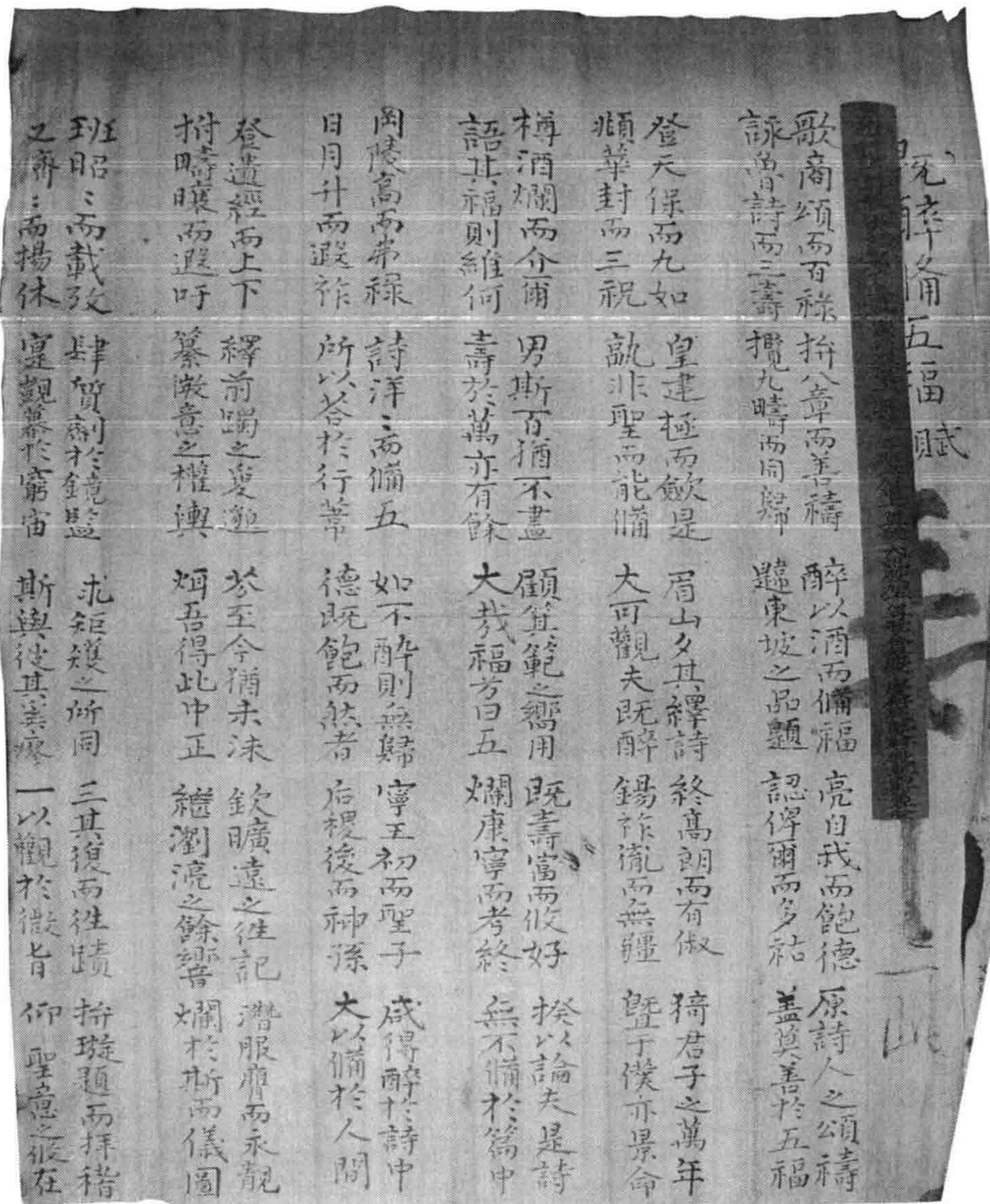
5. 통훈대부 행 상운도찰방(通訓大夫行祥雲道察訪)교지이다.(1870년 高宗庚午 2월 초 7일)

?. 기취 비 오복 부(飢醉備五福賦)

부(賦)는 시(詩)의 류(流)이다. 시가 육의(六義)가 있는데 제2가 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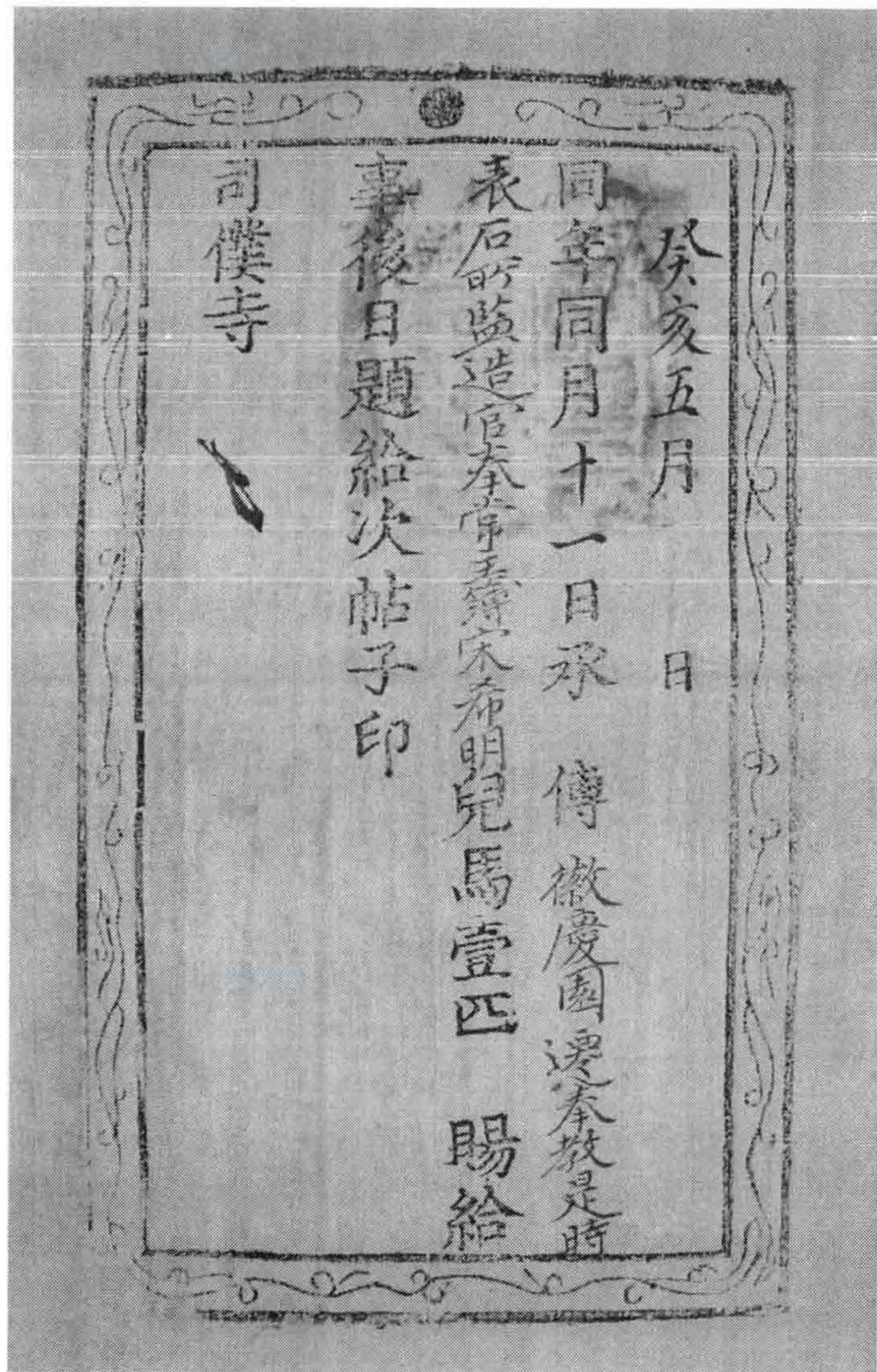
작자(作者)가 기록되지 않았지만 송희명의 교지와 함께 있는 것으로 보아 과제(科題)인듯 하다. 당시는 부(賦)로 과거를 보았다.

오복은 다섯가지 복으로써 수(壽), 부귀(富貴), 강녕(康寧), 유후덕(攸好德), 고종명(考終命)을 말한다.



?. 아마 사급첩(兒馬 賜給帖)

1863년(哲宗癸亥) 5월 11일에 봉상주부(奉常主簿) 송희명에게 어린 말 한필을 사급(賜給)했는데 후일 사복사(司僕寺)에서 첩자(帖子)를 써준 것이다.



? 시당유고(時堂遺稿)

시당(時堂) 전의(全義) 이한응(李漢膺: 1902 壬寅~1949 己丑)은 총명(聰明)이 과인(過人)하여 한번 들으면 문득 기억하는 재주를 지녔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포부를 마음껏 펼치지 못한 채 짧은 생(生)을 마치니, 이는 청약(淸弱)한 체질(體質)에 주경야독(晝耕夜讀)의 과로 탓인가!

그의 시문(詩文)은 청아간결(淸雅簡潔)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눈을 떼지 못하게 한다.

1권은 서(書), 잡저(雜著), 기(記), 서(序), 발(跋), 제문(祭文), 상량문(上梁文), 혼서(婚書)로, 2권은 시(時), 시(詩)로 나누어 친필(親筆)을 남겼는데 글씨 또한 유려(流麗)하다.

서문(序文)은 족질(族姪) 도형(道衡)이 짓고 썼다.

시당유고 時堂遺稿

21×29 2권 1책 50장